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농촌경제

고 재 모 부연구위원
이 일 영 책임연구원

연구 담당자	담당 분야
고재모	연구 설계 및 총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1절 제2절, 제5장, 제7장 집필
이일영	제4장 제3절, 제6장, 제8장 집필

머 리 말

1978년 중국은 경제의 근대화와 대외개방을 지향하는 경제개혁을 개시하였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실험이었다. 이 시도는 성공 여부를 떠나 세계경제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오랫동안 공고하게 유지되어 오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는 농촌으로부터 해체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경제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실험의 한 가운데에 鄉鎮企業이 자리잡고 있다. 鄉鎮企業의 육성·발전은 인구가동의 제한을 전제로 한 중국적 경제발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농촌의 비농업적 활동에 근거한 鄉鎮企業의 활동은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토대로 농촌집체 또는 농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국영기업에 비하면 매우 작은 규모이지만 다양성과 민첩성으로 국내외시장에서의 성과는 주목할만 하다. 1978년부터 1990년까지 중국의 실질 GNP가 연평균 8.8% 성장하고 실질공업생산액은 연 10% 성장하였는데, 공업생산중 鄉鎮企業의 비중은 12년간 9%에서 25%로 크게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제 鄉鎮企業은 중국경제의 부담인 인구압력을 완화하면서 농촌의 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鄉鎮企業에 대해 중국은 물론 서구 및 일본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연구는 중국의 경제개혁과 농촌개혁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鄉鎮企業의 실태와 성격에 대해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시간과 자료, 선행연구의 제약으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

나, 이 연구보고서가 중국의 농업·농촌 발전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199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정 영 일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1
2. 연구방법 4
3. 주요 연구 내용 5

제 2 장 향진기업의 성립 배경과 개념

1. 향진기업의 성립 배경 6
2. 향진기업의 개념과 범위 9

제 3 장 향진기업의 발전과정과 특성

1. 향진기업의 발전과정 21
2. 향진기업 발전상의 특성 32
3. 향진기업의 발전유형 39

제 4 장 향진기업의 구조분석

1. 소유제도 46
2. 향진기업의 산업별 구성 52
3. 기술구조 57

제 5 장 향진기업의 거시경제에 대한 기여

1. 시장경제의 확산 61
2. 잉여 노동력의 흡수 66
3. 국민총생산의 증가 69

4. 국민소득의 제고	70
5. 산업구조의 변화	73
6. 국가 재정수입의 확대	76
7. 무역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	77
제 6 장 향진기업의 농촌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1. 향진기업 발전에 대한 二部門模型의 적용	83
2. 향진기업 발전의 고용효과	89
3. 향진기업 발전과 부문간 관련성	95
제 7 장 향진기업 발전의 저해요인과 유리한 여건	
1. 향진기업 발전의 저해요인	106
2. 향진기업 발전에 유리한 여건	119
제 8 장 요약 및 결론	127

표 목 차

제 2 장

표 2-1 1957년 가격에 의한 중국의 GDP 구성	8
-------------------------------------	---

제 4 장

표 4-1 소유주체별 향진기업 수	49
표 4-2 소유주체별 향진기업 근로자 수	50
표 4-3 소유주체별 향진기업 산출액	51
표 4-4 향진기업의 경·중공업별 총산출액 구성	54
표 4-5 향진기업의 산업별 종사자 수와 산출액 구성	55
표 4-6 향진기업의 생산요소 투입의 변화	59
표 4-7 Cobb-Douglas함수모형을 이용한 요소탄력성 분석결과	60

제 5 장

표 5-1 향진기업 종사자 수와 여타 인구 분포중 비율(1993년)	68
표 5-2 국민총생산액중 향진기업 생산액의 비중	70
표 5-3 국민수입중 향진기업으로부터의 수입 비중	71
표 5-4 농촌사회 총산출액중 향진기업 산출액의 비중	72
표 5-5 향진기업의 산업별 기업 수, 근로자 수 및 산출액	74
표 5-6 산업별 사회총산출액중 향진기업 산출액의 비중	75
표 5-7 국가 재정수입중 향진기업으로부터의 수입 비중	76

표 5-8 최근 수년간 총수출액중 향진기업의 기여	78
-----------------------------------	----

제 6 장

표 6-1 경지에 대한 과잉노동력 수	91
표 6-2 향진기업의 성장요인	93
표 6-3 향진기업의 고용요인	95
표 6-4 개혁 이후 농·공업 성장률간 인과관계의 분석결과(1978~92)	99
표 6-5 개혁 이후 농·공업 성장률간 인과관계의 분석결과(1978~90)	100
표 6-6 개혁 이후 농업·향진기업 성장률간 인과관계의 분석결과(1)	101
표 6-7 개혁 이후 농업·향진기업 성장률간 인과관계의 분석결과(2)	102

제 7 장

표 7-1 향진기업 경영난의 원인	112
표 7-2 선진·낙후지역간의 중요 지표 비교	115
표 7-3 개체소유 기업의 발전요인 구성비	121
표 7-4 향진기업의 순이윤 동향(경상가격 기준)	122
표 7-5 향진기업 순이윤의 용도	123
표 7-6 향진기업 종사자 1인당 산출액의 동향(元/人, 年, 경상가격 기준)	123
표 7-7 집계 향진기업과 국영 공업기업과의 비교(1992)	125

부표 2-1 중국의 인구 변천(기원전 200~1992)	20
--------------------------------------	----

부표 6-1 농업·공업·경공업·중공업의 조산출가치지수	104
-------------------------------------	-----

그림 목 차

제 2 장

그림 2-1 행정조직도	11
그림 2-2 개혁후 鄉鎮정부의 행정편제	11

제 6 장

그림 6-1 중국의 二部門經濟構造	87
그림 6-2 농업·공업·경공업·중공업의 조산출가치지수	97

비

면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수천년간 지역단위의 폐쇄적 경제체제를 유지해왔다. 물론 왕조시대에도 부분적으로는 문호를 개방하고 외국과의 통상을 장려하여 인적·물적 교류가 빈번했던 적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전통적인 촌락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자연경제상태가 전국시대 이래 2000여년간 줄곧 중국경제의 근간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더구나 19C중반 이래 계속된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침입은 중국을 완전한 그들의 상품시장으로 전락시켰다. 산업혁명을 통해 축적한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월등한 생산력은 중국의 취약한 가내수공업을 완전히 붕괴시키기에 충분했다. 신해혁명(1911)을 비롯한 각종 사회운동을 통한 개혁이 시도되었지만 번번히 좌절되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까지 경제적 피해상은 계속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 정치적 안정은 이룩했으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고수로 경제는 크게 진보하지 못했다.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보다는 공평성이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자리잡으면서 경제적

발전은 둔화되었고, 무역도 사회주의 국가와의 물물교환에 치중함으로써 극히 제한된 상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중국의 경제현상은 최근들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1978년 경제의 개혁과 개방정책을 기점으로 1992년까지 연간 11.2%에 이르는 사회총산출액의 성장, 16.0%에 이르는 대외교역량의 증가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오랜기간 동안 지속되어 오던 촌락중심의 자연경제상태가 해체되고 탈지역적 개방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경제사상 중대한 전환이 이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같은 변화의 동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대부분의 논자는 일단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과 향진기업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해 왔다는 데 이의가 없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농업부문의 생산책임제 도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은 농업부문의 생산책임제를 통해 농가단위의 책임과 자율적 경영을 인정함으로써 상품경제 발전의 기초를 형성했다. 이에 비해 향진기업은 지역단위의 폐쇄경제상태를 와해시키면서 상품경제의 확산을 주도했다.

향진기업의 발전은 종래 사회주의적 제도하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사적 소유권의 문제,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 등을 필연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향진기업은 중국경제의 흐름을 폐쇄에서 개방으로, 구속에서 자율로, 자급자족에서 상호교류와 의존으로 이행케 하는 하나의 커다란 經濟史上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의 주역을 향진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할 때 향진기업에 대한 연구는 그 것만으로도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중국은 1980년대 후반까지 기본적인 식량의 자급을 달성하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농업과 농촌의 구조개혁과 관련한 각종 정책적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1978년 이래 중국이 생산책임제를 도입하면서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기본적인 식량의 자급은 달성되었지만 그 밖의 또 다른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의 인구문제, 지역간 불균형성장 문제, 도농간의 격차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92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72%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지만 농업부문은 사

회총산출액의 16.3%만을 점유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같은 문제들은 농업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전체의 경제운용상 제약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적극적인 농촌발전전략이 제기되었다.

중국의 농촌발전전략은 운용상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가급적 농촌 인구의 유출을 막는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할 때 농업부문으로부터의 인구유출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개발경제학의 입장에서는 농업부문으로부터의 값싼 노동력 공급을 경제발전과 이중구조 타파의 필연적 과정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는 이같은 도식이 성립되기 어려운 독특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있다. 그것은 중국에서의 인구이동은 도시문제를 비롯한 인구이동에 따른 몇가지 부수적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부적 또는 대규모의 경제적 마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에 자유로운 인구이동이 가능해진다면 일거에 수천만 또는 수억의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이며, 이것은 취약한 사회간접자본과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개발 혹은 농촌발전전략이 반드시 인구유동의 제한을 전제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같은 전제하에서 정책의 큰 흐름은 '離土不離鄉 進廠不進城'(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농촌을 떠나지 말고, 공장에 취업하더라도 도시로 진입하지는 말라)으로 대표되고 그 수단으로써 향진기업 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장래, 농업과 농촌의 구조변화, 향후 우리나라와의 상관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농촌발전전략과 전략의 핵심이 되는 향진기업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조치가 중국의 개혁과 개방정책을 모델로 설정하고 제도개혁과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진되고, 나아가 통합이 실현될 때 중국의 경험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향진기업을 활용한 중국의 농촌발전전략, 즉 농촌의 노동력 이용, 자원의 효율적 활용, 자본주의 체

제로의 이행과정에서 파생하는 많은 문제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자유로운 노동력의 이동이 불허된 상황에서 농촌경제체제의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 향진기업의 발전모형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배경에 의거하여 본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한다.

첫째, 중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향진기업에 대한 개념정립과 인식제고.

둘째, 향진기업의 발전과정, 거시경제에 대한 역할과 기여 등을 고찰함으로써 중국의 농촌경제현황 파악.

셋째, 향진기업의 구조분석을 통해 농촌경제의 내면적 변화에 대한 고찰.

넷째 향진기업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를 종합하고, 실제로 향진기업이 농촌경제내에서 공업부문 및 농업부문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실증분석.

다섯째, 향진기업 발전상의 저해요인과 유리한 여건들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의 전망에 활용.

2. 연구방법

상술한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본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첫째, 향진기업의 발전과 관련된 기존 연구문헌을 검토하고, 공식 통계자료에 의거하여 설명을 덧붙였다.

둘째, 향진기업의 기술구조 분석에서는 Cobb-Douglas함수모형을 이용하여 향진기업의 자원사용형태, 즉 향진기업이 성장하면서 자본집약적으로 이행하는가 아니면 더욱 노동집약적으로 이행하는가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규모에 대한 보수의 체증 혹은 체감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향진기업 발전의 한계와 지속적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셋째, 향진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이동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간단

한 계량모형을 이용하였다. 농촌내부의 압력에 의한 배출요인으로 인한 노동력의 이동인가 아니면 향진기업의 견인요인에 의한 노동력의 이동인가를 구명하고자 했다.

넷째, 일반적으로 향진기업은 농촌의 공업화와 중대한 관련이 있고 농업 부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향진기업이 농업성장 혹은 공업성장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본연구에서는 Granger Test를 통하여 그 관계를 분석하고자 시도했다.

3. 주요 연구 내용

본서는 처음의 서론부분과 마지막 요약 및 결론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여섯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선 제2장에서는 향진기업을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는가와 향진기업 주관부서인 국무원 농업부 鄉鎮企業司에서 분류한 향진기업의 종류 및 범위가 설명되어 있다. 제3장에는 향진기업이 있기까지의 배경, 향진기업의 발전과정 및 발전과정상 나타난 특성들이 서술되어 있다. 제4장에서는 향진기업의 소유제도, 산업별 구성 및 기술구조 등을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향진기업의 거시경제에 대한 기여에 대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찰했다. 제6장에서는 향진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향진기업이 중국 농촌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7장은 향진기업 발전상의 저해요인과 유리한 여건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간단한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향진기업의 성립 배경과 개념

1. 향진기업의 성립 배경

전국시대 이래 아편전쟁(1840)이 발발한 19세기 중엽까지 약 2천여년간 지속된 중국 봉건사회의 경제적 특성은 정체성으로 대표된다. K. Marx의 지적¹을 차치하고라도 소유형식과 생산형식상 거의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 이러한 논의의 배경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농업생산 수단인 토지의 소유형태는 봉건국가 토지점유제, 봉건지주 토지점유제 및 소작농 토지점유제로 대별되는데 기원전부터 시작하여 20세기초까지 이어져 왔다.² 전국시대부터 사용되던 쟁기(犁), 호미(鋤), 낫(鎌) 등 주요생산 도구들은 최근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1949년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경제체

¹ K. Marx는 아시아 농경사회의 일반적 특성을 총체적 노예제로서의 정체성으로 규정한다. 즉 자급자족적 단순재생산의 순환, 군주와 관료조직 운영을 위한 잉여생산물의 貢納, 대규모 관개와 운하건설을 위한 잉여노동력의 동원 등이 사회경제의 발전동인을 소멸시키고 지속적인 정체사회로 이행케 했다는 것이다.

² 李淸雅 外, 「簡明中國近代經濟史」, 中國統計出版社, 1992. p. 12.

제가 바뀌면서 소유형식에는 전면적인 수정이 가해졌으나 생산형식은 불변인 채로 남아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산력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다. 1949년 토지개혁이 수행되면서 봉건잔재의 청산에는 성공했으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과거 중국의 농촌사회가 '빈곤의 악순환'(Nurkse)을 거듭하고 있었다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 상당 기간은 공업발전을 위한 '빈곤의 최후의 보루'(De Janvry)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

중국경제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현상은 농업과 농촌이 압도적 비중을 가지면서 지역단위의 자급자족체제를 철저히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과거 봉건왕조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농업과 농촌부문이 중국경제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특히 인구구성상 농촌인구는 줄곧 전체인구의 80~90%수준을 유지해 왔다. 최근들어 농촌의 인구 편중 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기는 하다. 1951년 88%, 1980년 80%, 그리고 1992년말 현재 72%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인구의 절대적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구의 농촌지역 편중에 비하면 농업생산이 국내총생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GDP구성 중 농업부문의 연도별 비중을 보면 1918년 62%, 1933년 59%, 1952년 48% 및 1957년 46%로 하락하였으며(표 2-1 참조), 최근에는 20%수준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은 역설적으로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과다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며 이러한 과잉상태의 농촌인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연구배경에서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중국에서는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으면서 그들을 적절히 고용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발전전략의 관건

³ 1978년이전 중국의 경제정책은 외면상으로는 농업우선의 구호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기간동안 중공업 우선 발전전략이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근로자들의 낮은 생계비 유지를 위하여 저곡가 정책을 불가피하게 했던 것이다. 즉 농업부문은 공업발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에 가장 큰 의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즉 인구이동의 제한을 전제로 한 발전전략으로서 농촌을 중심으로 한 향진기업의 성립과 발전이 불가피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도시의 발전은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도시화의 과정은 천차만별이다. 대부분 선진국가의 도시화 과정에서는 농민들이 파산하면서 도시로 몰려들고, 이들이 공장근로자로 전락한다. 도시가 확대되고 다시 인구가 유입되면서 심각한 ‘都市病’이 발생한다. 중국은 이같은 길을 선택할 수가 없다. 특히 몇몇 대도시의 인구가 다시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각지의 小都市를 발전시켜서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중국에는 2천개 이상의 縣이 있고, 7만개 이상의 鄉鎮 소재지가 있다. 각 縣의 소재지에 5만명의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1억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 . . . 인구 1인에게 필요한 건설비용은 대도시가 중소도시에 비해 3~5배 정도 더 소요된다. 중국의 경제력으로는 인구가 대도시로 집중할 때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⁴

표 2-1 1957년 가격에 의한 중국의 GDP 구성

단위: %

구 분	1914~18	1933	1952	1957
농 업	61.8	59.2	47.9	45.9
제조업	17.6	19.8	26.2	31.8
서비스	20.7	21.0	25.9	22.3
G D P	100.0	100.0	100.0	100.0

주: 1947년도 불변가격에 의한 계산.

자료: Perkins, D.H, *China's Modern Economy in Historical Perspective*, Stanford, 1975, p. 117.

⁴ 陳乃醒, 王延中, 胥和平, “促使中國經濟社會進入更高層次的新生力量 - 試論鄉鎮企業發展的長遠效應”, 「農業經濟問題」, 中國農業經濟學會, 1992年 第2期, 1992. 2. p. 29.

중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감안할 때 인구의 자유스러운 이동을 법적·제도적으로 막으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이다.

만약 인구의 이동을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억제한다면 이는 정책적으로 그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과거 엄격한 통제하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지역간 혹은 계층간 부와 기회의 공평성으로써 이 문제에 대처했다. 그러나 경제의 자유화·개방화가 진행될수록 기업의 활동영역은 넓어지고 자연히 공평성 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사회주의가 내세우는 가장 훌륭한 장점인 공평성의 지속적 추구가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따라서 교육적·문화적 측면에서의 기회균등은 달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에 대하여 보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향진기업 발전은 공평성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향진기업의 성립과 발전은 제한된 경지면적의 조건하에서 농업소득의 제고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렀으므로 농외소득 획득의 기회를 확대하여 제도적 인구이동 억제에 대한 보상을 달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의 구현인 것이다.

2. 향진기업의 개념과 범위

2.1. 향진기업의 개념

본절에서는 향진기업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그 포괄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념파악과 포괄범위의 설정에 앞서 중국의 행정단위에 대한 사전적 인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鄉鎮’이라고 할 때 이 용어는 중국의 행정단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행정구역은 省級단위로서 3개 直轄市, 22개 省 및 5개 自治區가 있다. 省 밑에는 縣과 縣級市(特區 포함)가 있는데 1993년 「中國統計年鑑」에

의하면 2,171개縣(縣級市 323개 포함)이 있다. 縣단위 이하에는 鎮, 鄉이 있다. 우리가 농촌이라고 할 때 縣級 이하의 鎮과 鄉을 지칭하는 것이다.

鎮은 행정적 업무를 수행하는 최하부의 기관이다. 대략 15,000~30,000만 명 정도의 인구를 포괄하고 있다. 鄉은 정부의 행정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정부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며, 대략 1,000~2,000명 정도의 인구를 포괄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각 지역단위에서 黨의 역할이 크다. 과거 인민공사에 대체된 鎮(鄉)의 경우 鎮(鄉) 당위원회 지도하에 당과 정부가 협동하여 農工商聯合公司를 통한 鎮(鄉)소유의 집체기업을 운영하고, 동시에 村營企業 및 개별 농가에 대해서도 지도한다.⁵ 鄉정부의 직원은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공무원은 鄉정부의 주요 부서에 배치되고 국가에서 급여를 받는 반면, 지방 공무원은 鄉정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리에 배치되며 지방 재정에서 급여를 받는다. 각 지역 당위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국가 공무원이고, 농공상 연합공사의 관리와 경영을 맡는다(그림 2-1, 그림 2-2 참조).⁶

다음으로 鄉鎮 아래의 부락단위로서 村이 있다. 村은 과거 인민공사가 조직되어 있을 때는 생산대의 단위가 된 지역사회로서 대략 30가구 내외의 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1970년대 후반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생산책임제가 도입되면서 村단위의 행정적인 기능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이상의 각급 행정구역은 대부분이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환경에 의해 구분된 것이기 때문에 동급의 행정구역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규모나 문화적 유산의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규정짓기는 매우 어렵다.

본절에서 논의하게 될 향진기업의 鄉鎮은 위에서 언급한 鎮과 鄉이라는 행정구역에서부터 출발한 개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고 환경이 변화하면서 향진기업이 반드시 행정구역상의 개념에만 국한되어 사용되지 않고 다른 많은 요소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⁵ 李日榮, 「1980年代 中國의 農業改革」,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3. p. 42.

⁶ 嚴善平, 「現代中國農村의 社會と經濟」, 아시아政經學會, 1992. pp. 19~20.

그림 2-1 행정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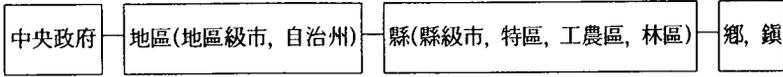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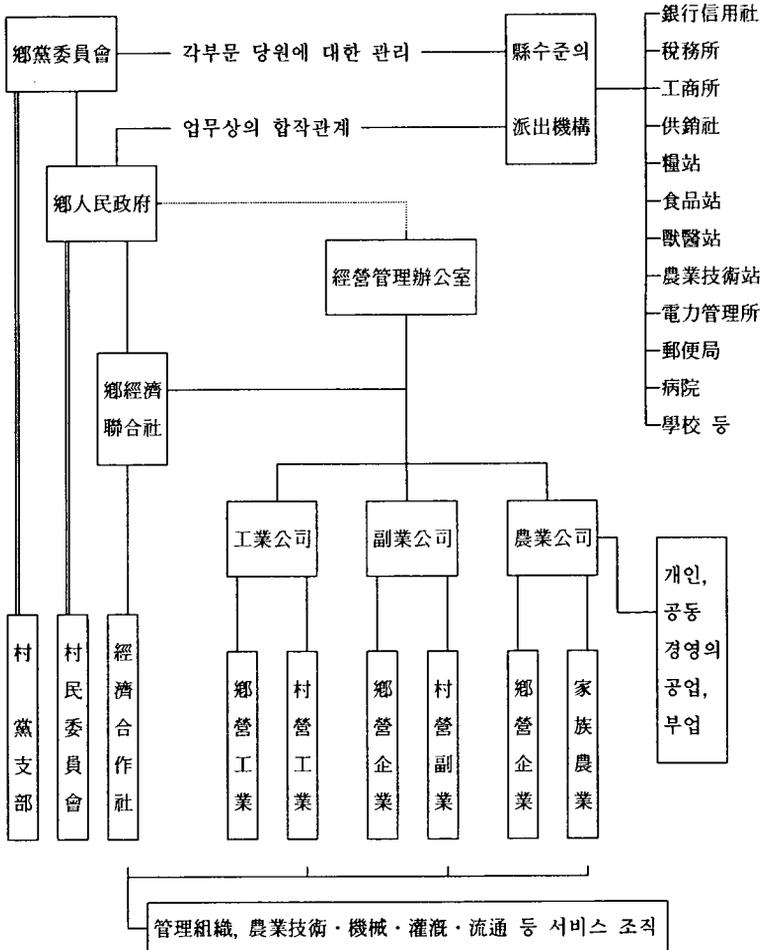


그림 2-2 개혁후 鄉鎮정부의 행정편제



주: 1) — 는 당조직 및 행정체계에 대한 상하관계.

2) — 는 직접적인 계약관계.

3) - - - 는 간접적인 지도관계.

자료: 嚴善平, 앞의 책, pp. 21.

지금까지 향진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얼마만큼의 공헌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본연구의 다음 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렇지만 향진기업이 무엇이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듯 하다. 향진기업은 종종 행정구역상의 鄉鎮지역에 위치한 기업 혹은 중국의 농촌공업 등 고정관념으로 오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진기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밝혀서 범위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향진기업과 관련된 모든 논의의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향진기업은 중국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면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받아들인 상징이다. 비록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성장해 왔다고는 하나 향진기업 역시 기업의 일종이며, 따라서 기업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즉 생산, 유통, 서비스 등을 수행하는 경제조직이고, 최종적으로는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경제의 기본단위인 것이다. 향진기업은 일반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같은 보편적인 특징 이외에도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는 독특한 속성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향진기업과 일반 여타기업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다른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반적으로 향진기업이라고 하면 행정단위로서 鄉과 鎮에 위치하는 기업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기업의 소유주체, 종사자들의 신분 등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이 鄉鎮이라는 명칭에서 유래된 지역적인 의미가 강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비록 향진지역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국유기업은 향진기업에서 제외된다. 또 도시지역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농민이 경영주체가 되어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이는 향진기업에 속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진기업은 단순히 鄉鎮이라는 지역적 범위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용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편 향진기업은 특정한 소유제도에 근거한 개념도 아니다. 국가가 소유하는 기업을 제외하면 향진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를 포함할 수 있다.

鄉과 村단위의 집체소유가 가능하고, 농민개인 혹은 몇몇 농민들의 공동소유도 가능하다. 또 국내 자본출자자들에 의한 합병도 가능하고, 외국자

본과의 합자도 가능하다. 따라서 향진기업은 어떤 특정의 소유형태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향진기업은 어떤 특정 산업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개념인가? 일반적으로 향진기업은 농촌의 공업화와 관련지워지면서 농촌지역의 공업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업부문 이외 건축, 상업, 운수업, 식료품업 등 아주 다양한 업종들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향진의 공업기업이 향진기업의 모든 것을 특징짓는 것도 아니다.

향진기업이 형성되던 초기단계에서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보면 과포화상태의 농촌인구, 낮은 농업생산력, 농업소득에만 의존해야 하는 농민, 정부의 농민에 대한 재정지원 능력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서 전통농업 이외의 부문을 발전시켜 농민을 계속 농촌에 잔류토록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적당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농외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만 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향진기업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통한 농촌공업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전체 인구의 절대다수가 농촌에 머물면서 잉여노동력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농촌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호적제도의 강제력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⁷

⁷ 1951년 7월 16일 중국정부 공안부는 「城市戶口管理暫行條例」를 공포했다. 원래의 목적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후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정부가 인력의 수급과 상품거래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당시까지는 완전한 통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후 1958년에 人民代表大會에서 「中華人民共和國戶口登記條例」를 통과시키면서 거주와 식량배급을 연계시켜 인구의 이동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제한 조항(1954년 제정된 헌법의 제90조)을 실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에는 상술한 호적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탄력적인 운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호적제도가 외관상으로는 매우 엄격하지만 사실상은 허점 투성이다(漏洞百出).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일선 기관 또는 담당자들은 엄격한 제도를 빙자하여 불법의 기회로 삼고 있다. . . . 온갖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농민과 농가의 유동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호적제도가 요망된다. . . . 이것이 각종 폐단을 제거하고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길이다”. 鄂玉江, “我國農村戶口制度變革的思路”, 「中國農村經濟」, 1992年 第11期, 1992. 11. pp. 46~48 참조.

그러나 1978년 이래 경제의 개방화가 추진되면서 호적제도에 의한 인구 이동의 제한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8~9억에 가까운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였다. 따라서 재촌(不離鄉)취업을 확대하여 인구의 이동을 막는 가장 적합한 선택으로써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기업의 창설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향진기업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그것은 지역적 개념으로서 농촌, 산업으로서 농업, 경영주체로서 농민이 모두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내재적인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 향진기업이 농촌이라는 지역적 개념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농촌경제를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폐쇄적 자연경제상태에서 상품경제로 이행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향진기업이 특정 업종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나, 농업생산력의 제고와 농업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이 배경이 되어 발전이 가능했다. 나아가 기업의 경영주체와 종사자들이 농민 또는 농민출신들에 의해 충원됨으로써 농촌의 노동력문제 및 그들의 소득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진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자.

첫째 향진기업에 종사하는 절대다수의 근로자는 농민 혹은 농민출신이다. 그들 대부분은 아직도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때로는 기업에 종사하다가 때로는 농사일에 종사하기도 한다.

둘째 향진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각자 국가로부터 임차받은 토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다. 그들이 기업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토지의 경영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호적제도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허용하고 있지 않은 탓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離農不離鄉’의 형태를 취하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농업경영을 행하고 있다.

셋째 향진기업의 생산·수입·분배는 농촌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향진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생산물의 판매에서 얻는 수입의 귀속과 분배 등은 농촌경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야말로 향진기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 농업에 이용되는 토지, 그리고 농촌의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위와 같은 속성을 가진 기업이면 기업의 소재지, 소유주체, 생산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향진기업으로 분류된다. 즉, 농촌·농민 및 토지와 연계된 상호관계가 향진기업과 일반 기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농촌·농민 및 토지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면 일반기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진기업은 개념적으로 농업을 배경으로 농촌 및 토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농촌경제를 구성하는 농민적 소유가 전제되며, 농민의 자주적 경영에 의한 생산, 유통 및 서비스 업무가 이루어지는 독립채산적 경제조직이다.⁸

향진기업에 대해 위와 같이 개념을 정립하는 데에는 향진기업의 지연성 및 혈연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우선 지방정부가 집체기업 관리의 실체이다. 집체기업에 대한 인사권과 투자권을 가지고 있고, 생산계획까지도 통제한다. 둘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거의 대부분이 해당 지역내에서 공급된다. 셋째,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원은 해당 지방정부와 구역내 다른 집체기업이다. 넷째, 대부분 기업은 생산자재의 공급과 생산 및 판로가 해당 지역내에 국한되어 있다. 다섯째, 기업의 위치가 해당 지역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鎮경영 기업은 해당 鎮에, 鄉경영 기업은 해당 鄉에, 村경영 기업은 해당 村에 위치하고 있다). 이같은 특성들은 혈연성과 지연성에서 오는 필연적 결과이며, 농촌의 村마다 작은 공장이 있고, 공장마다 연기가 오르는 형상을 낳았다(村村點火 戶戶冒煙).⁹ 비록 향진기업 산출물이 대부분 공업제품이라고는 하지만 이처럼 농민·농업·농촌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2.2. 향진기업의 범위

향진기업에 대한 개념정립이 이루어진후에도 향진기업의 범위가 어디까

⁸ 陳吉元 主編, 「鄉鎮企業模式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8, p. 22.

⁹ 辜勝阻, “中國農村經濟非農化實踐及發展趣向”, 「農業經濟問題」, 中國農業經濟學會, 1992年 第6期, 1992. 6. p. 52.

지인가는 쉽게 결정되지 않는다. 개념상으로는 상술한 향진기업의 본질적 속성을 갖춘 기업을 향진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상술한 정의의 범주를 벗어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향진기업에 포함될 수도 있다.

초기단계에서 향진기업의 필요조건을 모두 갖추어서 성립이 되었지만 운영과정에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소유권의 내용이 다소 변질될 수도 있고, 또 통계처리나 주관기관의 편의에 따라 향진기업으로서의 성립요건이 미흡하지만 향진기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진기업에 대한 개념정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는 수량화될 수 있는 지표, 예를 들면 종업원수, 특정 지역에 분포 혹은 자산규모 등에 의해 기업의 대소가 구분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본절에서는 향진기업의 범위와 해당 범위내의 기업에 대한 설명을 향진기업 주관기관인 중국 國務院 農業部 鄉鎮企業司의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이는 범위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鄉鎮企業司는 우선 소유제(혹은 경영주체)의 측면에서 향진기업을 다음의 여섯개 분야로 나누었다.¹⁰

(1) 鄉經營 향진기업: 鄉(市지역의 區를 포함)단위에서 경영하는 집체기업. 鄉과 鄉간의 합영, 鄉과 村과의 합영, 鄉과 국영 및 鎮단위의 합영, 鄉과 외국기업 혹은 교포(홍콩, 마카오의 동포를 포함)와의 합영.

(2) 村經營 향진기업: 村단위에서 경영하는 집체기업, 村과 村간의 합영, 村과 組¹¹와의 합영, 村과 국영 및 鎮단위의 합영, 村과 외국기업 혹은 교포(홍콩, 마카오의 동포를 포함)와의 합영.

(3) 組經營 향진기업: 원래 人民公社 시절의 生産隊가 경영한 향진기업을

¹⁰ 향진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 경영이기도 하지만 성립과정에서부터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소유주체와 경영주체와 완전히 동일시 되며 통계자료상으로도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¹¹ 1978년 인민공사의 해체와 더불어 村內 몇몇 농가를 포함하는 村民小組가 구성되어 있다.

지칭한다. 원래의 생산대¹²와 생산대간의 합영, 생산대와 鎮거주 주민과의 합영, 생산대와 외국기업 혹은 교포(홍콩, 마카오의 동포를 포함)와의 합영.

(4) 몇몇 농가가 연합경영하는 향진기업¹³: 농민과 농민, 농민과 鎮거주 주민, 농민과 향촌집체, 농민과 외국기업 혹은 교포(홍콩과 마카오의 동포를 포함)와의 합영.

(5) 개체기업: 개체경제적 성격을 가진 기업을 지칭한다. 개인(個別戶)이 투자하여 경영하며, 생산에 투입되는 자재는 개인소유이다. 투자와 경영을 담당하는 농가의 구성원만이 직접 생산과 경영활동에 참여한다. 국가에서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면 모든 수익은 개인(個別戶)에게 귀속된다.

(6) 사영기업: 개인(個別戶)이 투자하여 경영하고, 투입되는 자재는 모두 개인소유이다. 국가의 정책적 범위내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외에도 향진기업 주관부문에 규정된 ‘都市地域路店商(城鎮街道辦的企業)’도 통계적으로는 향진기업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노점상들은 옛부터 존재하여 왔는데 향진기업 주관기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향진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즉, 과거 전민소유제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소유주체가 바뀌면서 향진기업 주관기관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들은 향진기업이 갖고있는 본질적인 속성과는 거리가 멀고, 기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개념상으로도 향진기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향진기업 주관기관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행정 통계상 향진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본서의 연구대상에서는 이같은 기업이 제외되어 있다.

¹² 원래 인민공사 시절 20~30호의 농가가 하나의 생산조직 단위를 구성하였는데 이를 생산대라 했다. 6~8개의 생산대가 모여 생산대대를 구성하고, 10개의 생산대대가 인민공사를 구성하였다. 인민공사 체제는 政, 經, 黨, 軍, 教의 일원체제였으나 인민공사가 해체되면서 직능별 다원체제로 환원했다. 행정과 관련하여 생산대가 촌민위원회로 개칭되었으며, 본문에서는 鄉鎮企業司의 원래 규정에 충실히 하기 위해 수정없이 인용했다.

¹³ 이하에서는 농가연합으로 통칭한다.

다음엔 통계처리 부문과 향진기업 주관기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적 측면에서 살펴본 향진기업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업기업: 郷과 村단위의 집체가 경영하는 경종부문의 농업, 임업, 목축업, 그리고 수산업과 관련된 양식업을 하는 기업. 단 농업지구에서 식량작물, 경제작물, 채소등을 경작하는 專業생산대(호), 牧畜지구에서의 專業목축생산대(호) 및 어업지구에서의 專業 수산물생산대(호)는 농업기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¹⁴

(2) 공업기업: 향진기업중 공업부문의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 여기에는 자연자원을 개발하거나 채취하는 기업, 농부산물에 대한 가공을 하는 기업, 공산물에 대한 재가공 혹은 수리업무를 하는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3) 교통운수업기업: 교통관련 기구를 통해 운수업(화물과 사람을 모두 포함)부문에 종사하는 기업 혹은 직접 운수업무(하역, 운반 등)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등을 지칭한다.

(4) 건축업기업: 기업내의 전문인력이 가옥건축, 건축물의 건립이나 수리, 기계설비의 설치 등에 종사하는 기업이다.

(5) 상업기업: 전문적으로 상업부문에서 활동하는 기업, 도매업, 소매업, 대리점, 종합무역업, 물자공급과 판매업, 창고업 등을 포함한다.

(6) 식품업기업: 전문적으로 식당, 주점, 다방 등을 경영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7) 서비스업기업: 여행사, 여관, 세탁소, 이발관, 목욕탕, 일용품 수리, 물품대여업, 주차장, 물품보관소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다.

(8) 기타 기업: 이상에서 언급한 기업 이외의 기업, 자문기관, 정보센터, 문화, 체육, 사회복지 등과 관련된 기업 등이다.

¹⁴ 1978년 생산책임제가 도입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토지는 개별농가에게 경영권이 분배되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과거 인민공사 시절의 郷이나 村단위 집체가 계속 일정범위의 토지를 보유하면서 경작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 경우는 개별농가의 농업경영과는 성질이 다르고 따라서 기업에 포함되며, 전업농의 개별농가는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 소유제와 산업적 측면에서 향진기업의 범위를 살펴보았다. 소유제의 측면에서는 국유를 제외하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향진기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사실상 거의 전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향진기업의 개념을 정리할 때 농업과 향진기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일단 향진기업이 창설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향진기업의 활동내용이 농업과는 점차 유리될 수도 있다.

부표 2-1 중국의 인구 변천(기원전 200~1992)

시대 혹은 연대	인 구 수
西漢(기원전 200년)	최고 6,000만
東漢(서기 156년)	5,000만
隨朝(220~280년)	1,600만
唐朝(742년)	4,800만
宋朝(1110년)	4,670만
明朝(1303년)	6,050만
淸朝(1661년)	2,100만
淸朝(1757년)	19,000만
淸朝(1901년)	42,600만
民國(1928년)	47,400만
1953년(普查)	58,800만
1965년(普查)	72,500만
1975년	92,400만
1982년(普查)	101,500만
1990년(普查)	113,400만

주: '普查'라고 함은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전인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통인구조사'를 의미함.

자료: 梁方中, 「中國歷代戶口, 田地, 田賦統計」, 上海人民出版社, 1980 ; 「中國人口統計年鑑」, 中國展望出版社, 각연도.

제 3 장

향진기업의 발전과정과 특성

1. 향진기업의 발전과정

향진기업이 현재는 중국경제내에서 중대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오래전 부터 있어온 경제조직은 아니고 1984년에야 처음으로 향진기업이란 이름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1984년 「中共中央 4號文件」이 반포되면서 원래의 社隊企業이 점차 鄉鎮企業이란 명칭으로 바뀌기 시작했다.¹ 이는 향진기업이 이미 社隊企業과 다르다는 것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발전과정에서도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진기업이 내용면에서 과거 인민공사 시절의 社隊企業을 이어 받았다고는 하나 용어자체는 중국역사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던 것이 새로 탄생한 것이며, 따라서 국가의 정책과 무관

¹ 이는 두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농촌의 정치 및 사회체제 개혁후 人民公社는 鄉 혹은 鎮으로 개칭되었고, 인민공사내 生産大隊는 村으로 개칭되었다. 둘째, 원래의 '社隊企業'은 인민공사와 생산대대에서 운영하는 기업에만 국한되어 있었으나, 향진기업은 鄉과 鎮 이외 개인농가, 몇몇 농가의 합영, 기타 각종 형식의 합영 등 다양한 형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할 수가 없다. 동시에 기업의 성장은 정치, 경제, 사회 및 자연환경의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각시기별, 각지역별로 각자의 특성을 갖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의 향진기업은 지역의 경제발전을 결정지울 만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향진기업의 발전이 있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과 긴 시간이 필요했다. 향진기업의 발전이 어려웠다는 것은 우선 중국의 자연적 조건이 각지역별로 복잡다기하게 나타난다는 데 기인한다. 향진기업의 대부분이 지역개발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자연히 각지역 자연환경의 영향을 심각히 받을 수 밖에 없다. 다양한 자연적 조건을 배경으로 성장발전하는 기업을 단순한 정책이나 일률적인 규정으로서 구속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음으로는 과거 일정 기간동안 사상적, 정책적인 오류의 누적이 향진기업의 발전을 지연시켰다. 향진기업도 기업적 행위를 하므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고, 상품경제의 발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본주의의 꼬리'(資本主義尾巴)를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던 기간중에는 실질적인 발전이 거의 불가능했다.

향진기업의 발전이 아주 오랜 기간을 필요로 했다는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과거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개인의 사적 경제활동이 금기시되고, 그 결과 사적 경제활동에 기초를 두고있는 모든 기업들은 인위적으로 도태되었다. 농촌에서는 '식량생산 위주'(以糧爲綱)의 방침하에 농촌의 비농업적 활동을 소멸시키고, 이 과정에서 社隊企業은 이십 수년동안 거의 빈사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1978년 제11기 三中全會가 개최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1978년 이후 경제개혁의 물결이 일면서 향진기업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커지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최근 십여년 이래 향진기업의 탁월한 성과는 중국 국내에서도 이론과 실제 양방면에서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고, 시각에 따라서는 異論의 여지도 많다. 본장에서는 우선 향진기업의 역사적 변천과정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다

만 合作社와 社隊企業이 향진기업의 전신인 만큼 향진기업의 발전을 고찰하려 한다면 이들에 대해서도 그 역사성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에서 향진기업의 발전은 크게 네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1. 합작사시기(1951~57)

19C~20C초 세계 제국주의 열강들이 중국을 침략할 때까지 중국은 봉건적 자연경제상태하에서 지역적 자급자족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공업은 도시지역의 가내수공업과 농가부업형태가 고작이었다. 열강의 침략은 중국의 자급자족적 폐쇄상태를 해체하여 상품경제로 이행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근대적 방직공장이 각지에 설립되면서 대부분의 가내수공업의 존립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농가부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 중국의 전통적인 생산체제는 산업혁명을 통해 축적한 서구의 대량생산체제에 대항하기가 어려워졌던 것이다. 상품경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은 20C중반까지 서구의 반식민지 상태로 잔존해 있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공산당 정부는 「政商協同綱領」에서 “인민정부의 임무는 농업생산과 부업의 발전이 중심이다”고 선언했다. 곧이어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반식민지 상태의 생산관계를 청산하고 농업생산성을 제고하며 정권의 안정을 기하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²

1950~53년 기간 중에는 토지개혁의 성공에 힘입어 당국의 지도하에 ‘互助合作’운동이 시작되어 1952년에는 농촌에 互助組가 성립된다. 토지와 가축, 농기구 등 대부분의 생산자재는 사유로 남겨놓은 채 계절적 또는 연중

²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이후의 토지개혁은 그 이전부터 부분적으로 지속돼 온 각종 개혁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土地問題黨綱草案」(1927. 11), 「井岡山土地法」(1928. 12), 「興國縣土地法」(1929. 4), 「中華소비에트土地法」(1931. 11), 「抗日根據地에 있어서 土地改革에 관한 決定」(1942. 1), 「中國土地法大綱」(1947. 10) 등 종래 長征과 抗日 및 國共內戰 기간 중 전국 각지에서 실시된 모든 토지관련 법제를 대폭 정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한 완결편이다. 1949년의 토지개혁은 지주계급의 토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분배하였다. 전국의 3억농민과 0.5억ha에 이르는 토지가 대상이었다.

농업생산 협력체로서 互助組를 운영하였다. 전국의 반수에 가까운 농민이 互助組에 참여하게 되고 일부 생산자재의 공동이용으로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互助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1953년초 初級合作社체도를 도입한다. 初級合作社체도는 공·농·상 전문야에 걸쳐 성립되는데, 과거 생산수단의 완전한 사적 소유로부터 주요 생산수단의 공유로 이행했다. 그리고 국가와 공동소유의 주체인 집단과 개인의 三者間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는 사회주의적 집단경영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볼 수 있다. 곧이어 1950년대 중반에는 다시 모든 생산수단을 공유화하고 필요에 의한 공평한 분배를 강조하는 高級合作社체제로 전환한다. 모든 생산수단에 대하여 사적소유는 부정되고 사회주의적 집단소유와 집단경영만이 존재하여 사회주의체제의 공고화가 이룩된다. 소유와 분배제도의 급격한 변화과정에서 강제성이 동원되고 반발도 적지 않았으나 결국 1950년대 후반에는 대형 합작사들이 해체되기까지 하면서 人民公社 단계로 이행한다.

1.2. 社隊企業의 성립과 발전(1958~78)

社隊企業은 1950년대말 처음으로 등장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선포되고 정치적인 정치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듬해인 195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회복과 건설부문에 온 힘을 기울였다. 1953~1957년 기간중 제1차5개년계획이 수행되면서 모든 역량이 경제부문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경제의 회복속도는 빨라졌고 비교적 변영국면에 진입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1958년부터는 다시 정치적인 결정으로 농촌의 인민공사화가 시작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社隊企業도 형성되었다. 인민공사화의 초기단계에서는 맹목적 구호하에 무계획적 돌진현상이 속출하였다. 설정된 목표들은 현실을 무시한 채 과대하게 책정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정책적 실책이 거듭되었다. 농촌경제체제도 인민공사가 주도하는 정치적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철강산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었고, 전인민을 철강

산업에 투입(全民大煉鋼鐵)하였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노동력은 모두 철강산업 부문에 투입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농촌은 황폐해 갔다.

인민공사가 농촌 공업부문의 기업활동에 주력하게 되고, 이것이 통계상으로는 농촌공업화의 기원이 되며 社隊企業의 시초가 된다. 1959년말 농촌에는 이미 70만개 이상의 공장이 세워졌고,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500만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산출액은 100억원을 넘었으며, 이 액수는 국가 전체의 총공업생산액 중 10%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는 외관상으로 적지 않은 성과로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과라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당시의 농촌공업화가 농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농촌공업은 경제활동을 빙자해서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는 데 불과했으며 객관적 경제법칙에 따라 운영된 것도 아니다. 이같은 농촌공업화의 과정이 생명력을 갖고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 농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며 농업부문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농촌의 공업화란, 존재의의가 미약할 수 밖에 없었다. 오히려 농업부문에 투입되어야 할 농민들을 강제로 공업부문에 투입함으로써 농촌에서의 농업과 공업 모두에 지지부진한 결과를 초래했다. 농촌에서의 농업생산기반만 파괴되었고, 대량의 인적·물적 자원만 낭비될 뿐이었다. 1959~1962년의 기간중 엄습한 대규모의 자연재해는 국가전체의 식량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면서 농촌에서의 왜곡된 경제구조를 일거에 와해시키기에 충분했다.

1962년 이후 와해된 농촌경제구조를 재건하고 경제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정정책이 실시될 때 이 같은 농촌공업화의 불합리성은 기본적으로 모두 시정되었다. 社隊企業에 의해 운영되던 농촌의 비농업적 요소는 대부분 제거되기 시작했다. 농기계의 수리, 식량과 油料의 가공 등 농업생산과 농민생활에 필요한 일부 기업만이 남겨졌다. 대부분 농민들은 다시 농사현장으로 복귀하고 농촌에서의 시장도 부분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社隊企業의 활동은 위축되고 유명무실해졌다. 반면 경제는 활력을 되찾고 생산성은 향상되었다. 이같은 분위기는 1966년 문화대혁명에 의해 농촌에서의 인민공사체제가 다시 강화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70년대초 다시 社隊企業의 활동이 두드러진 시기가 있었는데, 이 때야 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농촌공업화의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할만하다. 1970년 ‘北方地區農業會議’가 열렸는데 농업생산과 인민들의 생활 및 공업부문에 도움이 된다면 농촌에서도 현지의 자원을 이용하여 소규모의 화학비료 공장, 기계제작소, 시멘트공장, 철강공장, 광산 등을 건설하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이것은 과거 정치적 구호에 의한 社隊企業의 무계획적 운영을 재현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기업의 존재가 경제발전상 필요불가결 하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당시 社隊企業을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농업발전을 위한 서비스기능을 충분히 발휘케 한다는 것이었다. 즉 농촌에서의 社隊企業을 자원이용형으로 운영함으로써 농업발전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社隊企業의 생명력을 오래도록 유지시키자는 것이었다. 이 때는 1950년대말과 비교하여 많은 차이가 있었다. 특히 농촌에서의 인구증가가 두드러졌다. 농촌노동력의 증가에 따른 경지면적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평균경작지의 감소현상이 뚜렷했고, 한편으로는 완만하나마 농촌에도 농기계의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동부지역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이들 지역에서의 협소한 경지규모는 농업 이외 부문에서의 탈출구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도를 행하기 전에 이미 社隊企業의 활동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에서 社隊企業의 활동을 용인 내지 장려하자 곧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했다. 최근 향진기업 연구에서 ‘蘇南모델’이 전형적인 향진기업 발전의 모형으로 제시되는데, 사실은 1970년대부터 발전해 온 동부지역의 社隊企業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후 향진기업 발전의 전형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 시기의 社隊企業은 아직도 많은 제약조건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지리적, 경제적 환경에 기반을 둔 社隊企業이었으므로 강한 생명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1970년대 후반 급속히 성장하는 것으로 이를 입증했다. 社隊企業의 총생산액은 1974년 181억원, 1975년 215.0억원, 1976

년 272억 원, 1977년 391억 원, 1978년 493억 원으로 급증했다. 중국의 경제개혁이 시작되기 직전 4년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28.5%를 기록했을 정도이다.

1.3. 경제개혁하 社隊企業(1979~83)

1978년에서 1983년까지의 농촌개혁은 社隊企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다.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적극성은 매우 높았고, 각종 농업생산은 급속한 성장을 이룩했다. 이것은 社隊企業의 발전을 위해 농업내부의 가장 큰 애로요인을 제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식량생산 이외의 부문에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농촌에 존재하는 대량의 잉여노동력을 비농업부문의 필요한 부문으로 이전가능케 했다.

농업부문의 성장이 가능해지면서 社隊企業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社隊企業의 총생산액은 1978년의 493억 원에서 1983년에는 1,017억 원으로 증가하여 5년동안에 무려 106.2%가 증가했고, 연평균 15.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1983년에 이르러 社隊企業이 흡수한 농촌노동력은 총 3,234.7만명에 이르렀고, 1978년에 비해 14.4%가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농촌의 개혁이 심화되면서도 농촌의 비농업부문 발전은 社隊企業의 역할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이것은 社隊企業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社隊企業 발전의 전제조건인 양호한 농촌경제의 기초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정도로 충족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농촌경제체제의 개혁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면서 원래 경제적 기반이 박약했던 지역에서는 집체경제 자체가 해체되기에 이르렀다.³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운영되던 社隊企業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농민들은 부득이 개체기업, 합영 등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

1.4. 향진기업의 성장(1984~)

³ 농촌경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었던 인민공사의 해체를 의미한다.

1984년 이후 社隊企業은 향진기업이란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개인기업이나 합영이 인정되었고, 향진기업의 발전에도 새로운 출구가 모색되었으며,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제공했다.

1984년은 중국의 경제개혁에서 일대 전환의 시기에 해당한다. 비교적 성공적인 농촌과 농업부문의 개혁을 기초로 도시지역과 비농업부문에까지 확대되는 시점이었다. 지역적, 부문적 측면에서의 개혁분위기 확산은 이론적으로도 사회주의 역사발전 단계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사회주의도 상품경제의 발전을 수용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제 농촌지역에서 개혁의 기본방향은 가족단위의 책임경영 형식을 주체로 하고 농촌의 비농업부문에 대한 내재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정부는 가족경영의 필연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이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했다. 이것은 집체경영 위주에서 탈피하여 농가단위의 가족경영이 출현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농가단위의 경영 혹은 몇몇 농가가 연합하여 경영하는 향진기업이 이 기간중 향진기업 발전의 특징이다. 1984년 향진기업의 수는 606.52만개였다. 그 중 농가단위의 경영이 전체의 69.3%를 차지했다. 향진기업의 총수입은 1,537.08억 원이었으며, 1983년에 비해 65.5%의 증가를 기록했다. 1985년 향진기업의 총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66.9%가 증가했다. 이 중 농가단위 경영과 몇몇 농가가 합영한 기업의 총수입은 1.85배 증가하였고, 기업수에 있어서도 600만개를 초과했다. 1986년에는 전국의 향진기업 총수 중 88.6%가 농가단위 경영기업 혹은 농가 합영한 기업이었다. 향진기업 총산출액은 전년도에 비해 29.8% 증가했으며, 증가액 중 42.5%는 농가단위 경영기업과 농가 합영에 의한 기업에서 창출한 것이다. 1984년 이래 수년동안 향진기업에서 흡수한 농촌노동력의 증가율은 1984년에 61%, 1985년에 34%, 1986년에 14%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여준다. 이 중 농가단위 경영기업 혹은 농가 합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2.1%, 80.5% 및 77.6%였다.

향진기업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농가단위 경영기업 혹은 농가의 합영에 의한 기업이 가장 큰 공헌을 했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는 향진기업의 성립 자체가 비교적 늦었던 데다가 자금과 기술적인 제약조건이 많아 소규모의 기업경영이 적합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집체경제의 해체 추세가 농가들로 하여금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불가피하게 한 측면도 있다. 이같은 조건들이 결합하여 초기단계에서는 개별농가 혹은 몇몇 농가가 연합하여 운영하는 향진기업이 보편화될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

1987년 이후 향진기업의 수적 증가는 크게 둔화된다. 1987~88년간 130만개의 향진기업 증가가 있었으나 1989~90년의 2년간은 매년 15만개정도씩 감소했다. 1991년부터는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1980년대 중반과 같은 급격한 증가추세는 나타나지 않는다. 1980년대 후반의 이같은 변화는 1989년의 天安門 사태를 비롯한 정치적인 사건에도 영향을 받았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경제적 요인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향진기업을 민간부문에 개방한지 5~6년 경과하면서 기업창설의 의도를 가진 기업가나 경제적 여건이 조성된 지역에서는 대부분 기업창설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이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금부족, 관리능력의 미숙 등 각종 제약요인은 상존하는데 경쟁이 가열되면서 수익률을 증가시킬 만한 특별한 자극이 없었기 때문이다.⁴

외형적으로 보면 향진기업은 지속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여러가지 단계를 경과했다는 것이 여러 문헌에서 강조되고 있다. 劉中一은 향진기업의 발전과정과 관련하여 三段階論을 서술하고 있다.⁵ 第一段階는 인민공사가 소규모 공업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단계이다. 이 시기는 빈곤이 만연하여 아무런 돌파구가 보이지 않던 기간이다. 총명하고 능력있는 자는 군인이 되었다. 각지의 인민공사에서 작은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고는 있었으나 낙후성과 어려움은 표현하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런 과정에서도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는데 때로는 작은 성과들이 나타났고 그래서 향진기업의 맹아기라 할 수 있다. 第二段階

⁴ 본연구의 제7장 참조.

⁵ 劉中一, “鄉鎮企業是中國特色社會主義的體現”, 全國鄉鎮企業工作會議上的講話, 1992. 1. 5.

는 향진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그 여력으로 농촌건설과 농민생활을 보조해주기 시작한 기간이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리시설을 개량하고, 농약과 비료공급을 지원했으며, 농기계의 생산에도 앞장섰다. 향진기업 자체의 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농업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이 이루어졌다. 第三段階는 중앙정부가 ‘七中全會’(제7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와 ‘八中全會’(제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향진기업에 대해 새로운 사명을 부과했고 이 시기부터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향진기업을 통해 중국의 농민들이 小康 상태로 진입토록 한다. ② 향진기업을 통해 중국의 농촌에서 새로운 생산 영역을 열고 농촌경제의 전면적 발전을 추진토록 한다. ③ 향진기업을 통해 농촌의 개혁을 심화시키고 농업현대화를 실현시킨다. ④ 향진기업의 발전을 통해 농민들의 문화적 자질과 정치의식을 제고시켜 사회주의 농촌건설을 기약한다.

이같은 중국정부 당국자의 논술을 음미할 때 향진기업은 이제 소수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순한 범위를 넘어 지역사회내 모든 영역에서 동시적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⁶

1.5. 1990년대 향진기업의 발전전략

1980년대의 향진기업은 양적 고속성장의 시대였다. 비록 몇몇 발전상의 저해요인이 작용하고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향진기업의 양적인 성장은 이루어졌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 시장경제의 확산, 대규모 국영기업의 협조, 국제간의 교역증대 등이 향진기업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이제 향진기업은 국내외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환경에 직면했고, 따라서 종래와는 다른 발전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庾德昌은 새로운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⁷ 都農 일체화의 전략목표, 전방위 개방의 전략

⁶ 이것이 당국자들의 의도대로 실제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

사상, 상대적 집중의 배치전략, 협조증가의 산업구조, 완벽성을 추구하는 기업경영체제 등이다.

향진기업의 전략목표로서 도농 일체화가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시와 농촌은 원래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며 인위적으로 분할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과거 수십년 동안 사회주의화가 지속되면서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도시와 농촌의 분할정책이 취해졌다. 농산물의 ‘계획수매 계획분배’(統購統銷)는 농민들의 소득을 지지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농산물 수급과 관련하여 도시와 농촌을 완전히 양분하는 작용을 했다. 이외에도 도시지역의 중공업 우선 지원정책, 엄격한 호적관리제도 등은 지역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二元化시켰다. 이제 상품경제가 발달하고 국내외적 개방 분위기가 고조되는 환경하에서 지역을 기준으로 한 경계선은 발전에 장애만 될 뿐이다. 도농간의 분업체제, 생산요소의 이동, 시장확대 등 어느 측면으로 보나 도농간의 인위적 경계선은 타파되어야 하고 일체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진기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방위 개방적 전략사상을 수립하여 자금, 기술, 인재 등이 합리적 유동성을 가져야 한다. 한편으로는 생산요소의 효율적 이용을 달성하고, 다른 한편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첩경이다. 과거부터 지나친 지역이기주의, 소농경제하의 소심증이 만연하여 왔다(肥水不流外人田). 이것은 제도적 개방이 이루어지면 지속되기 어려운 사상이다. 향진기업이 기업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폐쇄를 통하여 얻는 작은 유리함에 집착하기 보다 개방으로써 얻을 수 있는 더 큰 이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향진기업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소규모 분산성이자다. 이것은 농촌의 수공업 또는 농가 부업적 차원에서는 적합한 생산방식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대도시와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농촌으로 파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농촌의 중소

⁷ 庾德昌, “九十年代鄉鎮企業發展戰略”, 「農村經濟與社會」, 1993年 第2期, 中國社會科學院 農村發展研究所, 1993. 2. p. 22.

도시를 중심으로 향진기업을 집중시켜 각종 유리성을 발휘케 해야한다. 우선 공동으로 자원과 에너지 관리를 시도할 수 있고, 인재양성과 자금의 공급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교환의 용이와 3차산업의 동시적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대도시로의 인구유입을 방지하면서 농민들의 이주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향진기업이 성장하면서 농업과의 긴밀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이것은 잘못된 방향임이 틀림 없다. 농업부문의 식량공급 기능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농민들의 구매력을 도외시한 상품시장의 발달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공장,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생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 기업이윤 중 상당부분은 농업부문과 농촌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의 향진기업은 경영관리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鄉과 村 경영의 집체기업들은 조속히 政企분리를 달성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생산주체로 활동해야 한다. 생산에서 분배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무분별한 간섭을 줄이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기업관리와 관련하여 생산비 개념에 대한 인식제고, 주먹구구식 시장수요 예측의 탈피 등도 향후 향진기업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2. 향진기업 발전상의 특성

향진기업이 급속한 성장을 이룩했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향진기업의 수,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 기업의 총산출액 등에서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전대미문의 발전을 거듭한 것이다. 이같은 향진기업의 발전은 시기별, 지역별로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또 소유제 형식과 경영형식상의 다양화,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경쟁구조의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과소규모의 경영형태나 지역사회에 국한된 활동범위 등 극복해야 할 측면도 적지 않다. 다음에서는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특성들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2.1. 동태성

1992년 기준 전국에는 총 2,171개의 縣이 있고 각 縣當 50여개의 향진기업이 창설되어 연간 약 10만개 정도의 향진기업이 증가했다. 1984~86년 당시 연간 100만개 이상의 기업이 새로이 탄생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수적 증가는 크게 둔화되었다. 그러나 산출량은 3~4년마다 거의 두배씩 증가하는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기업수와 산출량의 폭발적인 증가가 농촌사회에 노동력과 소득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지역단위의 자급자족 체계에 안주해 왔던 과거의 경제활동에서 탈피하여 전국이 활력에 찬 동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2.2. 다양성

향진기업의 고도성장이 소유제와 경영형식상의 다양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데 대해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 천편일률적인 사회주의하의 소유제도가 다양화되면서 기업창설의 기회가 확대되고 기업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소유제도의 다양성은 경영형태의 다양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했다. 농가단위의 경영주체가 출현했음은 물론이고 외국자본과의 합병,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 등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같은 소유형식과 경영방식상의 다양화는 중국 농촌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며, 향진기업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했기 때문에 급속한 성장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향진기업의 급속한 발전에는 다양한 소유제와 경영방식의 도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특정 정책에 의거하여 한 분야만이 성장·발전하는 일반적인 형태와는 달리, 향진기업의 업무가 전산업에 걸쳐 다양화되어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중의 하나이다.

정부도 향진기업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어떠한 소유제도, 어떠한 경영방식이나를 불문하고 생산력을 높일 수 있으며, 농가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고, 현지의 경제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면 정부의 지지는 물론 정책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빈곤·낙후지역은 집체경제의 역량이 박약하여 향촌집체기업의 발전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체나 농가연합을 포함하여 모든 비공유제의 경제제도도 해당 지역의 생산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社’와 ‘資’의 추상적 명분에 얽매어 스스로를 속박하지 말고 사상과 손발을 자유스럽게 해방시켜라.”⁸ 이제 중국의 농촌은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사상적 개방까지도 기피할 이유가 없다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2.3. 불균형성

대부분의 향진기업은 지역사회에 그 기반을 두고있다. 지역별로 부존자원의 차이가 많고, 경제적·사회적 조건도 각양각색이다. 이같은 차이와 다양성은 자연히 향진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쳐 불균형적 발전을 야기할 수 밖에 없었다.

우선 향진기업의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찾을 수 있다. 1985년 자료에 의하면 鄉과 村에 위치하는 향진기업의 지역별 평균 종사원수는 上海가 가장 많아서 92.3인이고, 그 다음은 江蘇省이 63.6인, 安徽省과 福建省이 24.7인, 四川省이 20.4인, 湖北省이 14.6인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의 기업당 평균 고정자산 보유량도 큰 차이가 있는데, 上海가 30.77萬元, 天津 14.29萬元, 江蘇省 10.28萬元, 福建省 3.57萬元, 四川省 3.47萬元, 安徽省 3.02萬元, 湖北省 2.82萬元 등으로 나타났다.⁹ 1992년의 자료에서는 鄉과 村단위에서의 구별이 어려운데, 본연구의 제7장 향진기업의 한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항목에서 상대적인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⁸ 陳俊生, “轉變觀念 放開手脚是加快發展中西部地區鄉鎮企業的關鍵”, 全國關於加快發展中西部地區鄉鎮企業經驗交流會上的講話, 1992. 11. 16.

⁹ 陳吉元 主編, 앞의 책, p. 57.

전반적으로 경제가 발달한 지역인 동부지역과 낙후지역인 서부지역의 향진기업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는 의도적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다. 특히 개별농가나 몇몇 농가의 합영에 의한 향진기업을 장려한 결과, 1980년대 중반에는 차이가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1980년에서 1985년 사이에 두 지역의 향진기업이 전국의 향진기업 중 차지하는 비중상의 차이는 22.6%에서 9.7%로 줄어 들었다. 총수입의 비중 차이도 50.3%에서 48.1%로 감소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발전과정에서 격차가 커지는 것은 두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다른 데서 기인한다. 향진기업의 설립시기가 늦고, 비교적 낙후된 지역에서는 때로 악순환이 거듭된다. 즉 “빈곤 → 자금과 기술부족 → 향진기업 경영의 어려움 → 경제성장 완만 → 빈곤”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빈곤 지역에서 자금을 대한 여력이 충분치 못하고 기술수준도 낙후되어 있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자금이 부족하고 기술수준이 뒤떨어졌으므로 우선 적은 자금과 간단한 기술을 이용하여 소규모의 기업부터 출발할 것이다. 특히, 현지의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형태로 조금씩 이나마 자금을 축적하여 빈곤을 탈출해 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농가나 몇몇 농가의 연합에 의한 향진기업 경영이 보편화 될 수 밖에 없고 현실적으로도 이같은 향진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개별농가와 농가의 합영은 생산측면에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소규모성을 탈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4. 보완성과 경쟁성

도시지역의 국영기업 또는 일반 사영기업과 향진기업을 비교할 때 향진기업은 발전수준이 낮고, 근로자들의 질적 수준도 떨어지지만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유사한 측면이 많다.

종래부터 존재하던 도시지역의 기업은 중국의 산업구조상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고, 대부분의 기업은 전민소유제였으며, 국가의 계획에 따른 통제하

에 있었다. 상품경제가 발전하지 못했던 시기임에도 시작 단계에서부터 상품경제의 원리에 지배당할 수 밖에 없는 요소를 내재하고 있었다. 즉, 국가의 통제하에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자급자족이 아닌 소비자를 의식한 상품생산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향진기업은 출발단계에서부터 도시지역의 기존의 기업들과는 다른 조건하에 있었다. 즉, 향진기업은 단순한 기업적 측면보다도 농업부문의 보조적 역할로서의 기능이 강조되었다. 자본과 기술이 제한되어 있었고, 종사자들의 질적 수준도 낮았다. 발전과정도 도시지역의 기업과는 달랐고, 상품경제가 크게 중시되지 않던 시기에 출현했다. 향진기업이 기업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하기에 부적당한 환경의 연속이었고, 향진기업의 성립 자체가 논쟁의 산물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배경 때문에 운영 방식 또한 도시지역의 기업과는 판이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향진기업의 발전은 도시지역에서만 비농업부문의 기업이 육성되던 국면을 전환시켜 농촌의 비농업부문 형성이 가능토록 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자세히 살펴보면 향진기업은 도시지역의 기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도 사실이다. 시작 단계에서는 농업부문에 대한 서비스 기능이 강조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지역의 기업과 연계되고, 농업부문에 대한 서비스 기능과 함께 도시지역 기업과의 조화라는 문제도 중시되었다. 그 결과 향진기업과 도시지역의 기업이 구조적으로 유사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해가는 경향도 보여주었다.

여기서 두 부류 기업의 구조가 비슷하게 되었다고 해서 양자간의 차이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내용상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향진기업중 공업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도시지역 전민소유제 기업의 그것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郷에서 운영하는 공업기업의 투자자금에 대한 이윤율은 1984년의 경우 12.5%에 불과했는데, 전민소유제의 독립채산제 공업기업의 이윤율은 14.9%를 보여주었다. 향진기업의 경제적 효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외부 조건의 불리함을 차치하더라도 원료가격의 상승, 정부 우대조치의 감소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 원인으로는 기술자 확

보의 어려움, 설비의 낙후성, 근로자의 질적 차이, 낮은 관리수준 등이 지적 될 수 있다.

향진기업과 도시지역의 일반기업간에는 상호보완관계도 존재하지만 경쟁적인 관계도 존재한다. 경쟁적 관계를 예로 들어보자. 담배 제조와 관련하여 두 부류의 기업이 서로 경쟁적으로 엮연초 구매에 나선 적이 있다. 그러면서도 저질의 담배공급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소비자들에게도 불리한 현상이 출현했다. 이에 반하여 상호보완적인 측면도 많은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상호연합하여 시장확대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다. ② 시장지향적인 향진기업이 도시지역의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③ 상호보완적인 기술교류를 통해서 자원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다. 도시지역의 높은 기술력이 향진기업에 유입됨으로써 이미 현실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5. 영세성

향진기업의 소유주체별 증가추세를 보면 개체경제 소유제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이윤동기의 확산과 더불어 민간경제 부문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내포함과 동시에 기술과 자금동원 능력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개체부문의 참여가 기업의 소규모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 1992년기준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는 5.1인, 연간 총산출액은 8.4만^元, 순이윤 2,297^元, 고정자산총액 16,658^元 등에 불과하다. 평균적 의미에서는 아직 가내수공업적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대외지향적이고 탈지역적인 경제환경이 확산될수록 기업발전에 애로요인으로 남을 것이다. 장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확대재생산의 형식이든 아니면 합병의 과정을 거치든 외형적인 규모의 확대를 기해야 할 것이다.

2.6. 생산요소와 산출물의 비유동성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각종 생산요소, 특히 노동력과 자금의 지역간

이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특히 노동력의 이동과 관련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동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노동력 이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병역복무 또는 도시지역으로의 대학진학을 제외하면 사실상 합법적인 노동력의 이동은 금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2년 기준으로 전문대 이상 1,053개의 대학이 있는데, 재학생 총수가 218만여명에 불과하여 전체 인구대비 1.8%에 불과하다. 또 대학 졸업후에도 일부 사기업체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의 직업분배계획에 의거하여 대부분이 출신지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노동력 이동의 제한 뿐만 아니라 물적 생산수단의 유동성도 크게 떨어진다. 심지어省과省간의 화물차량 통행이 사전 허가사항인 경우도 허다하다. 1979년 ‘全國工商行政管理局長會議’에서 농촌의 자유시장에 대한 개방원칙이 강조된 이후 서로 다른 행정구역간의 유통에 대해서도 수차 개방원칙이 거론되긴 했지만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아직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省間 식량의 공급까지도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별 잉여와 부족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생산요소의 비유동성 못지 않게 산출물의 지역간 비유동성 혹은 지역단위의 폐쇄성도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지역간 산출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는 데는 세가지 원인이 지적되고 있다.¹⁰ 첫째는 지역간의 이익 충돌, 둘째는 거시적인 수급계획 및 시장조절 기능의 불완전, 셋째는 유통산업의 낙후와 시장기능의 미발달 등이다. 지역단위의 경제적 이익을 위주로 경제주체가 형성되어 있고, 이런 제도하에서 거시적 수급계획 및 시장조절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역간 상품의 이동이 폐쇄적일 수 밖에 없다. 유통산업과 시장 또한 낙후되어 있어 적기에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여기에 지역 이기주의가 충돌하면서 최종적으로 지역간의 폐쇄성을 가져온다.

¹⁰ 陳雨軍, “農產品與工產品市場封鎖的生成機制比較”, 『經濟研究』, 1993年 第7期, 1993. 7. p. 57.

3. 향진기업의 발전유형

앞절에서 언급한 향진기업의 특성들이 모든 지역에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즉, 지역간 환경의 차이에 따라 약간씩 다른 형태를 나타낼 수 밖에 없다. 기업의 소유형태, 경영형태, 지역내 역할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향진기업의 소유제구조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언급하겠지만 주도적 소유형태가 무엇이냐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향진기업을 주요 속성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은 향진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이론적으로 추상화한 것이다. 모든 향진기업은 생산과 경영의 실체이다. 생산과 경영의 실체로서 갖고 있는 성격을 이론화시킨 것이 향진기업의 유형화 혹은 모델화이다. 따라서 생산력과 관련된 각종 제약요인들을 경제적 개념을 빌어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향진기업의 성격을 구성하는 요인은 크게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소유제도적 측면이고, 둘째는 기술수준과 관련된 산업구조의 측면이다. 전자가 생산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후자는 생산력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전자는 향진기업의 사회경제적 속성을 표시하고, 후자는 향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물적·기술적 속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소유제도를 기준으로 향진기업의 유형을 구분할 때 집체경제 위주의 향진기업 유형, 개체경제 위주의 향진기업 유형, 사적 소유구조하의 향진기업 유형 등으로 나눈다. 물론 기술수준 및 산업구조를 기준으로 향진기업의 유형을 나눌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수공업기술 위주의 노동집약적 향진기업 유형, 기계와 가공기술 위주의 자본집약적 향진기업 유형, 현대의 과학기술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식집약형 향진기업 유형 등등 어떤 유형을 따르든 간에 약간씩은 혼합된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소유제도와 산업구조간에는 상호제약요인도 존재하고 영향도 미친다. 유형

을 선정할 때는 주관적 판단보다는 객관적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향진기업 소유제는 집체경제 위주의 향진기업 소유제와 개체경제 위주 혹은 개체경제의 비중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소유제로 대별된다. 전자가 대부분 경제적으로 발달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면 후자는 대부분 낙후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선진지역에서는 집체경제의 역량이 풍부하고, 기업발전의 기초가 성숙되어 있어서 도시지역의 선진기술도 쉽게 흡수할 수 있었다. 또 기업군을 형성하면서 규모도 비교적 크게 운영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업지역에서는 경제적 역량이 박약하여 개체경제 위주 혹은 개체경제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기업발전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소규모 수공업 중심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었고, 기술수준도 보잘것 없게 되었다. 이것이 두종류의 각기 다른 향진기업 발전형태이다. 전자는 蘇南모델로 대표되고, 후자는 耿車모델로 대표된다. 전자는 鄉村의 집체경제 위주로 운영되면서 鄉村지역과 대도시지역의 공업 발전으로부터 기업발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는다. 후자는 수공업 위주의 취약한 기반위에서 공업과 농업이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의 대부분 낙후지역이 후자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에서는 향진기업의 유형과 관련하여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는데 보다 세분하여 그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향진기업의 유형은 蘇南型, 溫州型, 耿車型, 平定型, 珠江型 및 晉江型의 여섯 종류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특징만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¹

(1) 蘇南型(江蘇省 蘇州市, 無錫市, 常州市): 선진 농업지역의 향진기업 모델

① 소유제대상 鄉과 村에 의한 집체구조 중심이다. 현존 향진기업은 과거 인민공사 시절의 社隊企業이 변화한 것으로 소유제 구조 중 집체소유가

¹¹ 본문에서의 분류는 陳吉元(1988), 앞의 책 제3장에서 제9장까지 중 핵심부분만 요약한 것이다. 분류상의 부적절함이나 각종 설명상의 모순이 발견되지만 가감 없이 소개한다.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② 산업구조상 경공업부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농산물의 가공부분은 매우 적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답작위주의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③ 대외적으로 도시지역의 기업이나 연구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대부분 대도시의 부근에 위치하면서 도시지역의 기업과 상호의존적 또는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④ 소유제 구조와 관련하여 국가, 향촌, 기업 및 노동자의 4개 경제주체로 나누어지므로 분배도 이들 경제주체의 소유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노동투입량에 따른 임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⑤ 향진기업은 농촌 및 농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업창설 당시 대부분의 자금이 농업부문에 조달되었고, 근로자의 대부분은 농민들이었기 때문이다.

⑥ 생산물의 대부분은 도시지역의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시장지향적 생산 활동을 한다.

(2) 溫州型(浙江省 溫州市): 시장지향형 향진기업 모델

① 정부의 통제나 지도에 의해 기업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주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기업이 창설되었다. 따라서 소유제 도상 농가연합 혹은 개체농에 의해 소유되고 경영되는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② 해당지역의 소비동향, 자금과 노동력 등을 포함하는 생산요소시장, 기술조건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조건들이 기업의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③ 산업구조상 생활필수품 위주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의 간단한 서비스업 부문에서도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④ 분배제도상 대부분의 수입은 기업의 소유주체인 농가연합이나 개체농에 귀속된다.

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생산요소의 지역간·산업간 이

동이 비교적 자유롭고(제한된 지역내이서이긴 하지만), 주로 농촌의 소도시를 중심으로 집중 혹은 분산된다.

(3) 耿車型(江蘇省 宿遷縣 耿車鄉): 낙후 농업지역의 향진기업 모델

① 소유제도상 집체에 의한 공적소유형태와 개체에 의한 사적소유형태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개체에 의한 향진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② 산업구조상 높은 기술과 많은 자금을 요하지 않는 수공업 분야가 대부분이며, 간단한 원자재의 가공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③ 개체농이 경영하는 소규모의 기업이 대부분이므로 농공결합적 경제활동 양상을 보인다. 즉, “3개월 농사, 8개월 기업경영, 1개월 휴식”(三個月種田, 八個月掙錢, 一個月過年)이라는 도식에 따라 농업과 기업경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④ 도시지역과의 연계가 미약하며 도농간을 구분짓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4) 平定型(山西省 平定縣): 자원개발 및 이용형 향진기업 모델

① 소유제도상 鄉과 村에 의한 집체경제형태가 주도적 위치에 있으며, 그외 농가연합, 개체농 및 혼합적인 소유형태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지역내 자원개발이 주요한 과제이고 많은 자금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개체농 혹은 농가연합에 의한 기업경영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체농이나 농가연합 형태의 소유는 집체에 의한 공적 소유형태의 보완적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② 풍부한 광물자원의 보유라는 자연적 조건과 교통발달이라는 사회적 조건에 의하여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향진기업 형태이다. 따라서 산업구조상 광산물의 채취 혹은 이용 위주의 광공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농부산물의 이용과 관련된 산업은 발달하지 못했다.

③ 기술수준과 자금확보, 교통시설의 확충, 생산물의 판매시장 유지를 위한 지역간 횡적 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다.

④ 최근엔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생태계의 보전문제가 기업관리상 어려움으로 대두하고 있다.

(5) 珠江型(廣東省 珠江 三角洲): 외부지향적 향진기업 모델

① 중국의 경제개혁과 개방이 시작되면서 珠江지역 향진기업을 중심으로 독특하게 형성된 향진기업 모델이다. 대외개방에 유리한 조건들에 편승하여 외부지향적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다. 즉,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지역 내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를 배제하고 국내외 여타 지역에 대한 생산물의 판매전략이 기업경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② 소유제 구조상 다양한 형식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기술, 자금공급, 관리능력 등을 고려한 집체경제 위주의 공적소유관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③ 외부시장 공략이 목표이므로 산업구조상 2차산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④ 외국의 과학기술, 자금, 설비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향진기업의 생산과 관리의 현대화, 과학화 및 계열화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

(6) 晉江型(福建省 晉江縣): 주식회사형 향진기업 모델

①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 교포들이 투자함으로써 형성된 향진기업의 형태이다. 따라서 소유구조상 해외교포와 중국 국내의 농가연합에 의한 기업소유 및 경영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외 각종 소유제 형식이 일부 존재한다.

② 해외거주 교포들과 국내의 농가연합에 의한 자금공급이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공급 능력면에서는 매우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③ 국내외 시장에 대한 생산물의 판매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적응력과 개척력이 매우 강하다.

④ 초기 단계에서는 해당지역의 “자원이용 - 기술적 조건 고려 - 시장개척”이라는 도식을 취했으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시장의 수요 - 기술적 조건 고려 - 원료공급”에 의한 생산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상 이같은 도식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가공산업 분야가 발달해 있다.

⑤ 생산, 유통 및 서비스 부문을 지역적으로 독립, 전문화시킴으로써 상품경제 체제에 대한 충분한 적응능력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⑥ 해외 교포들에 의해 관리되고 생산물중의 상당부분이 수출되므로 비록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외국의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하는 경우가 많

다.

⑦ 외국으로부터의 자금, 기술, 설비, 인재 및 경영관리 등이 도입되면서 전통의 농촌경제체제와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에서 향진기업의 유형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향진기업은 발전과정에서의 유형에 관계없이 제기되는 공통성과 이질성을 갖고 있다. 특히, 소유제도와 관련하여 그 속성이 분명해진다. 이것은 유형의 일반성과 특수성에 대한 보다 명백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우선 공통성을 본다면 소유제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주의적 생산체제에 속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상술한 각종 소유제하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은 농민들의 노동력으로서 집체소유제하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나타내는 특성이며, 蘇南型 향진기업 소유제에서 아주 잘 표출되고 있다. 駝車型 향진기업 소유제의 구조에서도 별 차이가 없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소유제도상 개체경제의 비중이 크다고는 하지만 각농가의 점유분은 어느 정도씩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鄉 전체적으로 보면 농가단위에서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제의 전체적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집체경제의 소유분이 주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농가단위의 생산수단 소유분이 수적으로는 많지만 대부분이 분산되어 있고, 또 생산수단 자체가 대부분 수공업과 관련된 기구에 불과하여 향진기업의 전체적인 발전방향에 결정적인 작용을 할 수도 없다. 이와는 반대로 향진기업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집체소유의 생산수단들인데, 이는 필요한 경우 대규모의 집중이 가능하고, 선진적인 기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력의 제고를 통해 특정의 향진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이것이 전체 향진기업의 발전에도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향진기업이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 둘째, 농가단위에서 소유하고 있는 생산수단의 개체소유제는 사실상 집체소유 위주 공유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것은 농가단위 기업도 집체경제의 제약과 영향을 받기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동태적 관점에서 보면 농가단위 개체소유제는 점차 합작경제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또 공유제의 기초와 역량이 확보되어 있기도 하다.

각종 향진기업 소유제가 공통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질성도 갖고 있다. 집체가 생산수단을 공유하고 있으면 공유제 성격을 나타내고, 농가단위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면 사유제 성격을 나타내며, 고용에 의한 경영은 자본주의적 사유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합자경영의 경우는 혼합소유제의 성격(한편으로는 사회주의 공유제,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사유제)을 나타낸다. 이것이 각 소유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특수성이다. 이것은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다양화되었다는 것은 의미한다.

앞의 향진기업 소유제 구조의 성격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향진기업 소유제도의 전체적인 성격을 결정짓는 것은 어떤 형태의 향진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둘째, 각종 향진기업 소유제의 성격을 파악하여 향진기업에서의 위치, 영향력, 상호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소유제의 이질성과 상호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제 4 장

향진기업의 구조 분석

1. 소유제도

제2장 향진기업의 범위에서 이미 향진기업 관리기관이 향진기업을 소유주체별로 鄉, 村, 組, 農家聯合, 個體 및 私營企業의 여섯부류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와 같은 방법에 의해 소유형태를 기준으로 향진기업을 구분한 것은 사실상 소유주체와 경영주체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각 향진기업 경영의 주체는 각종 생산수단의 제공자이면서 직접 생산과 경영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동시에 이익의 분배과정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장에서는 위에서 분류한 소유주체와는 다른 측면, 즉 共有·私有라는 측면에서 향진기업의 소유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 중국의 농촌실정을 살펴보면 향진기업에서 사용하는 생산자재, 예를 들면 공장건물, 기계, 원자재, 기초시설 등의 소유형태는 아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鄉과 村단위의 집단소유, 개인농가 또는 몇 농가의 공동소유 등 각종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가 다르다. 각기 다른 소유형태라고

는 하나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집단소유, 즉 공유제이다. 공유의 범위와 정도는 다를 수 있다. 둘째는 개인소유, 즉 사유제이다. 농민이나 근로자 개인 혹은 가족단위의 소유나 농가연합에 의한 소유를 의미한다.

「中國鄉鎮企業年鑑」에 의하면 향진기업의 경제유형별 분류에서 鄉, 村, 몇몇 농가의 연합 및 개체에 의한 구분만 있을 따름이다. 여기서 鄉과 村에 의한 경영이 공유제에 속하고 몇몇 농가의 연합과 개체에 의한 경영이 사적소유에 속한다. 1983년까지는 공적소유에 의한 향진기업만이 존재하다가 1984년부터 사적소유가 출현하고 있다. 우선 기업수에서 보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적소유의 향진기업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표 4-1 참조). 1984년 사적소유가 허용되면서 이미 전체 향진기업의 69.3%가 농가연합 및 개체에 의한 향진기업이었다.

이러한 사적소유의 확대추세는 1992년에 이르러 전체 향진기업 중 92.7%가 사적소유에 의한 경영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鄉과 村에 의해 경영되는 향진기업의 수는 전체 향진기업 중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1984년 이래 계속 감소하여 1992년에는 전체의 7.3%에 불과하다. 이같은 현상은 鄉과 村에 의한 향진기업은 새로이 창설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개체경영에 의한 향진기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村경영 향진기업의 숫자가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1984년과 1992년을 비교해보면 村경영 향진기업은 146.15만개에서 113.07만개로 감소했다. 매년 4만개 이상의 향진기업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같은 공유제에 속하면서도 村경영 향진기업의 급속한 감소와는 달리 鄉경영 鄉鎮기업의 수는 거의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4년의 40여만개에서 1992년에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결과는 10여개 이상의 촌으로 구성된 鄉경영의 향진기업이 지역적인 기반, 원자재의 구입, 기술과 자금의 확보, 기업관리 능력 등에 비교적 유리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었던 반면 村경영 향진기업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요소들이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과거 村경영 향진기업

에 속해 있던 개체농들이 기업의 사적소유가 허용되면서 독립하여 기업을 운영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적소유에 의한 기업경영 중에서 농가연합에 의한 기업수도 최근 들어서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것은 몇몇 농가의 연합 정도로는 규모의 경제성을 달성할 만큼 기업규모를 확대시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각종 마찰요인만 증가하기 때문에 차라리 개체농에 의한 기업경영이 선호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에서는 기업수를 중심으로 사적소유 형태의 향진기업이 압도적임을 보았는데 만약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나 기업이 생산하는 산출액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또 다른 측면이 발견된다(표 4-2, 표 4-3 참조).

1992년 기준으로 공적소유의 기업수는 비록 7.3%에 불과하지만 전체 근로자수는 절반에 가까운 48.7%를 기록하고 있다. 산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그 비중은 더 커져서 전체의 66.7%가 집체소유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적소유에 속하는 농가연합과 개체에 의한 향진기업은 기업수에서 전체의 92.7%를 차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전체의 51.3%에 불과하며, 총산출액 중 비중은 겨우 33.3%에 불과하다. 이것은 사적소유에 의한 향진기업의 소규모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이다. 사적소유에 의한 향진기업은 1992년기준 기업당 종사자수가 3명에도 못미쳐 사실상 기업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을 정도이다. 종래 경종부문에 종사하던 가족노동력이 비경종부문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

향진기업의 소규모성은 기업당 총산출액이 3만 원 정도인 점에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3만 원은 1992년의 공식 환율기준으로 약 6,000달러 내외의 수준이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기업의 산출액 개념으로 보더라도 기업이라 지칭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당시 농가호당 연간 총수입이 1,000 원 내외였다는 중국의 상황을 감안할 때 한 농가의 생산활동에 의한 산출액이 3만 원 수준이면 비록 소규모이긴 하나 농촌지역에서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아직은 시장경제 체제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단계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 소유주체별 향진기업 수

단위: 만개, %

구 분	연도	합 계	향소유	촌소유	농가연합	개체소유
기 업 수	1978	152.42	31.97	120.45		
	1980	142.46	33.74	108.72		
	1981	133.75	33.53	100.22		
	1982	136.17	33.78	102.39		
	1983	134.64	33.81	100.83		
	1984	606.52	40.15	146.15	90.63	329.59
	1985	1,222.46	41.95	143.04	112.12	925.35
	1986	1,515.31	42.55	130.22	109.34	1,233.20
	1987	1,750.10	42.01	116.27	118.75	1,473.07
	1988	1,888.16	42.35	116.65	119.99	1,609.17
	1989	1,868.63	40.57	113.00	106.94	1,608.12
	1990	1,850.44	38.78	106.61	97.88	1,607.17
	1991	1,907.88	38.16	106.01	84.86	1,678.85
	1992	2,091.62	39.65	113.07	90.18	1,848.72
구 성 비	1978	100.0	21.0	79.0		
	1980	100.0	23.7	76.3		
	1981	100.0	25.1	74.9		
	1982	100.0	24.8	75.2		
	1983	100.0	25.6	74.9		
	1984	100.0	6.6	24.1	15.0	54.3
	1985	100.0	3.4	11.7	9.2	75.7
	1986	100.0	2.8	8.6	7.2	81.4
	1987	100.0	2.4	6.6	6.8	84.2
	1988	100.0	2.2	6.2	6.4	85.2
	1989	100.0	2.2	6.0	5.7	86.1
	1990	100.0	2.1	5.8	5.3	86.8
	1991	100.0	2.0	5.7	4.4	87.9
	1992	100.0	1.9	5.4	4.3	88.4

자료: 「中國鄉鎮企業年鑑」, 農業出版社, 1993.

표 4-2 소유주체별 향진기업 근로자 수

단위: 만인, %

구분	연도	합계	향소유	촌소유	농가연합	개체소유
근로자수	1978	2,826.56	1,257.62	1,568.94		
	1980	2,999.67	1,393.81	1,605.86		
	1981	2,969.56	1,417.55	1,552.01		
	1982	3,112.91	1,495.00	1,617.91		
	1983	3,234.64	1,566.95	1,667.69		
	1984	5,208.11	1,879.16	2,103.00	523.91	702.04
	1985	6,979.03	2,111.36	2,215.69	771.42	1,880.56
	1986	7,939.14	2,274.88	2,266.40	834.10	2,561.76
	1987	8,805.18	2,397.45	2,320.78	923.62	3,163.33
	1988	9,545.46	2,490.42	2,403.52	976.59	3,674.93
	1989	9,366.78	2,383.57	2,336.57	883.75	3,762.89
	1990	9,264.75	2,333.24	2,259.27	814.34	3,857.96
1991	9,609.11	2,431.01	2,336.02	726.32	4,115.76	
1992	10,624.59	2,628.90	2,546.88	771.04	4,677.77	
구성비	1978	100.0	44.5	55.5		
	1980	100.0	46.5	53.5		
	1981	100.0	47.7	52.3		
	1982	100.0	48.0	52.0		
	1983	100.0	48.4	51.6		
	1984	100.0	36.1	40.4	10.0	13.5
	1985	100.0	30.3	31.7	11.0	27.0
	1986	100.0	28.7	28.5	10.5	32.3
	1987	100.0	27.2	26.4	10.5	35.9
	1988	100.0	26.1	25.2	10.2	38.5
	1989	100.0	25.5	24.9	9.4	40.2
	1990	100.0	25.2	24.4	8.8	41.6
1991	100.0	25.3	24.3	7.6	42.8	
1992	100.0	24.7	24.0	7.3	44.0	

자료: 「中國鄉鎮企業年鑑」, 農業出版社, 1993.

표 4-3 소유주체별 향진기업 산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연도	합 계	향소유	촌소유	농가연합	개체소유
산 출 액	1978	495.13	281.7	213.42	-	-
	1979	552.25	310.6	241.61	-	-
	1980	665.10	372.9	292.12	-	-
	1981	739.65	416.9	319.67	-	-
	1982	849.25	479.5	366.69	-	-
	1983	1,007.87	572.72	435.15	-	-
	1984	1,697.78	808.58	645.19	126.54	117.47
	1985	2,755.04	1,160.59	913.05	245.00	436.41
	1986	3,583.28	1,446.91	1,109.39	314.14	712.84
	1987	4,945.59	1,897.18	1,460.45	446.23	1,141.72
	1988	7,017.76	2,666.96	2,067.87	591.40	1,691.54
	1989	8,401.82	3,092.97	2,489.29	682.03	2,137.52
1990	9,581.11	3,431.61	2,822.15	726.62	2,600.72	
1991	11,621.69	4,274.54	3,445.28	755.47	3,146.40	
1992	17,659.69	6,466.39	5,310.15	1,113.83	4,769.32	
구 성 비	1978	495.13	56.90	43.10	-	-
	1979	552.25	56.25	43.75	-	-
	1980	665.10	56.08	43.92	-	-
	1981	739.65	56.60	43.40	-	-
	1982	849.25	56.67	43.33	-	-
	1983	1,007.87	56.82	43.18	-	-
	1984	1,697.78	47.63	38.00	7.46	6.92
	1985	2,755.04	42.13	33.14	8.89	15.84
	1986	3,583.28	40.38	30.96	8.77	19.89
	1987	4,945.59	38.36	29.53	9.02	23.09
	1988	7,017.76	38.00	29.47	8.43	24.10
	1989	8,401.82	36.81	29.63	8.12	25.44
1990	9,581.11	35.82	29.46	7.58	27.14	
1991	11,621.69	36.78	29.65	6.50	27.07	
1992	17,659.69	36.62	30.07	6.31	27.00	

자료: 「中國鄉鎮企業年鑑」, 農業出版社, 1993.

공적소유에 의한 향진기업의 기업당 근로자수와 산출액 수준을 살펴보자. 1992년 기준 鄉과 村경영의 향진기업당 근로자수는 34人이다. 기업당 산출액은 77만元(약 15만달러) 정도이다. 물론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정도의 기업이라면 최소 규모로 취급될 수 있으나 시장경제 초기단계라는 중국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당 규모는 작으나 전국적으로 150만개에 이르는 기업수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공적소유와 사적소유라는 두 종류의 소유형태만으로 분류했으나 실제로는 이들 두 형태 이외에도 근로자 집단과 전민소유제 기업간의 연합적 소유형태, 일부지역에 존재하는 사적 점유형태, 외국과 합자형식으로 된 소유형태 등이 있다. 즉 현실에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소유형태가 존재하며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그러나 통계처리상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각기 다른 형태의 향진기업 소유제라고는 하지만 소유주체간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같은 소유주체간의 상호연계성이 때로는 향진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고 때로는 발전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현재의 실상만을 놓고 평가한다면 상호 발전저해 작용을 하는 측면보다는 상호 발전촉진 작용의 측면이 크다. 이것은 주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모든 생산수단의 원칙적 사유를 인정하는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급진적 변화(shock, big-bang)는 오히려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도 소유제도의 변화가 향진기업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지역내에서의 다양한 소유형태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느냐는 것은 향진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2. 향진기업의 산업별 구성

흔히 산업구조는 산업간의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산업간의 비례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첫번째요, 산업간의 투입·산출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두번째이다. 일반적으로 산업구조라 하면 전자를 의미한다. 전체 국민경제내에서 산업을 대부분 1차산업, 2차산업 및 3차산업으로 분류하고, 각 산업간 비례관계로 표시한다. 중국의 경우 1차, 2차, 3차산업으로의 분류가 아직 모호한 점이 있다. 그래서 때로는 경공업부문과 중공업부문에 대해 대별하기도 한다. 각 산업은 다시 농업, 제조업, 광업, 가공업, 교통운수업, 건축업, 상업 등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산업간 및 산업내부에서의 상호관계로 표시할 수 있다. 본연구에서는 산업별 분류와 관련하여 임의 분류를 지양하고 가능한 한 중국정부의 공식통계자료에 의거하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향진기업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농촌내부의 발전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다. 향진기업 자체의 생산력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농촌경제의 번영과 상품경제의 보급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이제 향진기업은 전통의 수공업, 농기계 수리업 등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독특한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진기업의 산업별 분포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공업부문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우선 (표 4-4)와 같이 향진기업의 업종을 가장 간단한 경공업부문과 중공업부문에 분류할 때, 전자가 후자에 비해 약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 그 차이는 약간씩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은 산출액 만을 가지고 비교한 것이지만, 기업수에서 소규모의 개체기업은 증가하고 있고, 중규모 이상의 집체소유가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귀결이다. 경공업은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군과 비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군으로 나누어진다. 과거 십여년 동안 향진기업에서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공업 부문이 비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공업보다 그 비중이 10%가량 높아졌다. 전체 공업부문의 경우 비농산물을

표 4-4 향진기업의 경·중공업별 총산출액 구성

단위: %

구 분	1980	1985	1988	199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경공업	48.8	50.1	53.1	53.7
농산물원료	48.5	58.5	58.4	57.7
비농산물원료	51.5	41.5	41.6	42.3
중공업	51.2	49.9	47.9	46.4
채굴공업	18.1	15.4	12.0	11.5
원료공업	16.1	13.6	16.8	20.1
가공업	68.5	71.0	71.2	68.3

자료: 「中國鄉鎮企業年鑑」, 農業出版社, 각연도.

원료로 하는 경공업이 10% 정도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중공업 부문에서는 가공공업 분야가 줄곧 전체의 70% 내외의 절대적 비중을 유지해 오고 있다. 농촌의 자연자원에 의존하는 채굴공업이 약간씩 감소하는 반면 원료공업은 다소 증가하고 있다.

향진기업의 경·중공업별 총산출액 구성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향진기업도 기초 가공공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서 도시지역의 공업부문과 사실상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농촌공업의 이같은 구조는 장기적으로 도시지역의 공업부문과 자원사용상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며 국가의 부존자원 이용상 모순을 야기할 것이다.”¹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비록 향진기업의 산출액 중 중공업부문의 비중이 거의 50%가까이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곧 철강산업이나 중화

¹ 郭永利, 張忠法, 嚴效明, “我國農村工業的產業構造-空間特征和發展方向(上)”, 「中國農村經濟」, 1991年 第10期, 1991. 10. p. 4.

학공업 분야를 향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이다. 석유 화학공업, 에너지공업, 기계 및 전기공업, 철강공업, 철도 및 항공공업 등 대규모의 자금과 고급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 아직까지 국영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다만 이들 국영기업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향진기업이 하청을 받고 있거나, 종속적인 입장에서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즉, “향진기업의 중공업분야 산출액 중 60%는 국영기업과의 관계에서 생성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경제에서 아직까지 향진기업은 조역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이 역할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²

향진기업은 사실상 전산업부문을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공업부문 위주의 향진기업 산업구조임을 알 수 있다. (표 4-5)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1992년 전체 종사자 수의 60%, 총산출액의 75%가 공업부문에 치우쳐 있다. 1978년도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이 이 비율은 유지되어 오고 있다. 반면 농업부문의 상대적 비중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농업부문 향진기업의 종사자 수와 산출액의 비중이 1978년의 21.5%와 7.5%에서

표 4-5 향진기업의 산업별 종사자 수와 산출액 구성

단위: %

산 업 별	농업	공업	건축업	운수업	상업	
종사자수	1978	21.5	61.4	8.3	3.7	5.1
	1985	3.6	59.3	16.8	6.4	13.9
	1992	2.5	59.6	14.6	7.5	15.8
산출액	1978	7.5	77.8	7.1	3.8	3.8
	1985	2.2	67.0	15.1	7.0	8.8
	1992	1.5	74.7	10.1	6.3	7.4

자료: 「中國鄉鎮年鑑」, 農業出版社, 1993.

² 陳乃醒, 王延中, 胥和平, “促使中國經濟社會進入更高層次的新生力量”, 「農業經濟問題」, 中國農業經濟學會, 1992年 第2期, 1992. 2. p. 34.

1992년엔 2.5%와 1.5%로 감소했다. 농업부문이 감소한 만큼 상업, 식료품업, 서비스업, 관광업 및 교통운수업 등 3차산업부문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상업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1978년과 1992년을 비교해 보면 종사자수에서는 3배, 산출액은 2배 정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향진기업 내부에서 농업부문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진기업과 농업과의 관계도 점차 疎遠해지고 있다.³ 향진기업의 성립 당시에는 향진기업과 농민·농업·농촌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지만 십수년이 경과하면서 점차 이 관계가 악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농업과의 관계가 현저히 악화되고 있다. “원래 농업과 향진기업은 모유를 주고 받는 어머니와 어린이의 관계였다. 한동안 농촌의 농업과 비농업부문이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황금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향진기업이 농업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관계가 더욱 악화된다면 오히려 농업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⁴ 따라서 농업과 향진기업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향진기업의 발전방향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향진기업의 발전이 실제로 농업 부문에 불리하게 작용한 조사도 실시되었다.⁵ 향진기업의 산업별 구성과 관련하여 이같은 우려가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경제여건상 별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향진기업의 발전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향진기업이 공업부문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3차산업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경향과 관련하여 기업의 행위도 변모하고 있다. 전통적인 자원이용형 향진기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종합개발형 또는 외부지향

³ 보다 분석적인 논의는 이 연구의 제6장을 참조.

⁴ 陳武, “鄉鎮企業離農現象透析”, 「農村經濟與社會」, 中國 社會科學院 農村發展研究所, 1993年 第1期, 1993. 1. p. 25.

⁵ 토지점용과 관련하여 중국 社會科學院 農業發展研究所에서 전국 10개 省에서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으며, 오염과 관련해서는 農業部 計劃司의 조사연구 결과가 있다. 각각 陳武, 앞의 논문 pp. 26~27 및 農業部 計劃司, 「中國 農村經濟分析」(農業出版社, 1990), p. 113을 참조.

적 향진기업도 동시에 중시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향진기업의 발전 초기에는 아직 상품경제의 발전이 미흡한 폐쇄적 농촌경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재는 현지에서 구매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생산물의 대부분도 현지에서 판매되었다. 비록 공업기업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는 있었으나 자연스럽게 현지의 노동력, 각종 자연자원을 원료로 이용하는 산업구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사고도 개방화되어 가면서 상품경제가 보급되었다. 이에 따라 향진기업의 경영목표도 바뀌고 도농간의 분업체계가 형성되면서 기업활동도 종래의 현지 자원이용에만 국한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이제는 지역단위에 국한된 자원만 이용하지 않고 외부의 자원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외부지향적 기업이 등장하였으며, 자원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종합개발형 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향진기업의 업종별 성장률을 보더라도 상술한 내용이 입증된다. 건재 및 비철금속 채광업, 육류가공업, 사료공업, 수방직업, 의약공업, 화학섬유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건축 및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등이 전업종의 평균성장률을 초과하고 있다. 각각 전년도 대비 65.7%, 63.7%, 61.3%, 75.0%, 66.7%, 62.0%, 76.6%, 67.2%, 61.5%, 60.9%, 77.1%, 60.4%, 125.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3. 기술구조

기업이 어떠한 요소를 편향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는 단적으로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사회의 경제적 환경과 기업의 기술수준을 반영한다. 대부분의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처럼 노동력의 공급이 부족하고 임금이 높다면 자연히 노동절약적 또는 자본사용적인 기업운영이 일반적일 것이다. 반대로 과잉인구가 상존하는 대부분의 저개발 국가에서는 경제정책목표, 기업의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집약적인 기업운영이 보편적일 수 밖에 없다. 오랜 기간동안 과잉노동력의 존재가 국가발전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중국의 농촌에 있어서 농촌공업화를 논의한다면 우선 후자의 입장을 상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추세는 어떠한지를 본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표 4-6)을 통하여 최근 십수년동안의 자본집약도의 동향을 살펴보자. 1978년 1인당 자본장비액은 812.3元으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같이 낮은 자본장비액은 그래도 1983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여 1284.5元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4~85년 기간중에는 큰 폭으로 떨어졌고 그후 다시 약간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1984년부터 사적 향진기업의 운영이 본격적으로 허용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향진기업의 발전 과정에서도 언급했지만 1984년 이후부터 개인의 기업경영이 인정되었고, 이 시기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극소 규모의 사적 향진기업이 연간 수백만개씩 출현하였다. 1984년 471.9만개, 1985년 615.7만개, 그리고 1986년엔 293.1만개의 새로운 향진기업이 출현하였다. 소규모 개인경영의 향진기업수가 이처럼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1인당 평균 자본장비액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1986년 이후에는 창설되는 기업의 수가 연간 수십만개 수준으로 둔화된 한편 기존 기업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자본장비율은 증가하게 된다.

전체적으로 1978년 이후 1983~85년을 제외하면 자본집약도가 꾸준히 상승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86년부터는 고정자산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편승하여 자본집약도 지수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생산성의 증가보다 자본생산성의 증가가 컸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설비투자를 통해 기술진보를 도모하는 기업의 행동이 보편화되었을 가능성, 둘째는 임금비용의 상승에 따른 요소의 대체 경향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중국의 과잉인구 조건, 경제성장과 더불어 보다 고급의 품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 등을 감안할 때 후자보다는 전자가 자본집약도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6 향진기업의 생산요소 투입의 변화

연 도	취 업 노동력수 (L) (만人)	고정자산액 (K) (억元)	전국소매 물가지수 (1952=100)	자 본 집 약 도 (K/L)	
				(元/人)	(1978=100)
1978	2826.6	229.6	135.9	812.3	100.0
1979	2909.3	280.2	138.6	944.3	116.3
1980	2999.7	326.3	146.9	1006.3	123.9
1981	2969.6	375.4	150.4	1142.3	140.6
1982	3112.9	429.3	153.3	1222.6	150.5
1983	3234.6	475.7	155.6	1284.5	158.1
1984	5208.1	575.0	160.0	937.8	115.4
1985	6979.0	750.4	174.1	839.3	103.3
1986	7937.1	946.7	184.5	878.6	108.2
1987	8805.2	1226.6	198.0	956.1	117.7
1988	9545.5	1584.3	234.6	961.5	118.4
1989	9366.8	1920.7	276.4	1008.2	124.1
1990	9264.8	2202.0	282.2	1144.6	140.9
1991	9609.1	2626.3	290.4	1279.0	157.5
1992	10624.6	3463.1	306.1	1447.1	178.2

자료: 「中國鄉鎮企業年鑑」, 農業出版社, 1993.

상술한 생산요소의 투입과 관련된 분석결과를 Cobb-Douglas 함수모형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자.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29개 省·直轄市·自治區의 1989~92년간 횡단면 자료이다. 모형과 분석결과가 다음에 제시되어 있다.

$$Y = AL^{\alpha} K^{\beta}$$

Y: 향진기업 총산출액 또는 향진기업수입(만元)

L: 향진기업 노동력수(人)

K: 향진기업 고정자산투자(만元)

상술한 Cobb-Douglas 함수모형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두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alpha + \beta > 1$ 에 해당되어 요소 사용에 대한 규모의 경제(increasing return to scale)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향진기업은 확대재생산의 유리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최근 향진기업의 요소사용이 자본사용적 기술 변화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것은 노동력의 부족에 따른 자본의 대체현상이라기 보다는 경제현실상 자본투입에 대한 유리성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단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정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진기업의 발전속도도 이전보다는 감속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4-7 Cobb-Douglas 함수모형을 이용한 요소탄력성 분석결과

연 도	총산출액 기준			총수입액 기준		
	α	β	R^2	α	β	R^2
1989	0.729 (8.024)	0.491 (5.697)	0.949	0.771 (9.175)	0.412 (5.177)	0.954
1990	0.851 (9.787)	0.299 (4.739)	0.941	0.848 (11.359)	0.273 (5.041)	0.953
1991	0.540 (6.587)	0.517 (8.793)	0.972	0.596 (7.736)	0.450 (8.142)	0.973
1992	0.482 (4.851)	0.604 (8.199)	0.987	0.540 (6.225)	0.537 (8.350)	0.974

주: ()내 값은 t값을 나타냄.

자료: 「中國鄉鎮企業年鑑」, 각연도판을 토대로 계산.

제 5 장

향진기업의 거시경제에 대한 기여

1. 시장경제의 확산

1978년 제11기 三中全會(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시장경제의 조류가 중국의 농촌을 지배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과거의 생산양식과 소유제 형태 및 경제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중국농촌의 면모가 이같이 일신된 것은 농촌경제 체제 개혁의 성공에 기인하며, 이는 국내외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 받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농촌이 자연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은 오랜기간 동안 봉건사회와 반식민지적 반봉건사회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낮은 생산력 수준과 낙후된 사회적 분업체계하에서 자급자족적인 자연경제 상태가 농촌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었고 통치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농촌경제가 매우 안정적이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외부와의 교류가 봉쇄된 상태였음을 나타낸다. 이같은 상황하에서 남경여직

(男耕女織)이라는 전형적인 경제형태를 구축했다. 19세기말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나 1945년 이래의 해방이후에도 이같은 자연경제적 기초가 철저히 개편되지는 못했다. 辛亥革命(1911)이 봉건전제의 해체를 가져왔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1949)은 관료독점자본의 종결을 서두르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다졌다. 그러나 오랜기간 동안 농촌사회를 지배해 온 자연경제 상태는 쉽게 와해되지 않았다. 1950년대 말부터 인민공사 체제가 성립되고 그후 30여년간 일부 분야에서 시장경제적 요소가 도입되긴 했지만 이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인민공사 체제는 자급자족 경제체제의 범위를 지리적으로 확대시킨 것에 불과하였다. 즉 자연경제적 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으며 시장경제 체제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상품생산 수준은 매우 낮았으며, 대부분의 생산물은 인민공사 구성원들의 자급을 위한 것이었다. 완전한 평균주의적 분배방식(大鍋飯)은 자연경제적 속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향진기업의 전신인 社隊企業도 인민공사와 같은 3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초기 일부기간을 제외하면 농업생산의 보충적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언제나 부족한 토지와 식량생산, 포화상태의 인력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쳤다. ‘농업을 위한 서비스’(爲農業服務)의 방침이 수시로 강조되었으나, “작은 修理는 생산대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큰 補修는 인민공사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小修不出隊 大修不出社)는 방침하에서 농기계 修理기업 정도가 운영될 따름이었다.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운영되는 기업은 왕왕 압력을 받았으며, 때로는 ‘자본주의의 꼬리’(資本主義尾巴)로 치부되어 공격받기도 했다. 따라서 인민공사의 발전과 명맥을 같이하는 社隊企業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확대한 것에 불과하며 진정한 의미에서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社隊企業은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자급자족 체제를 위해 존재했으며 시장경제의 발전을 통한 자연경제 체제의 와해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고 해서 社隊企業이 향진기업의 발전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다. 제3장 향진기업의 발전과정에서도 살펴보았지만 30여년간의 社隊企業 역사

는 일부 지역에서나마 물질·기술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시간이었다. 주관적 혹은 객관적 조건들이 성숙하여 일정규모 이상에 달하는 기업도 탄생시켰으며, 1984년 향진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社隊企業은 인민공사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고, 독립적인 역량을 가지고 자연경제 상태를 붕괴시킬 만큼 농촌사회경제 체제에 충격을 주지 못했다.

제11기 三中全會 이후 包產到戶를 주요형식으로 하는 생산책임제(聯產承包責任制)를 도입함으로써 농촌경제 체제의 개혁에 돌파구가 마련되었다.¹ 인민공사 체제하에서 정체되고 경직된 농촌경제를 급속히 변화시켰고, 농민들에게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했으며, 농업생산력의 현저한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생산책임제가 해결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 소재 및 수익에 대한 분배의 문제였다.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을 농민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생산물의 수익을 농민들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농민들의 생산활동에 대한 적극성을 고양했다.

그러나 토지를 비롯한 중요한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집체소유로 남겨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은 사회주의 이념중 공평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었으므로 영세분산 경영이라는 한계성을 탈피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만약 현단계에서 더이상의 개혁이 없다면, 즉 생산 및 투입과 관련하여 새로운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包產到戶 위주의 생산책임제도 중국의 전통적인 자연경제상태를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생산책임제가 실시되면서 생산력도 증가되었고 시장경제적 요인들도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산책임제만으로 실질적인 시장경제 체제가 확립되기 기대한다면 여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¹ 包產到戶는 생산대가 개별농가에게 토지와 생산자재를 공급하고 농가에 생산을 청부하는 제도이다. 개별농가는 부과된 책임생산량을 생산대에 인도하고 계약에 따른 노동점수를 인정받으며, 생산책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노동점수를 얻는다. 包幹到戶에서는 생산대가 노동점수에 의해 분배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개별농가는 책임을 다하고 남은 부분을 자유로이 처분하였다. 李日榮, 앞의 책, pp. 36~39.

최근 중국의 농촌에서 시장경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생산책임제의 실시가 기초가 되었고 여기에 향진기업의 발전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시장경제의 신속한 발전은 중국의 농촌이 종래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현상으로, 새롭고 활기찬 생산활동을 가져왔다. 시장경제적 속성에 자극받아 형성된 왕성한 생산활동은 시장경제의 발전을 더욱 가속하여 중국적으로는 전통적인 자연경제 체제를 해체시킨 것이다.

중국의 대부분 지역에서 새로운 생산활동에 기인한 시장경제의 발전은 생산책임제 보다 주로 향진기업의 역할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업 자체는 시장경제 체제의 산물이다. 향진기업도 여타의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기업의 생산활동은 자급자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환과 판매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향진기업은 시장경제를 활성화하여 전통적인 자연경제 상태만이 존재하던 중국의 농촌에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전체 농촌사회에 중대한 개혁의 바람을 일으켰다.²

田紀云은 시장의 존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³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얼마를 생산할까는 시장의 요구에 따를 뿐이다. 시장수요에 의거하여 자원과 생산요소가 분배될 것이다. 향진기업이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왕성한 생명력의 근원도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생산품목, 수량, 품질, 가격 등 모든 것이 시장수요에 따라

² 물론 ‘包產到戶’위주의 생산책임제에 대해 그 의의나 공헌을 평가절하할 수는 없다. 사실 생산책임제의 실시는 농촌경제 개혁의 제일보였다. 만약 생산책임제가 실시되지 않았더라면 수억의 농민들은 아직도 1억ha내외의 농경지에 묶여서 속박당하고 있을 것이다. 생산과 경영의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며, 비농업부문으로의 진출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기의 일부 자산을 확대재생산 과정에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농민이 비농업부문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만약 농민들의 생산과 경영에 대한 자주권이 없었고 투자에 대한 제한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과거 삼십 수년동안 유지되었던 ‘인민공사’와 ‘社隊企業’의 변신과 오늘날 향진기업의 급속한 발전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생산책임제는 향진기업과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한 선행조건이었다.

³ 田紀云, “解放思想 抓住機遇 加快中西部地區鄉鎮企業的發展”, 全國關於加快發展中西部地區鄉鎮企業經驗交流會上的講話, 1992. 11. 18.

결정된다. 투입요소와 자원배분도 예외가 아니다. 국가에서 계획한 생산수치에 향진기업 산출물의 몫은 없다. 따라서 향진기업이 시장지향적이 되고,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밖에 없다.” 朱杰도 비슷한 관점에서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⁴ 즉 “지난 십수년간을 회고해 볼 때 향진기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향진기업이야 말로 始終 개혁과 개방의 전위에 있었다. 향진기업이 개혁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험도 축적해 주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수급조절에 의한 향진기업 발전을 견지해 왔다”는 것이다.

향진기업이 중국의 농촌경제에 전대미문의 시장경제 체제를 출현시키고 농촌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야기했다는 것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다. 농촌경제가 이제는 농업경제의 개념으로만 파악될 수 없게 되었다. 농민들도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이제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농민은 아니다. 농민들의 취업범위, 거주지역, 사회적 신분 등이 획기적으로 변화했다. 농민들의 생산방식과 사회적 처신도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더불어 도농간의 관계, 농공간의 관계도 변화했다. 이제 사람들은 농촌경제와 농촌사회의 발전은 향진기업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고, 향진기업의 발전이 중국의 농촌경제를 부흥시키는 첩경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국민경제에 있어 향진기업이 수행한 가장 큰 역할은 농촌의 전통적 자연경제 상태를 시장경제 또는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시켰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은 서술적 설명은 용이하나 상대적으로 수량화하기 어렵다. 다만 생산물의 상품화율이 간단하나마 시장경제에 대한 척도로 이용될 수 있다. 1978년 이전까지는 농산물의 상품화율이 40~50%에 머물러 있었다. 1980년대에는 60% 수준으로 증가했다가 1992년에는 87.1%까지 증가했다는 계산 결과가 있다.⁵ 과거에는 농민들의 생산결과가 자급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국가에 귀속되다가 이제는 상당부분이 시장에

⁴ 朱杰, “市場經濟是鄉鎮企業成功之源”, 「中國鄉鎮企業年鑑(1993)」, 農業出版社, p. 21.

⁵ 張保民, 「改革以來的中國農業與農村發展」, 1993년 10월 25일 농경연 세미나 자료 p. 3. 단 여기서 상품화율은 {(수매총액 + 농촌 자유시장에서의 거래총액)/총생산액}을 백분비로 표시한 것임.

서 상품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진기업은 이와같은 시장 경제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잉여 노동력의 흡수⁶

향진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가장 큰 기여는 농촌의 잉여노동력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농촌의 잉여노동력이야말로 향진기업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향진기업이야말로 중국적 특색이 있으며 중국 농민들의 위대한 창조적 산물이다. 대중에 의해 이루어진 이같은 창조는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거한다. 첫째, 중국농민은 오랜 기간 동안 적은 토지에 얽매어 농업생산에만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소농경제의 제약성이다 봉건지주의 수탈과 압박으로 농민들은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해방이후 黨의 영도하에 농업생산과 농가수입 증대를 기하여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염원했으나 이러한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웠다. 이제 이같은 염원은 농촌에서의 농외부문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중국은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농업노동력의 취업문제는 경제문제인 동시에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해 온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농촌에서 농업노동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향진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향진기업 발전의 원동력도 여기서부터 비롯된다.”⁷

향진기업의 성립배경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지만 중국의 일관된 농촌정책은 ‘離土不離鄉’이다. 중앙정부에서 보면 이 정책의 본래 목적은 농촌의 인

⁶ 본절에서는 단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향진기업으로 흡수된 노동력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향진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부분 중 농촌 잉여노동력의 흡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연구의 제6장에서는 중국농촌의 과잉노동력 추계, 향진기업의 고용을 규정한 요인분석 등을 시도하였다. 향진기업의 노동력 고용효과와 관련하여 보다 심층적 분석을 요한다면 본연구의 제6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⁷ 劉中一, 앞의 문장, 1992. 1. 5.

구유출을 방지함으로써 도시지역의 과밀을 막는 데 있다. 개발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경제발전은 전통적인 농촌경제구조를 근대화시킬 때 가능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잉상태의 농촌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여건이 다르다. 대량의 농촌인구가 특정의 몇몇 도시지역으로 유입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도시문제의 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마비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1958년 중국정부가 「中華人民共和國 戶口登記條例」를 공포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구이동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 것도 단순한 통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역의 농촌인구가 특정기간내에 이동하게 될 때 국부적 혹은 대부분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마비현상을 염려한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에 따라 각 지역단위에서 노동력 흡수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였다. 1986년 浙江省 紹興縣의 21개 ‘億元鄉’⁸에서 1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업창설의 가장 큰 동기는 농촌 잉여노동력의 흡수였다.⁹ “개혁이후 향진기업은 농촌 잉여노동력의 첫번째 ‘分流器’로서 농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했다. 특히 개혁의 초기단계였던 1983년 이전에 창설된 鄉경영 집체기업의 40.3%, 村경영 집체기업의 59.7%는 잉여 노동력의 흡수가 기업창설의 동기라고 응답하여 집체기업의 노동력 흡수에 대한 기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¹⁰

⁸ 여기서 ‘億元鄉’이라 함은 향진기업 산출액 합계가 億元을 초과하는 鄉을 이룸이며, 「中國鄉鎮企業年鑑」(1993)에 의하면 1992년 전국에는 4,255개의 ‘億元鄉’이 있었다.

⁹ 張忠根, 林堅, 張校軍, “論鄉鎮企業經營行爲的產生機制和特征”, 「農村經濟與社會」, 1991年 第1期, 1991. 1. p. 23.

¹⁰ 이와 관련하여 향진기업 종사자 개개인에 대한 설문조사도 보고되고 있다. 1992년 5 ~ 8월간 전국의 4개省 4개縣(山西省 平定縣, 江蘇省 吳縣, 廣東省 南海縣 및 浙江省 永嘉縣)에서 향진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왜 향진기업에 취업했는가?’ 라는 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전체의 27.5%는 집안에서 할 일이 없어서 취업했다는 응답이었다. 농촌의 잉여노동력 존재를 직접 확인해주고 있다. 胡庄君, “當前我國鄉鎮企業職工的思想狀況”, 「中國農村經濟」, 1993年 第6期, 1993. 6. pp. 23~28 참고.

표 5-1 향진기업 종사자 수와 여타 인구 분포중 비율(1993년)

인구수	연도	총인구 (A)	농촌인구 (B)	경제활동 인구(C)	총취업 자수(D)	농촌노동 자수(E)	향진기업 종사자수(F)
	(만명)	1978	96,259	79,014	48,530	40,152	30,638
	1985	105,851	80,757	62,114	49,873	37,065	6,979
	1992	117,171	84,799	72,120	59,432	43,802	10,625
구성비	연도	F/A	F/B	F/C	F/D	F/E	
	(%)	1978	2.9	3.6	5.8	7.0	9.2
	1985	6.6	8.6	11.2	14.0	18.8	-
	1992	9.1	12.5	14.7	17.9	24.3	-

자료: 1) 총인구, 농촌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및 농촌노동자수는 「中國統計年鑑」(1993)에 의거함. 단 경제활동인구는 '勞動力資源人數'를 적용한 것이고, 취업자수는 '社會勞動者人數'를 적용한 것임.
2) 향진기업 종사자수는 「中國鄉鎮企業年鑑」(1993)에 의거함.

중국 농촌의 과잉인구 문제는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경제의 개방화가 추진되면서 부와 기회(교육, 문화 등 비경제적 측면에서)를 찾아 도시지역으로 무작정 찾아드는 경향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 인구정책은 산아제한을 통한 인구증가의 억제와 호적제도를 통한 인구이동의 제한인데, 향진기업의 발전은 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8억에 이르는 농촌인구를 계속 농촌에 머무르게 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케 하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했고, 그 해결책으로서 향진기업 정책이 강력히 추진된 것이다.

1992년말 현재 향진기업 종사자수는 10,625만인이다. 전체 농촌인구의 12.5%에 이르고 있고, 총경제활동 인구의 1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총취업자 인구 중 17.9%를 점하고 있다. 또 농촌노동자총수의 1/4가량을 점유함으로써 농촌의 노동력 흡수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표 5-1 참조). 최근엔 고용효과가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1978~92년간 중 총 7,798

만명이 향진기업으로 흡수되었다. 매년 평균 557만명이 향진기업으로 흡수된 것이다. 중국정부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근로자 1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대략 1.5만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계산에 의하면 향진기업의 노동력 고용을 통해 국민경제는 매년 835.5억원의 투자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3. 국민총생산의 증가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과거 중국경제에서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생활필수품의 부족이었다. 정부의 투융자정책은 대부분 중화학공업부문에 치중되었고 인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공업 제품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왔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성장이 실제 인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직결되지 못하는 모순을 낳기도 했다. 제3장 향진기업의 특성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대부분의 향진기업은 낮은 기술수준과 자금공급 능력의 한계로 소규모성을 탈피하기가 어렵다. 자연히 적은 자본과 낮은 기술수준으로 생산가능한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대부분이 될 수 밖에 없다. 자금의 회임기간이 짧아서 기업관리에 유리하고, 가족노동력을 이용한 소량다품목 형태의 생산체계가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향진기업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실제 인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간단한 경공업 제품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없이도 향진기업을 통한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다.

생활필수품 위주의 경공업 제품은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1992년의 경우를 보면 향진기업 산출액은 식품제조업 분야가 7.6%, 방직업 분야가 12.3%, 전자와 비철금속분야가 11.9%, 기계공업 분야가 9.6%, 화학공업 분야가 5.7%, 피혁가공 분야가 1.8% 등이다. 각분야에 걸친 향진기업의 활동에 힘입어 향진기업 총산출액은 1978~83년간 연평균 15.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향진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1984년 이후부터 1992년까지는

표 5-2 국민총생산액중 향진기업 생산액의 비중

단위: 億元, %

구 분	1978	1985	1992
사회총생산액(A)	6,846	16,582	55,842
향진기업총생산액(B)	495	2,755	17,660
비율(B/A)	7.2	16.6	31.6

자료: 1) 사회총생산액은 「中國統計年鑑」(1993)에 의거함.

2) 향진기업 생산액은 「中國鄉鎮企業年鑑」(1993)에 의거함.

연평균 38.6%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향진기업 산출액 증가는 국가전체의 총생산액 증가로 이어졌고 동시에 총생산액 중의 비중도 점증하게 되었다. 사회총생산액 중 향진기업의 총생산액 비중이 1978년의 7.2%에서 1985년에는 16.6%로 증가했고, 1992년에는 다시 31.6%로 증가했다. 즉 최근의 상황은 사회총생산액의 1/3가량이 향진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표 5-2 참조). 이러한 현상은 다른 부문의 생산감소 없이 대부분의 잉여노동력과 농촌의 자체 자금조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총생산의 증가로 직결된다.

4. 국민소득의 제고

인구이동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보다 높은 삶의 질, 보다 높은 소득을 지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중국에 있어서와 같이 철저하게 농촌의 인구이동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라면 이에 부합하는 농촌에서의 소득원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 역할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향진기업이었음은 누차 지적한 바와 같다. 우선 국민 총수입 중 향진기업으로부터의

표 5-3 국민수입중 향진기업으로부터의 수입 비중

단위: 億元, %

구 분	1978	1985	1992
국민수입(A)	3,010	7,020	19,845
향진기업총수입(B)	87	472	1,747
비율(A/B)	2.9	6.7	8.8

자료: 1) 국민수입은 「中國統計年鑑」(1993)에 의거함.

2) 향진기업 총수입은 「中國鄉鎮企業年鑑」(각연도판)에 의거함. 단 기업이 지급한 총임금액을 기준으로 했음.

수입을 보자. 1978년 2.9%에서 1985년에는 6.7%로 증가했고 1992년에는 8.8%까지 증가했다(표 5-3 참조). 이것은 향진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비율이나 향진기업의 산출액 수준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향진기업으로부터의 임금수입만 계상된 것을 감안한다면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다. 농민 1인당 순수입 중 향진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수입의 비중은 1978년 8.0%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특히 1991년도엔 20%를 상회하기 시작하면서 1992년엔 24.3%까지 증가하고 있다. 노동력 이외 생산수단의 소유에서 발생하는 수입, 기업의 순이익, 고정투자부문 등을 합한다면 국민수입 중 향진기업으로부터의 수입은(표 5-3)에서 제시된 수준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중국정부는 아직까지 도농간 혹은 농가와 비농가간 소득수준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비록 최근 몇년간의 자료에 불과하지만 「中國統計年鑑」(1993)에서는 향진기업수입이 전체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시해 주고 있다. 1991년과 1992년 전체 농촌경제수입중 향진기업으로부터의 수입은 각각 39.4%와 45.0%였다. 전체 농가수입의 절반 가까이가 향진기업으로부터 유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표 5-4 농촌사회 총산출액중 향진기업 산출액의 비중

단위: 億元, %

구 분	1978	1985	1992
농촌사회 총산출액(A)	2,325	6,430	25,386
향진기업 총산출액(B)	495	2,755	17,660
비율(B/A)	21.3	42.8	69.6

자료: 1) 농촌사회 총산출액은 「中國統計年鑑」(1993)에 의거함.

2) 향진기업 총산출액은 「中國鄉鎮企業年鑑」(각연도판)에 의거함.

것이다. 1978년 경제개혁이 시작된 이래 1992년까지 연평균 농가수입의 증가는 13.7%라는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물가상승률로 디플레이트한 실질증가율이 9.1%에 이른다. 여기서도 물론 향진기업을 통한 농외소득의 역할이 컸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도농간 혹은 농공간의 명확한 소득 대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지역 거주자의 소득수준이 농촌지역 거주자의 소득수준보다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진기업이 농촌거주자들에게 농외소득의 획득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향진기업으로부터의 수입 증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일조했다. 농촌사회 총산출액 중 향진기업 산출액의 비중이 1978년의 21.3%에서 1985년엔 42.8%로 증가되고, 1992년엔 69.6%까지 증가했다(표 5-4 참조). 이는 농촌에서 농업생산의 비중보다 향진기업의 비중이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근대적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5. 산업구조의 변화

향진기업의 발전은 농촌과 국민경제내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것은 향진기업이 농업과 농촌과 농민관계를 바탕으로 성립하여 발전해 왔지만 실제로 기업수와 종사자 그리고 산출액 모두 비농업부문에 중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표 5-5)에 잘 나타나 있다.

우선 기업수의 관점에서 보자. 1978년 농업, 공업, 건축업, 교통운수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은 각각 32.5%, 52.1%, 3.0%, 4.3% 및 8.1%였다. 그러던 것이 1992년에는 각각 1.2%, 38.0%, 4.7%, 20.9% 및 35.2%였다. 농업부문의 비중이 대폭 줄어들고 대신 서비스업과 교통운수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농업부문의 기업수와 종사자수가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보아 가족중심의 소규모 향진기업 중 상당수가 도태되어 서비스 부문과 교통운수업 부문으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산출액 자체는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인플레이션에 의한 화폐가치의 증가와 기업당 산출액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는 산업별 향진기업 종사자의 구성을 살펴보자. 1978~92년간 농업부문과 공업부문은 각각 19.0% 포인트와 1.5%포인트의 감소를 가져왔다. 반면 건축업, 교통운수업 및 서비스업은 각각 6.3%포인트, 3.8%포인트 및 10.7%포인트가 증가했다. 기업수와 종사자수의 변화는 산출액에도 영향을 미쳐 같은 기간 중 농업과 공업부문은 각각 6.0%포인트와 3.1%포인트가 감소했고, 반면 건축업, 교통운수업 및 서비스업은 각각 3.1%포인트, 2.4%포인트 및 3.6%포인트가 증가했다.

이상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향진기업은 농업부문과 공업부문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반대로 건축업, 교통운수업 및 서비스업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농업부문을 제외한 전부문 공히 사회총산출액 중 향진기업 산출액의 비중이 매년 2~5%씩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첫째 농부산물이나 농

표 5-5 향진기업의 산업별 기업 수, 근로자 수 및 산출액

구분	단위	연도	합계	농업	공업	건축업	교통운수업	상업·서비스업
기업수	만개	1978	152.4	49.	79.4	4.7	6.5	12.4
		1985	1,222.2	22.4	493.0	73.1	208.1	425.5
		1992	2,091.6	24.9	793.8	98.5	437.0	737.4
근로자명	만명	1978	2,826.6	608.4	1,734.4	235.6	103.8	144.3
		1985	6,979.0	252.4	4,136.7	1,170.2	447.1	972.6
		1992	10,624.6	268.1	6,336.4	1,552.4	799.7	1,688.0
산출액 元	억	1978	495.1	37.3	385.3	34.9	18.9	18.8
		1985	2,755.0	59.7	1,845.9	415.1	191.6	242.7
		1992	17,659.7	265.1	13,193.4	1,791.3	1,107.5	1,302.5
구 성 비 (%)	기업수	연도	합계	농업	공업	건축업	교통운수업	상업·서비스업
		1978	100.0	32.5	52.1	3.0	4.3	8.1
		1985	100.0	1.8	40.3	6.0	17.0	34.8
	종사자수	1978	100.0	21.5	61.4	8.3	3.7	5.1
		1985	100.0	3.6	59.3	16.8	6.4	13.9
		1992	100.0	2.5	59.6	14.6	7.5	15.8
	산출액	1978	100.0	7.5	77.8	7.1	3.8	3.8
		1985	100.0	2.2	67.0	15.1	7.0	8.8
		1992	100.0	1.5	74.7	10.1	6.3	7.4

자료: 「中國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1993.

업자원을 이용하여 향진기업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왔음을 의미한다. 둘째는 경제가 개방되면서 농업부문이나 공업부문에 비해 여타 부문의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며, 동시에 과거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이들 부문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발전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당

분간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는 향진기업 자체의 산업별 구성을 보았는데 다음에는 향진기업의 산업별 산출액과 사회총산출액을 비교해 보자. 이는 다음 (표 5-6)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향진기업의 농업부문 산출액은 농업부문 사회총산출액의 3%미만으로 감소했다. 반면 운수업의 사회총산출액 중 향진기업 산출액의 비중은 1978년 9.3%에 불과했는데 1992년 이미 60%를 초과했다.

상업 및 서비스부문도 이 비율이 거의 50% 수준에 가깝게 증가했다. 이로 미루어 향진기업의 발전이 산업구조중 농업부문의 비중을 감소시키고 상대적으로 교통운수업과 상업·서비스업의 비중을 크게 증가시켰음이 입증된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시장경제적 요소를 배제하던 분위기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변화이다. 운수업, 상업, 서비스업 등이 모두 자본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시장경제체제하에서만 성장이 가능한 산업들이다. 직접적인 생산활동이 아닌 유통과 서비스분야의 이같은 발전은 중국의 전통적 농촌경제를 변모시키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다.

표 5-6 산업별 사회총산출액중 향진기업 산출액의 비중

단위: 억원, %

구 분	연도	전 체	농업	공업	건축업	운수업	상업
사회 총산출액 (억원)	1978	6,846	1,397	4,237	569	205	438
	1985	16,582	3,619	9,716	1,656	488	1,103
	1992	55,842	9,085	37,066	5,196	1,805	2,690
향진기업 산출액 (억원)	1978	495	37	385	35	19	19
	1985	2,755	60	1,846	415	192	243
	1992	17,660	265	13,193	1,791	1,107	1,302
구성비 (%)	1978	7.2	2.6	9.0	6.2	9.3	4.3
	1985	16.6	1.7	19.0	25.1	39.3	22.0
	1992	31.6	2.9	35.6	34.5	61.3	48.4

자료: 「中國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1993.

6. 국가 재정수입의 확대

향진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 중 중요한 한 부분이 기업의 납세를 통한 재정수입의 증대에 있다. (표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8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재정수입 중 향진기업으로부터의 납세액은 2.0%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2년에 이르러서는 국가의 총재정수입 4,153억 원 중 향진기업의 납세액이 640억 원에 이르러 15.4%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건설 초기단계에서는 농업세의 징수에 의한 공업화의 방법이 가장 유력한 수단이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선택된 중공업 중심의 산업발전 전략은 필요재원을 주로 농업부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의미이다. 이제는 농업부분의 비중 감소와 향진기업의 발달로 향진기업으로부터의 세수확보가 과거 농업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향진기업의 발전이 없었다면 무엇보다도 국가의 재정상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있다.¹¹

표 5-7 국가 재정수입중 향진기업으로부터의 수입 비중

단위: 億元, %

구 분	1978	1985	1992
국가재정수입(A)	1,121	1,866	4,153
향진기업 납세액(B)	22	137	640
비율(B/A)	2.0	7.3	15.4

자료: 1) 국가재정 수입은 「中國統計年鑑」(1993)에 의거함.

2) 향진기업 납세액은 「中國鄉鎮企業年鑑」(각연도판)에 의거함.

¹¹ 張保民, 「改革以來的中國農業與農村發展」, 1993년 10월 25일 농경연 세미나 자료 p. 4.

7. 무역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에서처럼 중국도 1949년이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제무역은 국내경제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쳤다. 자력갱생과 자원민족주의를 고수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와의 교역 또는 원조에만 의존했다. 자본주의와의 무역이 제국주의 독점자본에 의한 후진국의 수탈이라고 인식했으며 무역자체가 국가간의 교역을 통한 국민들의 생산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시각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경제내 무역의 중요성은 부각되지 않았다. 경제의 개혁과 개방이 결정된 1978년만 하더라도 전체 무역액은 사회총산출액의 5.2%에 불과했다. 그후 1978~92년 기간중 연평균 16.0%의 대외교역량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사회총산출액중 수출의 비중도 점차 커져 왔으며, 1992년엔 이 비중이 16.3%까지 증가했다. 대외교역의 이같은 증가는 1990년에 이르러서는 중국을 세계 10대교역국에 진입케 했을 정도이다. 이제 중국에서도 무역에 대한 종래의 시각에서 벗어나 무역제일주의라는 구호에 걸맞게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역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불과 십수년 아래의 변화이다.

대외교역량이 급속히 증가한 배경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무역에 대한 기본적 인식도 바뀌었고, 대외무역체제와 수출입 상품관리제도의 변화도 있었다. 인식과 제도의 변화 이외에 향진기업의 발전도 교역증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국가의 총수출액중 향진기업 수출액 비중이 매년 증가함으로써 향진기업의 발전이 무역확대에 상당부분 기여했음이 입증된다. (표 5-8)에서 볼 때 국가의 총수출액중 향진기업 수출액 비중은 1985년 4.8%에서 1990년 16.3%로 증가하고 1992년엔 25.5%로 증가되었다. 총수출액의 1/4이 향진기업으로부터 수출된 액수이다. 향진기업 산출물이 수출로 직결된 때에는 ‘三資기업’과 ‘貿工農輸出基地’ 건설의

표 5-8 최근 수년간 총수출액 중 향진기업의 기여

단위: 億元, %

구 분	1985	1990	1992
총수출액(A)	809	2,986	4,679
향진기업 수출액(B)	39	486	1,193
비율(B/A)	4.8	16.3	25.5

자료: 1) 총수출액은 「中國統計年鑑」(1993)에 의거함.

2) 향진기업 수출액은 「中國鄉鎮企業年鑑」(각연도판)에 의거함.

효과가 컸다. 전자는 중국의 동남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외국기업과의 合資·合作·合營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으로 1992년 현재 총 15,000개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의 각 지방정부가 각종 우대정책을 실시하면서 이들 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매년 수천개씩 증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판로까지도 외국 기업가들이 지도함으로써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¹² ‘貿工農輸出基地’는 향진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國務院이 주창하여 건설된 것이다. 1987년말 국무원이 농업부, 대외경제무역부 및 국가경제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출한 ‘貿工農연합의 수출상품생산기지에 관한 보고’를 승인하고, 1988년부터는 전국의 향진기업에 대해 이러한 방침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소규모 향진기업이 외국과의 무역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원활한 수출로 국내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北京, 天津을 비롯한 전국의 26개 省, 自治區, 直轄市 등에 貿工農연합 수출상품기지를 설립하고, 향진기업이 외국과의 무역에 종사하게 될 때 장기 저리의 대출, 수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다.¹³

¹² 周涵達, “鄉鎮企業外向型經濟取得新突破”, 「中國鄉鎮企業年鑑(1993)」, p. 272 참고.

¹³ 張姪, “貿工農’出口基地建設成就斐然”, 「中國鄉鎮企業年鑑(1993)」, p. 27 및 趙健武, “貿工農一體化發展的基本態勢”, 「中國農村經濟」, 1993年 第5期, 1993. 5. pp. 30~36 참고.

향진기업을 통한 정부의 수출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진기업의 대외적 향적 기업운영에는 아직 적지 않은 제도상의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향진기업의 수출업무와 관련하여 현행 수출관리체제는 향진기업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향진기업은 수출을 하면서도 수입상인이 누군지, 가격은 얼마인지, 외환비용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다. 전국적으로 향진기업이 직접 수출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곳은 몇개 안된다. 중앙정부는 직접 수출업무를 관리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정의 조건을 구비했을 경우에 한해서 허가하고 있다. . . . 1991년 향진기업에 의한 수출은 3,000개 이상의 기업에서 159억원에 달했지만 직접 수출권을 가진 기업은 단 1개의 기업 뿐이었다. 현행 무역체제가 향진기업의 수출업무를 제약하고 있음이 분명하다.”¹⁴

연도별 「中國鄉鎮企業年鑑」에 의하면 향진기업의 수출품 내용은 모두 12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공, 기계, 광산물, 경공업 제품, 식품, 토산물, 축산물, 방직품, 絲織品, 의복류, 미술공예품, 기타 등이다. 1992년의 수출실적을 보면 의복류가 가장 많아서 186.4억원, 다음엔 방직품과 경공업제품이 각각 186.3억원 및 186.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개 분야의 수출액이 전체의 46.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식품과 축산물 수출은 각각 79.4억원 및 37.1억원으로서 전체의 1.0%수준이다.

향진기업의 국민경제 대한 기여 또는 영향은 상술한 내용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향진기업은 농촌 내부에서 수많은 기업가와 노동자를 탄생케 했다. 향진기업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도시의 문화, 선진기술과 생활방식 등이 유입되어 들어왔으며, 농촌내부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탄생했고, 특출한 기업가도 출현했다. 그들의 생활방식과 정신도 향진기업의 발전과 더불어 변화해 갔다.

둘째, 향진기업은 농촌의 복지사업을 위한 대량의 자금을 제공했다. 농촌

¹⁴ 郭書田, “關於鄉鎮企業走向國際市場的幾個問題”, 「中國農村經濟」, 1993年 第7期, 1993. 7. p. 34.

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아제한 정책, 민간의 敎師 육성, 校舍의 건립이나 수리, 영화관, 보건소, 도로와 다리의 증개축 등 많은 부분에서 필요한 자금이 향진기업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향진기업의 경영이 좋은 지역일수록 농촌의 복지환경도 개선되었다. 향진기업은 이제 농촌복지사업의 재원으로 변했다.

셋째, 향진기업은 농촌의 새로운 중소도시를 건설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향진기업이 발전한 지역은 새로운 중소도시를 형성하면서 각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았고, 농촌의 지역적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이 형성된 중소도시와 전통적인 농촌시장(集市)은 다르다. 전통의 농촌시장이 단순한 농부산물의 집산지적 성격에 머물렀던 데 비해 새로 형성된 중소도시는 기업간의 분업과 협업체계 설정,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초시설 건설, 외부와의 빈번한 교류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넷째, 향진기업의 발전은 중국적 특색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도농간 관계를 설정했다. 향진기업이 종래의 사회주의식 경제조직체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내부의 독자적인 생산체계와 기업간, 그리고 기업과 시장간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고립되었거나 봉쇄된 상태에 있던 농촌사회를 개방의 방향으로 인도했다. 농촌에 향진기업이 발전함으로써 도농간에 공산품과 농산물의 일방적인 흐름이 불식되고 가공상품을 중심으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도농간의 경제교류가 단순히 상품의 교환에만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많은 내용들이 추가된 것이다. 도시의 기업과 농촌의 기업간 상호 협조관계는 자금, 기술, 생산물, 인재양성, 합영 등 각종 형식을 나타낸다.

다섯째, 향진기업의 생산요소시장에 대한 영향이다. 향진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생산요소는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상례이다. 향진기업의 소유주체에 관계없이 지난 십수년간 이러한 관행이 일반화되어 왔다. 과거에는 모든 물자의 배분과 자원조달이 국가의 사전 계획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기업 경영자들의 결정에 따를 뿐이다. 아직 완전하고 자유로운 요소

시장이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결정도 기업 스스로가 행한다.

제 6 장

향진기업의 농촌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본연구의 제5장에서는 향진기업 발전상의 한계에 대해 일부 언급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鄉鎮企業의 거시경제에 대한 기여를 강조한 바 있다. 각종 자료에 입각한 단편적인 분석이나 거시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향진기업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외 연구문헌을 살펴보면 향진기업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 못지 않게 부정적인 측면도 지적되고 있다. 부정적인 시각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는 농촌내부에서의 불평등 증가와 함께 전반적인 경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내지 소외감은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시각이다. 두번째의 부정적 견해는 자원이용과 관련이 있다. 비효율적인 자원이용을 포함해서 무분별한 향진기업의 육성이 환경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주로 중국의 농촌경제 발전의 부수적·파생적 효과만을 지적한 것일 수 있다. 즉 동태적인 이중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실업이 감소하고 산업간 유기적 관련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일부 부정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였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본장에서는 향진기업이 거둔 성과에 대해 보다 분석적인 검토를 행하고자 한다. 우선 중국의 농촌경제발전과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고, 이것이

향진기업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그 다음 향진기업의 농촌 과잉노동력 흡수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한다. 그리고 향진기업이 농업성장이나 공업성장과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고찰해 볼 것이다. 만약 향진기업의 고용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고, 향진기업과 농업성장간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가설이 입증된다면, 이는 향진기업의 발전이 국가적·거시적으로는 유용한 경제발전 전략이었을지 모르나 농업부문과 농민들에게는 그다지 큰 이익이 없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1. 향진기업 발전에 대한 二部門模型의 적용

1.1. 기존 연구의 검토와 문제의 제기

지금까지의 연구중에 경제발전모형의 연구는 대부분 향진기업모형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향진기업연구는 크게 보아 ① 小城鎮論, ② 二部門經濟發展論, ③ 社會主義體制에의 統合論의 3가지 관점에서 전개되어 왔다.¹

小城鎮論은 농촌 소도시를 기반으로 향진기업 중심의 비농업부문을 발전 시킴으로써 농촌경제를 발전시키고 노동력과잉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內發的 發展論이다. 아직 중국에서는 사회정책으로서의 호적제도가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이의 실질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지상과제가 되었다. 또 농촌기업의 자금원천을 농촌내부의 자본축적에 둬으로써 직접적인 정부투자 없이 농촌경제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 경제정책으로서의 장점이 되었다.²

중국내에는 이러한 小城鎮論을 지지하는 견해가 강하였지만, 이는 경제

¹ 大島一二, 「現代中國における農村工業化の展開」, 筑波書店, 1993, pp. 35~48.

² 대표적인 것으로 費孝通, 「小城鎮大問題-江蘇省小城鎮研究論文選第一集-」, 江蘇人民出版社, 1984; 朱通華, 「鄉鎮工業與小城鎮」, 中國展望出版社, 1985; 費孝通, 「小城鎮新開拓-江蘇省小城鎮研究論文選第二集-」, 江蘇人民出版社, 1986.

적·지리적 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경제발전의 주요 원천을 농촌내부의 축적에서만 구한다고 할 때, 江蘇省 남부지역과 같은 선진 농촌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축적의 결여로 공업화를 행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향진기업이 급속히 진전된 1980년 이후 도시·농촌간 격차, 농촌지역내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농촌노동력의 지역간 이동이 대량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비교적 소수이지만 향진기업의 폐해를 중시하여 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는 향진기업의 급속한 발전과 농촌경제에 있어서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최근의 기업경영 악화, 도산 증가, 인플레이션 조장, 맹목적 경쟁의 격화, 공해 유발 등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형태 등에 대하여 사회주의경제의 거시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1980년대를 통하여 향진기업이 농촌경제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전체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향진기업은 기업의 설립자금을 향진재정 및 개인자금에서 구하였기 때문에, 기업설립시 업종·생산물의 선택에 있어 직접적인 국가관리의 대상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주적인 경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향진기업은 경직화되기 쉬운 사회주의경제체제, 국영부문을 보완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던 것이다.

개발경제학에 있어 Lewis의 二部門經濟發展模型을 중국의 농업과 농촌 공업의 관계에 적용하는 논의에서는 중국의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향진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비교적 정교한 이론적 틀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연해지역개발전략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여기에서 제시하는 명제에 대하여 실증적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³ 趙震·林宏建, “鄉鎮企業向集團化發展是一條優化之路”, 「最優化報」(北京), 1989年 5月 22日; 栢長庚·阮學義, “鄉鎮企業集團化的思考”, 「財經科學」(西南財經大學 成都), 1989年 第6期.

1.2. 향진기업발전에 대한 二部門模型의 적용

1.2.1. 二部門經濟發展論의 원형

Lewis는 1954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하여 자본주의경제 형성 초기의 경제성장의 이론적 구상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⁴

① 경제성장 초기단계에는 사회총노동인구의 거의 전부가 전통부문(농업)에 체류하여 있기 때문에 해당부문에 다수의 과잉노동력이 존재한다. ② 시장원리를 따르는 근대부문(공업)에서는 이러한 과잉노동력을 최저생존비수준의 임금률로 고용하는데, 이 때 노동공급은 무한대로 이루어진다. ③ 그리하여 근대부문(공업)에서의 자본축적과 이에 기초한 투자 확대가 실현된다. 이와 함께 농업부문의 노동력은 근대부문(공업)으로 급속하게 이동하여 전통부문(농업)의 과잉취업구조가 해소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노동력이동은 소위 '轉換點'(turning point)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그 결과 경제전체의 이륙이 가능해진다. ④ '轉換點'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노동의 수급관계가 신고전과 경제성장론의 원리를 따르게 된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농업취업자의 토지·자본장비율이 낮기 때문에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0수준까지 억제된다. 즉 농업부문에 과잉취업이 존재하며, 과잉상태에 있는 노동력은 항상 생존비수준의 임금률로 비농업부문에 고용된다. 비농업부문에는 저임금수준으로 고용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확대재생산에 필요한 자본축적이 비교적 쉽게 행하여진다. 결국 “자본축적 → 고용기회의 확대 → 노동력이동의 가속화 → 저임금수준에서 이윤이 급속히 증가 → 비농업부문의 확대”라는 순환이 존재한다. 그 결과 ‘二部門經濟’에 있어

⁴ Lewis, Arthur,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Vol.22, No.2, 1954; 嚴善平, 「中國經濟의 成長と構造」, 勁草書房, 1992, pp. 142~143; 栗林純夫, “鄉鎮企をどう理論化するか”, 渡邊利夫 編, 「中國の經濟改革と新發展メカニズム」, 東洋經濟新報社, 1991, pp. 178~179.

노동력의 산업간 이동이 발생하고 비농업부문과 경제전체가 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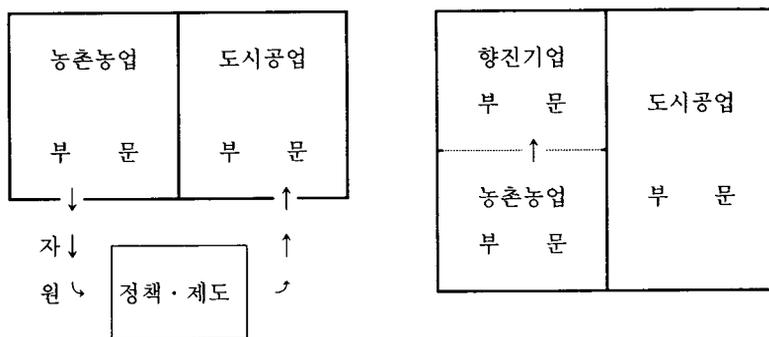
1.2.2. 개혁 이전의 一階層二部門經濟

제1차5개년계획(1953~57) 개시이래 중국경제의 중핵은 중공업부문이었는데, 농업부문은 중공업에 대한 투자와 도시 식량수요를 뒷받침해야 했다. 이에 1953년 이래 ‘계획수매·계획배급’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가가 유통시장을 전면 장악하였다. 또 국가가 농민노동을 조직하고 농민에의 분배에도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해 人民公社로 상징되는 농업집단화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농업잉여를 도시의 중공업부문에 이전시키고, 나아가 농업잉여 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시스템이 人民公社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의 완성을 위해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였다. 만약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한다면 도시노동력의 급증으로 임금기금이 일거에 확대되어야 했기 때문에 노동이동의 금지에 의해 농촌과 도시를 인위적으로 ‘격리’하였다. 노동력이동을 저지하기 위한 기본정책수단으로 호적제도를 확립하고, 또한 식량배급제도와 노동취업제도로 이를 보완하였다. 이러한 노동력 격리정책은 동시에 농촌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 농업이외의 어떤 생산주체를 형성해야 하는 압력을 형성하였고, ‘농촌공업화’가 점차 중국 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요컨대 개혁 이전의 ‘一階層二部門經濟’ 구조하에서는 잉여노동력이 농촌 농업부문으로부터 도시공업부문에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도시공업은 그 내부에 잉여노동력을 포괄한 채로 자본집약적 발전을 지향하였다. 이 때 자금은 농업부문으로부터 국가에 의한 강제축적에 의해 충당되었기 때문에 도시공업부문에 투자효율을 향상시키려는 유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중공업제품은 다른 중공업부문에 다시 판매됨으로써 중공업부문은 부문내에서만 ‘자기순환’하는 비효율성의 ‘섬’을 형성하였다. 결국 자본과 기술의 제약 때문에 공업발전은 정체되었고 도시와 농촌의 분단으

그림 6-1 중국의 二部門經濟構造



(a) 개혁전의 一階層二部門經濟

(b) 개혁후의 二階層二部門經濟

자료: 필자 작성.

로 산업구조의 왜곡이 확대되었다.

1.2.3. 개혁 이후의 二階層二部門經濟

한편 1978년 3中全會를 계기로 농업·농촌부문에 대하여 여러가지 개혁이 개시되었다. 1980년대 전반기에 농산물 수매가격이 인상되고 국가 계획수매 품목과 수량이 감소함으로써 농가교역조건이 개선되었다. 1985년 이후 식량·경제작물에 대하여 국가 계획수매제도가 약화되고 계약수매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야채·육류 등 부식품의 유통은 전면 자유화되었다. 또 농가생산책임제가 심화·보급되는 가운데, 人民公社제도라는 종래의 권력기구가 소멸하였다. 이러한 농업·농촌개혁은 증산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한편, 농촌밖으로 유출되던 농업잉여를 농촌내에 유보하는데 공헌하였다.

또 새로운 농업정책이 전개됨에 따라 인구이동에 대하여 과거와 같이 엄격한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해지게 되었다. 1984년에 이르러 「농민이 集鎮에 들어가고 호적을 옮기는 문제에 관한 국무원 규정」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르면 鎮의 공업·상업·서비스부문에 종사할 의사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鎮에 고정적 주거를 가지면서 그 가족이 향진기업에 장기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鎮으로의 이주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 식량배급을 받을 권리는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량은 원래의 호적이 있는 농촌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향진기업이 급성장하였다. 종래에는 생존유지 수준을 넘는 잉여를 국가가 흡수해가다가, 개혁 이후에는 잉여의 상당부분을 농촌에 유보할 수 있게 되자 수익성이 보다 높은 비농업부문에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鄉과 鎮과의 노동력이동에 대한 법적구속이 완화되어 人民公社내에 잠재되어 있던 잉여노동력이 걸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시장화할 수 있는 자금과 노동력이 급속한 속도와 규모로 향진기업으로 집중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향진기업을 농촌의 근대부문으로 위치시키고 새로운 축적·순환양식의 원동력으로 높이 평가하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개혁과 함께 전통적 기술과 높은 노동집약성을 특징으로 하는 향진기업은 비교적 자유로운 요소시장과 상품시장을 매개로 농업부문과 공업부문간의 유기적 연관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중국에는 농촌과 도시라는 상위의 二部門經濟와 농촌내의 하위의 二部門經濟가 층을 이루는 ‘二階層二部門經濟’의 발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⁵

또 중국정부 차원에서도 중국 농촌경제 및 경제전체의 발전메카니즘 차

⁵ 渡邊利夫, “中國に生成する新しい發展メカニズム-現代中國經濟發展論序說-”, 渡邊利夫 編, 「中國の經濟改革と新發展メカニズム」, 東洋經濟新報社, 1991, pp. 26~27. 그 밖에 渡邊利夫, “中國の經濟發展メカニズム”, 「中國の産業構造と經濟發展戰略」, 日中經濟協會, 1990; 栗林純夫, “二階層二重經濟發展戰略と鄉鎮企業”, 「中國の産業構造と經濟發展戰略」, 日中經濟協會, 1990; 栗林純夫, “鄉鎮企をどう理論化するか”, 渡邊利夫 編, 「中國の經濟改革と新發展メカニズム」, 東洋經濟新報社, 1991; 加藤弘之, “中國農村の過剩勞動力をめぐる問題”, 「經濟學研究年報」, No. 33, 神戸大, 1986; 加藤弘之, “過剩勞動力の解消は可能か”, 渡邊利夫 編, 「中國の經濟改革と新發展メカニズム」, 東洋經濟新報社, 1991; 嚴善平, 「中國經濟の成長と構造」, 勁草書房, 1992도 유사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원에서 향진기업의 역할이 검토된 바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王建의 ‘國際大循環經濟發展戰略’이다. 이의 요점은 농업의 과잉노동력을 비농업부문으로 이동하여 노동집약적 제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한 수출지향형 공업화를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흡수를 통하여 농촌의 노동력과 임을 해소하고 수출을 통해 얻은 외화자원을 토대로 기초소재산업·인프라 부문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⁶ 이어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 趙紫陽은 ‘沿海地域經濟發展戰略’을 제기하였다. 여기에서는 王建의 논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노동집약적 제품 생산을 연해지역의 향진기업이 담당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⁷

그러나 향진기업 발전에 대하여 Lewis모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도 존재한다. 王建·趙紫陽 구상은 1989년 6월의 天安門사태를 계기로 한 趙紫陽의 실각, 이 구상의 수혜대상이 아닌 내륙지역, 국영 중공업부문의 완강한 반대 등으로 정부가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없었다. 또 실제로 향진기업에 취업했던 노동력의 거의 전부가 이농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겸업 농가가 영세분산화된 농지의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개혁 이후 향진기업 발전을 二階層二部門經濟發展으로 파악하는 논의의 현실성을 평가하고 현단계 중국 농촌경제발전의 성격을 구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향진기업의 발전은 중국농촌의 과잉인구를 해소하는 데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둘째, 과연 향진기업과 농업생산 사이에 종래의 농·공간 이분성을 뛰어넘은 유기적 연관성이 형성되었는가?

2. 향진기업 발전의 고용효과

2.1. 중국 농촌의 과잉노동력 추계

⁶ 「經濟日報」, 1988. 1. 5.

⁷ 「人民日報」, 1988. 1. 23.

Lewis 모형에 의하면 한계생산력이 零 또는 陰인 전통부문의 노동력이 최저생존비로 근대부문에 무제한적으로 공급되는데, 이러한 노동력을 잉여 노동력(redundant labor)으로 개념화하였다. 과잉노동력(surplus labor) 또는 위장실업(disguised unemployment)과 같은 개념은 한계생산력이 매우 낮거나 최저생존비 균형상태에 있는 전통부문·후진부문의 노동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통상적인 개념이다. 그러면 중국농촌에 이러한 노동력은 얼마나 존재하는가? 향진기업의 발전에 따라 농촌의 과잉노동력은 해소되고 있는가?

과잉노동력의 추계방법에는 한계노동력·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방법, 노동공급 주체의 희망취업시간과 실제취업시간을 비교하는 방법, 최적노동투입과 실제노동투입을 비교하는 방법, 최적인구밀도와 실제 인구밀도를 비교하는 방법, 표준소득을 설정하여 소정의 경지에 표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구나 실제인구를 비교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다. 본연구에서는 최적노동투입 접근법을 사용하여 과잉노동력을 추계하기로 한다.

추계식은 다음과 같다.

$$G = L - \frac{S}{X}$$

G : 노동력과잉량(人)

L : 농업노동력수(人)

S : 총경지면적(畝)

X : 노동력1인당 경작가능면적(畝/人)

이 때 노동력 1인당 경작가능면적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도출된다.

$$X = \frac{W}{D}$$

W : 노동력1인당 연간가능 노동일수(노동일/人)

D : 단위당 경지면적에 필요한 노동일수(노동일/畝)

여기서, D를 32.79 노동일/畝 로, W를 300 노동일/人으로 할 경우 노동력 1인당 경작가능면적 X는 9.15 畝/人가 된다. 江西, 安徽, 河南省의 개별

조사에 의하면 3개 지구의 X의 단순평균치가 7.7 畝/人이다. 이들 지역의 기계화 수준과 다모작지수가 전국평균보다 낮음을 감안하여 전국평균치는 이들 지역보다 29% 높다고 가정하면 노동력 1인당 경작가능면적 X는 9.93 畝/人가 된다.⁸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동력 1인당 경작가능면적이 일단 개혁 이후 일정하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생산책임제의 도입으로 경지가 무수히 세분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에 광범하게 진행중이던 기계화와 생산기반 투자가 중단

표 6-1 경지에 대한 과잉노동력 수

연 도	X=9.15 의 경우		X=9.93 의 경우	
	(만 人)	(%)	(만 人)	(%)
1978	12080	42.6	13360	47.1
1980	12901	44.2	14180	48.6
1984	14885	48.1	16145	52.2
1985	15310	49.1	16557	53.1
1986	15536	49.6	16775	53.6
1987	16001	50.4	17235	54.3
1988	16616	51.4	17848	55.2
1989	17603	52.9	18834	56.6
1990	18493	54.1	19725	57.7
1991	19335	55.2	20567	58.7
1992	19211	55.1	20440	58.6

자료: 「中國統計年鑑」, 각연도판 加藤弘之, “過剩労働力の解消は可能か”, 「中國の經濟改革と新發展メカニズム」, 東洋經濟新報社, 1991 을 토대로 필자 계산

⁸ 加藤弘之, “過剩労働力の解消は可能か”, 「中國の經濟改革と新發展メカニズム」, 東洋經濟新報社, 1991, p. 105.

된 사례가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이 가정이 결코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Hinton은 생산책임제의 실시가 청부농민의 수입을 증가시키기는 하였으나 근대사회의 토대가 되는 농업의 규모와 조직을 일순간에 해체하고 말았다는 의미에서, 농촌개혁의 결과는 “一步前進, 二步後退”(One Step Forward, Two Step Backward)였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⁹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혁 이후 중국농촌의 과잉노동력을 추계한 결과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농촌에는 경지에 대해 50% 전후의 과잉노동력이 존재하며, 개혁 이후 과잉노동력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노동력의 증가, 경지면적의 감소, 노동력 1인당 경작가능면적의 고정에 따른 직접적 결과이다. 즉 농촌내 비농업부문의 발전으로 경지면적은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비농업부문에 취업한 노동력도 상당부분 농업부문에 계속 체류함으로써 농업노동력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2. 향진기업의 성장과 고용을 규정한 요인

그러면 향진기업의 성장을 규정한 요인은 무엇인가? 현단계에 있어 향진기업은 풍부한 과잉노동력을 토대로 수출시장을 지향하여 발전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고찰하기 위하여 티벳(西藏)을 제외한 29개 省·市·自治區의 1991~92년의 횡단면자료를 토대로 향진기업의 종업원 1인당 收入을 자본집약도, 농촌노동력 과잉의 정도, 해외시장에의 접근도, 임금수준 등 변수에 대해 회귀분석하기로 한다. 이 때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Y = a_0 + a_1X_1 + a_2X_2 + a_3X_3 + a_4X_4$$

Y : 종업원 1인당 수입액 (萬元/人)

X₁ : 종업원 1인당 고정자산원치 (萬元/人)

X₂ : 농촌노동력 1인당 경지면적 (ha)

X₃ : 총수입액중 수출액의 비중

X₄ : 임금수준 (= 임금총액/종업원수, 萬元/人)

⁹ Hinton, W., *The Great Reversal: The Privatization of China, 1978~1989*, New York, 1990, pp. 14~24.

회귀계수의 추정결과는 (표 6-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향진기업 收入(Y)은 자본집약도(X_1)와 밀접한 陽(+)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노동력 과잉의 정도(X_2), 해외시장에의 접근도(X_3)와는 예상했던 만큼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향진기업이 연해지역의 수출지향적, 노동집약적 가공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자본규모가 발전의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향진기업 收入(Y)과 임금수준(X_4)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설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중국의 노동시장이 아직 신고전파적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에는 향진기업의 고용량을 결정하는 여러가지 요인을 살펴보기로 하자. 자본규모, 임금수준, 노동력공급의 풀(pool)이 고용의 정도를 규정한다고 할 때, 다음과 같이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표 6-2 향진기업의 성장요인

구 분	a_1	a_2	a_3	a_4	a_0	R^2
1991	2.534 (5.421)	-0.192 (-1.210)	0.107 (0.078)	0.618 (0.335)	0.091 (0.362)	0.785
1992	2.571 (4.870)	-0.180 (-0.915)	2.862 (1.679)	-0.338 (-0.190)	0.237 (0.719)	0.820
1991 ~92	2.724 (7.616)	-0.200 (-1.557)	0.892 (0.831)	0.558 (0.451)	0.062 (0.207)	0.794

주: ()내 값은 t값임.
자료: 필자 추정.

$$\ln TVCL = b_0 + b_1 \ln TVCK + b_2 \ln TVCW + b_3 \ln ALPC + b_4 \ln CL$$

- TVCL : 향진기업 노동력 수 (人)
 TVCK : 향진기업 고정자산원치(만元)
 TVCW : 향진기업 임금수준(=임금총액/노동력수, 萬元)
 ALPC : 농촌노동력 1인당 경지면적(*a*)
 CL : 파종면적 (*ha*)

29개 省·市·自治區의 1991~92년의 횡단면자료를 토대로 각 변수의 회귀계수를 추정한 결과, 변수의 절대값보다는 로그값 간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변수간에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임금수준(TVCW)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장요인을 분석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이다. 반면, 향진기업 고정자산원치(TVCK), 농촌노동력 1인당 경지면적(ALPC), 파종면적(CL)의 회귀계수는 향진기업 고용노동력(TVCL) 변수의 변동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3 참조).

그 중에서도 향진기업 고정자산원치(TVCK)는 향진기업의 노동력고용(TVCL)을 결정하는 매우 강력한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촌노동력 1인당 경지면적(ALPC)의 회귀계수의 부호는 陰(-)으로써 농촌노동력 과잉의 정도가 클수록 향진기업 노동력 수가 증가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향진기업 노동력 수와 파종면적 사이에는 陽(+)의 관계가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노동력 과잉의 정도가 클수록 향진기업 노동력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향진기업이 동남부 및 연해의 선진농업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요컨대 향진기업의 노동력고용과 농촌노동력 과잉의 정도 사이에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분명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본규모가 고용규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표 6-3 향진기업의 고용요인

구 분	b ₁	b ₂	b ₃	b ₄	b ₀	R ²
1991	0.667 (17.235)	-0.285 (-1.899)	-0.202 (-4.704)	0.415 (9.843)	2.038 (33.009)	0.986
1992	0.646 (16.846)	0.225 (-1.685)	-0.207 (-4.806)	0.431 (10.931)	1.986 (31.799)	0.986
1991 ~92	0.671 (23.384)	-0.197 (-1.887)	-0.195 (-6.044)	0.406 (13.474)	1.794 (27.087)	0.982

주: ()내 값은 t값임.
자료: 필자 추정.

3. 향진기업 발전과 부문간 관련성

3.1 개혁 이후 농공간 관계의 분석

개혁 이전 중국에는 스탈린적 전략(1953~57), 大躍進전략(1958~59), 농업우선전략(1962~66)이라는 3개의 대체적인 경제발전전략이 존재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스탈린적 전략이 農·工間 二分性(dichotomy)으로 특징지워지는 ‘一階層二部門經濟’의 구조를 규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제1차5개년계획기(1953~57)에는 중공업위주의 급속한 공업화·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高率의 저축·투자율의 실현, 농업의 희생에 기초한 공업화, 농업 및 기타부문의 제도적 변혁, 자본집약적 공업기술의 편향적 선택 등과 같은 정책수단을 채택하였다.¹⁰

¹⁰ Eckstein, Alexander, *China's Economic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石川滋監譯, 「中國の經濟革命」, 東京大學出版會, 1980, pp. 6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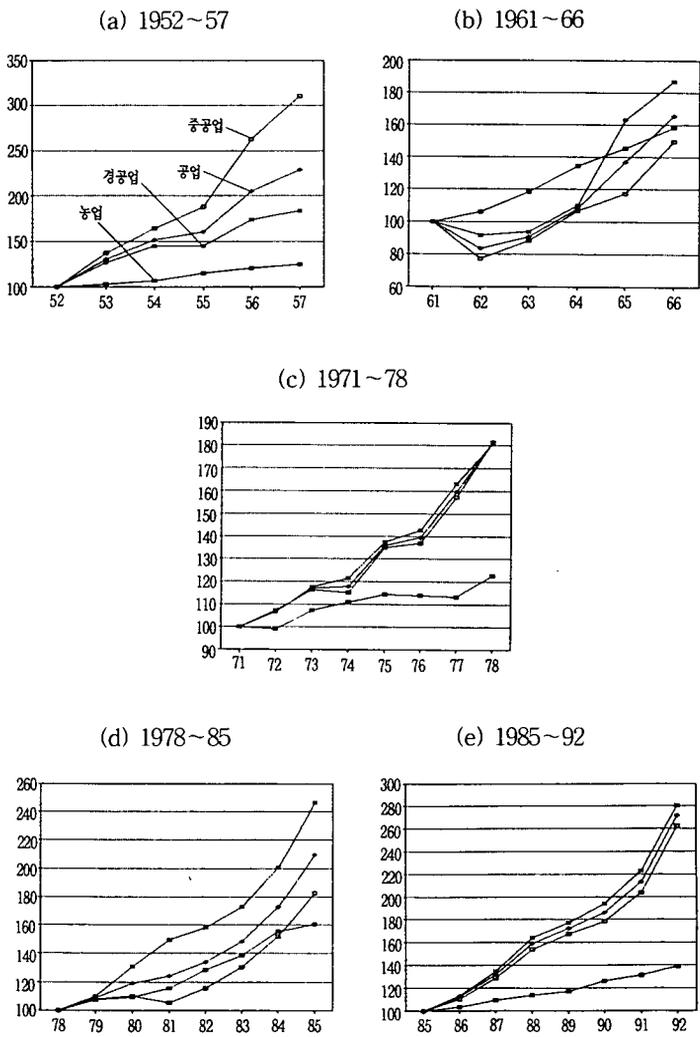
한편 Tang(1967, 1984)은 舊소련과 중국의 經濟發展 戰略과 농업의 역할을 논하면서, 공업화초기 농업정책이 舊소련에서는 ‘收奪的’(extractive)으로, 중국에서는 ‘發展的’(developmental)으로 전개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국은 농업의 제약으로부터 공업성장 및 투자를 자유롭게 하려는 공통의 목표를 가졌으나, 舊소련의 경우 공업화 초기에 농업잉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공업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이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었으나, 중국의 경우 초기의 농업잉여가 적어 농업부문의 발전이 공업부문의 발전을 규정하였다는 것이다.¹¹

그러나 (그림 6-2)에서 농업·공업·경공업·중공업의 조산출가치 지수의 동향을 살펴볼 때, 1952~57년, 1971~78년에는 농·공간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다만 1961~66년에 농·공간 격차의 확대경향이 중단되었을 뿐이다. 구조화된 농·공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中全會에서는 “농업생산의 회복과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그 이후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과연 개혁 이후 ‘二階層二部門經濟’의 발전으로 농·공간 이분성이 극복되고 부문간 유기적 관련성이 형성되고 있는가? 개혁 이후 농업과 공업, 농업과 향진기업이 협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1978년 직후 비약적인 농업발전으로 농·공간 격차가 축소되고 농업성장이 중공업성장을 앞섰으나, 1984년 이후 공업성장이 농업성장을 다시 추월하였다. 그러면 개혁 이후 농업성장과 공업성장간에는 어떠한 관련이 존재하는가? 이하에서는 Granger(1969)의 因果關係(causality) 定義를 이용하여 이 문제를 검증하기로 한다.

¹¹ Tang, Anthony, “Agriculture in the Industrialization of Communist China and the Soviet Union,” *Journal of Farm Economics*, 49.5, December 1967, pp. 1,119~1,122; Tang, Anthony, *An Analy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of Agriculture in Mainland China, 1952~1980*, Taipei; Chung-Hwa Institute on for Economic Research, 1984, pp. 36~38.

그림 6-2 농업·공업·경공업·중공업의 조산출가치지수



자료: 「中國統計年鑑」, 각연도.

Granger에 의하면,

$$\sigma^2(X_t | \bar{U}) < \sigma^2(X_t | \overline{U-Y})$$

\bar{U} : (t-1)기까지의 모든 정보
 $\overline{U-Y}$: (t-1)기까지의 Y를 제외한 모든 정보

이면 Y에서 X로 因果關係가 존재한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 모든 정보의 사용은 불가능하므로,

$$\sigma^2(X_t | \bar{X}, \bar{Y}) < \sigma^2(X_t | \bar{X})$$

이면, Y에서 X로 因果關係가 존재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계산과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線形模型을 가정하면,

$$X_t = \sum_j a_j X_{t-j} + \sum_j b_j Y_{t-j} + \varepsilon_t$$

$$Y_t = \sum_j c_j X_{t-j} + \sum_j d_j Y_{t-j} + \eta_t$$

$$\text{단 } E(\varepsilon_t \cdot \varepsilon_s) = E(\eta_t \cdot \eta_s) = E(\varepsilon_t \cdot \eta_t) = 0$$

에서 b_j 가 0이 아니면 Y에서 X로 因果關係가 존재하며, c_j 가 0이 아니면 X에서 Y로 因果關係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¹²

이러한 Granger의 因果關係 定義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세워 보자.

$$\begin{pmatrix} A_t \\ M_t \end{pmatrix} = \begin{pmatrix} a \\ c \end{pmatrix} + \begin{pmatrix} b_1 & b_2 \\ d_1 & d_2 \end{pmatrix} \begin{pmatrix} A_{t-1} \\ M_{t-1} \end{pmatrix}$$

A_t : t 기의 농업성장률

M_t : t 기의 공업성장률

A_{t-1} : t-1 기의 농업성장률

M_{t-1} : t-1 기의 공업성장률

¹² Granger, C.W.J., "Investigating Causal Relations by Econometric Models and Cross-spectral Methods," *Econometrica*, 1969, pp. 424~38; Geweke, J., "Causality, Exogeneity, and Inference," in W.Hildenbrand, ed., *Advance s in Econometr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 210.

여기에서 회귀식의 독립변수로서 (t-2)기, (t-3)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t-1)기만을 설정한 것은, 첫째, 농업의 생산과 소비의 週期가 대체로 1년이므로 2~3년 전의 생산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고, 둘째, 회귀식에 (t-2)기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추정결과의 신뢰도가 오히려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1978~92년의 농업 및 공업 성장률 간에, 또 농업 및 공업 성장률의 순위(rank) 간에 각각 Granger Causality 검정을 행한 결과를 (표 6-4)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농업성장 → 공업성장”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기각되었다. “공업성장 → 농업성장”의 인과관계 역시 5% 유의수준에서는 기각할 수 있으나, 10% 유의수준에서는 기각할 수 없었다. 그러면 1989년 6·4 天安門사태로 1989년말 이후 정책변화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보자. 1991~92년

표 6-4 개혁 이후 농·공업 성장률간 인과관계의 분석결과(1978~92)

구 분	b ₁	b ₂	a	R ²
성장률을 변수로 이용한 경우	-0.031 (-0.117)	-0.299 (-1.852)	9.857 (3.301)	0.239
성장률 순위를 변수로 이용한 경우	0.008 (0.030)	-0.534 (-1.929)	12.834 (3.111)	0.258
구 분	d ₁	d ₂	c	R ²
성장률을 변수로 이용한 경우	0.557 (0.986)	0.479 (1.375)	4.087 (0.634)	0.187
성장률 순위를 변수로 이용한 경우	0.378 (1.481)	0.505 (1.787)	0.724 (0.172)	0.299

주: ()내 값은 t값임.
자료: 필자 추정.

표 6-5 개혁 이후 농·공업 성장률간 인과관계의 분석결과(1978~90)

구 분	b ₁	b ₂	a	R ²
추 정 치	0.024 (0.087)	-0.357 (-2.114)	10.462 (3.468)	0.036
구 분	d ₁	d ₂	c	R ²
추 정 치	0.798 (1.825)	0.437 (1.603)	1.716 (0.352)	0.375

주: ()내 값은 t값임.
자료: 필자 추정.

의 데이터를 제거한 후 1979~90년의 농업 및 공업 성장률 간에 Granger Causality 검정을 행한 결과는 (표 6-5)와 같다. 여기에서는 “공업성장 → 농업성장”의 인과관계를 5% 유의수준에서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향진기업 성장과 농업 성장간의 관련성

다음으로는 농촌내 향진기업부문과 농업부문 사이에 과연 유기적 관련성이 형성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Granger(1969)의 因果關係(causality) 검정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이 때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begin{pmatrix} A_t \\ T_t \end{pmatrix} = \begin{pmatrix} \alpha \\ \gamma \end{pmatrix} + \begin{pmatrix} \beta_1 & \beta_2 \\ \delta_1 & \delta_2 \end{pmatrix} \begin{pmatrix} A_{t-1} \\ T_{t-1} \end{pmatrix}$$

A_t: t 기의 농업성장률

T_t: t 기의 향진기업성장률

A_{t-1}: t-1 기의 농업성장률

T_{t-1}: t-1 기의 향진기업성장률

1978~92년의 농업 및 향진기업 성장률 간에, 또 농업 및 향진기업 성장

률의 순위(rank) 간에 각각 Granger Causality 검정을 행한 결과가 (표6-6)에 제시되었다. 이에 의하면 “향진기업성장 → 농업성장”의 인과관계는 성장률을 변수로 할 때에나 성장률 순위를 변수로 할 때에나 모두 기각되었다. 즉 향진기업 발전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효과는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농업성장 → 향진기업성장”의 인과관계는 성장률을 변수로 할 경우 기각되었으나, 성장률의 순위를 변수로 할 경우에만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계열자료 분석에 의하면 향진기업 발전에 농업발전이 제약조건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불분명한 것이다.

표 6-6 개혁 이후 농업·향진기업 성장률간 인과관계의 분석결과(1)

구 분	β_1	β_2	α	R ²
성장률을 변수로 이용한 경우	0.064 (0.230)	-0.080 (-1.651)	7.749 (2.460)	0.214
성장률 순위를 변 수로 이용한 경우	-0.072 (-0.254)	-0.487 (-1.647)	12.058 (2.901)	0.214
구 분	δ_1	δ_2	γ	R ²
성장률을 변수로 이용한 경우	1.869 (1.166)	0.375 (1.348)	9.908 (0.548)	0.262
성장률 순위를 변 수로 이용한 경우	0.513 (2.312)	0.497 (2.149)	-0.731 (-0.224)	0.455

주: ()내 값은 t값임.
자료: 필자 추정.

표 6-7 개혁 이후 농업·향진기업 성장률간 인과관계의 분석결과(2)

구 분	β_1	β_2	α	R^2
추 정 치	-0.435 (-3.026)	0.015 (0.193)	7.948 (1.758)	0.262
구 분	δ_1	δ_2	γ	R^2
추 정 치	-0.332 (-0.574)	0.881 (2.805)	30.284 (1.669)	0.242

주: ()내 값은 t값임.
자료: 필자 추정.

그러나 티벳(西藏)을 제외한 29개 省·市·自治區의 1991~92년 농업 및 향진기업 성장률간에 Granger Causality 검정을 행한 (표 6-7)의 결과에서는 양자간의 인과관계를 모두 기각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향진기업 발전은 농업부문에 대하여 뚜렷한 파급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며, 농업발전을 토대로 하여 향진기업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향진기업부문이 농촌내 농업부문과 별 관련없이 고립된 '섬'으로 발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상술한 분석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농촌의 과잉노동력은 아직도 상당수준 존재하며, 향진기업의 노동력 고용과 농촌의 노동력 과잉 정도 사이에도 흔히 알려진 것처럼 분명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현단계 중국경제에는 "공업성장 → 농업성장"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있으나, 향진기업 및 농업생산간에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향진기업에 의해 농업과 근대산업간의 二元的 순환이 돌파되기 시작하여 상호 교류·촉진하는 국면에 돌입하였다는 '二部門經濟發展論'의 논의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개혁후에도 종래의 '一階層二部

門經濟'의 構造的 성격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향진기업은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영기업에 비하면 향진기업이 역동적인 편이며,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인구압력의 완화, 농촌소득의 보충을 위한 별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稅源 확대를 위해 향진기업을 강력하게 지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부 표 6-1 농업·공업·경공업·중공업의 조산출가치지수

구 분	농 업	공 업	경공업	중공업	농 업	공 업	경공업	중공업
195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53	103.1	130.3	126.7	136.9	103.1	130.3	126.7	136.9
1954	106.6	151.6	144.8	163.9	106.6	151.6	144.8	163.9
1955	114.7	160.1	144.8	187.7	114.7	160.1	144.8	187.7
1956	120.5	205.0	173.3	262.3	120.5	205.0	173.3	262.3
1957	124.8	228.6	183.3	310.7	124.8	228.6	183.3	310.7
1961	94.1	330.8	211.2	553.5	100.0	100.0	100.0	100.0
1962	99.9	276.0	193.5	428.3	106.2	83.4	91.6	77.4
1963	111.5	299.4	198.0	487.6	118.5	90.5	93.8	88.1
1964	126.7	358.1	233.2	590.2	134.6	108.3	110.4	106.6
1965	137.1	452.6	344.5	650.5	145.7	136.8	163.1	117.5
1966	149.0	547.4	394.4	829.4	158.3	165.5	186.7	149.8
1971	162.9	915.3	556.1	1585.3	100.0	100.0	100.0	100.0
1972	161.2	978.2	592.5	1698.3	99.0	106.9	106.5	107.1
1973	174.5	1071.4	654.6	1846.6	107.1	117.1	117.7	116.5
1974	180.7	1077.8	675.0	1823.8	110.9	117.8	121.4	115.0
1975	186.3	1244.8	764.4	2137.7	114.4	136.0	137.5	134.8
1976	185.5	1274.9	791.7	2171.9	113.9	139.3	142.4	137.0
1977	184.8	1461.1	906.7	2490.3	113.4	159.6	163.0	157.1
1978	199.8	1659.1	1005.2	2879.5	122.7	181.3	180.8	181.6
1978	199.8	1659.1	1005.2	2879.5	100.0	100.0	100.0	100.0
1979	214.8	1805.3	1105.3	3108.9	107.5	108.8	110.0	108.0
1980	217.9	1972.3	1314.6	3168.3	109.1	118.9	130.8	110.0
1981	230.5	2057.2	1502.5	3024.5	115.4	124.0	149.5	105.0
1982	256.5	2217.8	1589.8	3324.6	128.4	133.7	158.2	115.5
1983	276.5	2465.9	1738.1	3759.5	138.4	148.6	172.9	130.6
1984	310.4	2867.4	2018.1	4378.1	155.4	172.8	200.8	152.0
1985	321.0	3480.9	2475.4	5260.3	160.7	209.8	246.3	182.7

부표 6-1(계속)

구 분	농 업	공 업	경공업	중공업	농 업	공 업	경공업	중공업
1985	321.0	3480.9	2475.4	5260.3	100.0	100.0	100.0	100.0
1986	331.8	3887.0	2799.9	5799.1	103.4	111.7	113.1	110.2
1987	351.1	4574.7	3321.8	6769.6	109.4	131.4	134.2	128.7
1988	364.9	5525.6	4055.7	8085.5	113.7	158.7	163.8	153.7
1989	376.2	5997.3	4388.2	8805.7	117.2	172.3	177.3	167.4
1990	404.9	6462.9	4793.1	9353.7	126.1	185.7	193.6	177.8
1991	419.9	7419.4	5512.0	10710.0	130.8	213.1	222.7	203.6
1992	446.6	9459.7	6950.0	13815.9	139.1	271.8	280.8	262.6

자료: 「中國統計年鑑」, 각연도.

제 7 장

향진기업 발전의 저해요인과 유리한 여건

1. 향진기업 발전의 저해요인

1.1. 소유제도상의 한계

향진기업의 발전 또는 한계와 관련하여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지적될 수 있다. 어떤 한 요인만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면 자연자원의 부존상태, 노동력의 다과와 질적 수준, 생산의 기술수준, 자금공급의 여력, 임금과 자본의 상대가격, 정보체계의 발전정도, 시장형태, 지역과 지리적 조건 등이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수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중국의 농촌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생산수단의 소유제도와 관련이 있다.

어떤 형태의 향진기업 소유제가 형성되느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구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경제환경과 농촌내부의 제약조건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형성된 소유제도는 앞으로의 발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구체적인 예가 江蘇省의 대표

적인 두 향진기업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江蘇省의 향진기업들은 전국 평균보다는 비교적 선진적인 기업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나의 유형으로 구별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각기 다른 소유제 구조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수준도 차이가 있으며, 이익분배 형식이나 도농간의 관계도 서로 다르다. 제2장에서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현존하는 주요한 두 유형은 경제발전 지역에서의 蘇南모델과 낙후지역의 耿車모델이다.

전자의 주요한 특징은 집체경제 위주로 선진적인 기술을 이용하고 있고, 농업부문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현대 공업부문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자의 주요한 특징은 모델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개체경제가 중심이 되었고, 현재도 가내공업 형태가 주도적 위치에 있으며, 현대적 공업생산부문은 형성중에 있다. 이들 두 지역의 생산수준은 적어도 십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즉 耿車모델에 속하는 향진기업은 십여년전 蘇南지역의 향진기업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兩者의 소유제도를 비교해 보면 전자는 집체경제 위주로서 공유제가 절대적 위치를 점하고 있고, 후자는 개체경제가 절대적 우위를 나타내면서 공유제와 개체 사유제가 병존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물론 분명한 원인이 있다. 향진기업이 설립되던 초기 단계에서 耿車鄉을 포함하는 蘇北지역의 농민들은 蘇南지역의 향진기업에 대해 열심히 학습하였고, 실제로 유사한 형태의 기업을 많이 설립했다. 그러나 蘇北지역과 蘇南지역의 농촌경제는 상당히 다른 조건에 처해 있었고, 그 결과 蘇北지역의 대부분 기업은 도산하고 말았다. 이에 반하여 당초부터 농가단위의 경영 혹은 몇몇 농가간의 연합경영으로 시작한 향진기업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유지되었다. 이것은 향진기업의 소유제 구조가 향진기업의 발전과 한계를 결정짓는 객관적 조건으로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의미이다. 즉 기술수준의 향상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 정부의 지원과 자금동원 능력, 시장개척상의 광범위성 등은 분명히 집체소유가 유리하다. 민간부문의 경제력이 미약한 상황에서는 집체경제의 유리성이 더욱 클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지속성이라는 면에서도 집체경제가 유리해야 한다. 그

러나 蘇北지역의 경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경제환경에 따라서는, 비록 규모도 작고 자금동원 여력이나 시장개척력이 떨어지는 개체소유의 기업이 지속성이 강한 경우도 있다. 이것은 개체소유의 기업이 주변의 경제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중국적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소유구조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든가 아니면 불리하다고 단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자본주의적 시장구조로의 이행이 가속화한다면 현재의 공적소유는 기업발전상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공적소유제하의 대규모 기업들은 효율성의 제고가 어렵고 장기적으로 시장변화에 대한 탄력적 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200여년의 자본주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1992년 현재 향진기업 총산출액의 67%가 鄉과 村의 집체소유제하에서 생산된 것이다. 연간 10%이상의 고도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개방분위기가 확산되는 한 공적소유제 중심의 한계는 분명해질 것이다.

소유제도와 관련하여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그 불안정성에 있다. 1989년의 天安門 사태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중국사회가 완전한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다. 사회주의적 공평성이 강조되고 현재의 개혁정책이 비판받으면서 사적 소유제도의 확산이 제한될 수도 있다. 향진기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최근 四川省 등지에서 간간히 농민소요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개혁 분위기하에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은연중 기업가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소유권의 불확실성도 최근에는 향진기업의 발전과정에서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향진기업의 발전초기에는 기업의 소유권 귀속이 명확했다. “현지의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투자하고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또 비교적 소규모였기 때문에 소유권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점은 없었다.”¹ 국무원에서 반포한 「中華人民共和國 鄉村集體所有制企業條例」에서도 “기업의

¹ 董克新, “鄉村企業產權制度的缺陷及其完善”, 「中國農村經濟」, 1993年 第8期, 1993 8. p. 34.

재산은 기업을 경영하는 鄉 또는 村에 속하는 전체 농민의 집단적 소유로 한다”고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발전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의 공급에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소유권 문제는 불확실해지기 시작했다. “최근들어 향진기업의 자금공급원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일 경우 鄉村의 행정기관이 담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향촌의 행정기관이 생산의 내용, 자금조달, 인사문제 등에 간섭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은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기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매우 모호하게 한다.”²

또 외부 기업가의 투자와 대출기관의 간섭도 소유권의 불명확성을 가져온다. 이 결과 “초기부터 향진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들의 재투자 행위와 종사자들의 이익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불분명한 소유권 제도가 이제 건전한 향진기업의 발전을 더욱 혼란에 빠뜨린다.”³ 소유제도의 불안정성, 소유권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향후 향진기업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1.2. 소규모성

대부분의 향진기업은 아직도 기술수준은 낮으며 노동집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낮은 기술수준이 향진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 향진기업의 설립과정을 보면 도시지역의 도태된 기업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재설립된 경우가 많다. 참여하는 기술자들도 고급 기술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향진기업의 발전 초기단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 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향진기업수의 신장세가 두드러졌던 1978~84년기간 중 전국 향진기업의 고정자산 증가액은 345억 원인데, 이 중 중고기계를 구입하여 설비투자를 한 경우가 120~155억 원으로 추산되어 전체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² 董克新, 앞의 논문, p. 34.

³ 董克新, 앞의 논문, p. 34.

것은 도시지역의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과 비교하여 엄연한 기술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향진기업의 발전이 이미 십수년에 이르고 있으나 양적 팽창에만 머무르고 있고, 질적 개선에는 크게 미흡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향진기업의 발전초기 발전의 원동력은, 절대적 빈곤상태에 있는 농촌지역의 과다한 잉여노동력이 빈곤탈피라는 염원으로 분발하여 각종 생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 있다. 당시에는 자본과 고급기술이 결핍된 상황이기도 하지만 잉여노동력의 흡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따라서 구태여 노동절약적인 고급기술에 집착할 필요가 없었다. 대량으로 존재하는 값싼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만 하면 가장 시급한 과제가 해결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자연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보편화될 수 밖에 없었다.

1992년도 향진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1인당 고정자산액이 1500원 미만이었다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이러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력에만 의존하다 보니 기업의 규모가 반드시 커야 할 필요도 적어지고 따라서 소규모의 분산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1992년 기준 1개기업당 평균 종업원수는 5.1인, 산출액은 8.4만원, 총수입은 7.7만원, 순이익은 0.5만원, 고정자산 규모는 2.2만원 등이 향진기업의 소규모성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지표이다.

이같은 소규모성은 기업의 기술수준, 자금동원능력, 경영관리 등 많은 제약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자금공급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7-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집체소유 향진기업의 도산원인 중 자금부족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집체소유 기업은 개체소유 기업에 비해 대부분 규모도 크고 향진정부의 지원을 얻기도 용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공급상의 애로가 향진기업 발전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할 때 비교적 소규모의 개체기업은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이다. 실제로 (표 7-1)에서 개체기업의 경영상 애로 중 55.7%가 자금공급과 관련이 있다.

소규모 향진기업은 자금공급상의 애로를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浙江省 紹興鄉의 1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부족의 해결방법을 문

의한 결과 57.6%에 해당하는 기업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했다고 응답했다.⁴ “이것은 향진기업에 출자하면서 해당 기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의미이다(以資帶勞). 즉 기업이 각 개인에게 취업의 대가로 출자를 받아서 자금부족을 해결는 방법이며, 자금시장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가장 적은 부담으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개체소유 기업에선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집체소유 기업의 경우 경영상의 두번째 애로사항은 관리미숙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여러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개체소유 기업의 경우 기업관리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소규모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같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비교적 규모가 큰 집체소유의 경우 종사자들의 교육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1992년의 자료에 의하면 鄉村집체소유 기업에 종사하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유자는 모두 29.3만명이다. 학력에 관계없이 전문 기술자로 대우받고 있는 기능사는 187만명이다.⁵ 이 숫자는 1983~92년 기간 중 전자의 경우 58.7%, 후자의 경우 69.5% 증가된 것이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 총수와 비교해 보면 전후자 각각 전체의 0.6% 및 3.5%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향은 江西省吉安地區의 현지조사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근로자의 교육과 기술수준은 매우 낮다. 全地區內 81,610명의 향진기업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바에 의하면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전체의 0.1%,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는 전체의 14.8%, 중학 이상 졸업자는 43.2%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학교만 졸업했거나 문맹자가 전체의 41.9%였다. 초보적인 기술훈련을 받은 직공은 2,314명으로 전체의 2.8%였고, 중등 이상의 전문적인 기술훈련을 받은 직공은 232명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했다.”⁶

⁴ 張忠根, 林堅, 張校軍, “論鄉鎮企業經營行爲的產生機制和特征”, 「農村經濟與社會」, 1991年 第1期, 1991. 1. p. 25.

⁵ 기능사의 경우도 대부분 고학력자이거나 장기간의 종사로 인한 완전한 숙련공들에게서 가능하다.

⁶ 吉安地區 農業銀行 鄉鎮企業課題組, “吉安地區鄉鎮企業的調查”, 「農村經濟與社會」, 1992年 第6期, 1992. 6. p. 6.

표 7-1 향진기업 경영난의 원인

단위: %

원인별	전체	자금부족	관리미숙	판로미개척	원료,에너지부족	기타
집체소유	100.0	25.0	16.6	12.1	13.5	31.6
개체소유	100.0	55.7	-	-	20.6	23.7

자료: 全聖興, 「中國의 農村工業化와 鄉鎮社會의 變化」, 西江大 博士學位 논문, 1993, pp. 86~87에서 재구성.

비록 중국 정부에서 고급 관리자 양성과 숙련공 훈련을 강조하고 있고, 제8차 경제개발계획(1991~95)에서 수립한 인재훈련계획을 1992년에 앞당겨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⁷ 아직은 고급인재와 숙련공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현실이 기업관리상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것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업이 대규모화 할려고 하는 것은 대규모 생산에서 오는 유리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자금공급원과 우수한 관리자의 확보에 유리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평균비용을 하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正의 외부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앞으로 향진기업의 바람직한 발전은 당분간 소규모화의 탈피로써 가능할 것이고 이러한 추세가 어느 정도는 앞 장에서 향진기업의 기술구조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1.3. 지역간의 격차 심화

향진기업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바람직스럽지 못한 상황중의 하

⁷ 劉祚蔭, “全國鄉鎮企業培訓概況”, 「中國鄉鎮企業年鑑(1993)」, p. 261 참조.

나가 향진기업의 지역적 편중으로부터 야기되는 지역간의 불균형 현상이다. 향진기업의 지역에 따라 편중된 분포와 불균형적 성장은 지역간 부존 자원 및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일찍부터 蘇南지역을 비롯한 동남연해지역의 향진기업이 발달한 것도 주변에 대도시가 많고 외국과의 통상이 용이하며 인구가 밀집된 지역들이었기 때문이다. 시작단계에서 이미 고급기술을 흡수할 수 있었으며, 상당한 규모의 수준에 있었다. 선진적인 향진기업들은 대도시의 시장을 겨냥한 상품생산, 비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공업위주의 경영이 주류를 이루었다.

江蘇省 濰州市의 향진기업은 상해와 가까운 교통의 중심지로서 일용품 위주의 소규모적 생산과 운수업 등 3차산업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현지의 광물자원을 이용한 平定縣의 향진기업도 전형적인 자연자원 이용형으로 발전해 왔다. 이와 같이 향진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특정산업에 편중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역간의 불균형적 성장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지역간의 불균형은 크게 보아 동부의 선진지역과 동부 이외, 특히, 중서부의 낙후지역으로 대별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은 낙후지역에 대한 향진기업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의 동부와 중서부간 불균형적 발전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주로 향진기업의 발전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향진기업 발전상의 차이는 중서부지역의 경제발전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금세기내 ‘小康社會’⁸를 실현하려는 정책 목표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당의 十四大(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신에 의거하여 동부지역의 향진기업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동시에 중서부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의 향진기업은 획기적 발전을 모색하여 향후 지역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⁸ 중국정부가 2000년대까지 달성하려고 하는 경제수준상의 목표다. 1970년대말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800달러라는 수치가 제시되기도 했다. 辭典的 의미로는 부유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를 가질 정도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稍有資產不愁生活的家境).

야말로 11억 인민이 다같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또 중국적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과업을 달성하는 첩경이다.”⁹

지역간 향진기업 발전상의 차이를 가져 온 원인으로는 투자수준의 문제가 지적된다. “향진기업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는 중서부 합쳐서 동부지역의 1/3에 불과하다. 이것이 중서부지역의 향진기업이 동부지역의 향진기업에 비해 낙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다. . . . 중서부지역 향진기업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가 부족한 원인은 정부의 동부지역에 대한 투자위주 정책, 정부의 중서부 지역에 대한 재정금융지원의 미흡, 중서부지역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점, 지역적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흡인력이 부족한 점, 농민들의 수입이 적어서 2차 및 3차산업에 대한 투자여력이 미흡한 점, 기업자체의 관리능력 미숙 등이다.”¹⁰

본절에서는 전국의 30개 省급 행정구역을 선진 7개 지역과 낙후 7개지역을 구분하여 향진기업 종사자수와 산출액의 비중을 계산해 보았는데 그 결과가 다음의 (표 7-2)에 제시되어 있다.¹¹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경제내 선진 7개지역의 비중은 점증하고, 낙후 7개지역의 비중은 점감하고 있다. 1인당 노동생산력에 대한 지역간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역간 격차의 확대에 대한 우려는 周挺의 논문에서도 나타난다.¹² 周挺은 개혁의 전환점이 되었던 1983년과 개혁의 성과가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한 1989년을 비교했다. 연간 농업노동력의 생산력 격차는 1983년의 191원에서 1989년엔 417원으로 두배 이상 확대되었다. 농촌노동력의 1인당 향진

⁹ 田紀云, “解放思想 抓住機遇 加快中西部地區鄉鎮企業的發展”, 全國關於加快發展中西部地區鄉鎮企業經驗交流會上的講話, 1992. 11. 18.

¹⁰ 張泰, 陳陽, “中西部地區鄉鎮企業發展中資金問題研究”, 「中國鄉鎮企業年鑑」, 1993, pp. 307~308.

¹¹ 여기서 연도별, 항목별 선진 7개지역과 낙후 7개지역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전국 30개 省급 행정구역을 순위매김하여 계산한 것이다. 개략적으로 보면 선진 7개지역은 山東省과 江蘇省을 비롯한 동부지역의 각 省들이, 낙후 7개지역은 青海省과 貴州省을 비롯한 서남부의 각 省들이 포함되어 있다.

¹² 周挺, “特殊的現實與現實的選擇”, 「中國農村經濟」 第75期, 中國農村經濟編輯部, 1991. p. 3.

표 7-2 선진·낙후지역간의 중요 지표 비교

구 분		1980년	1990년	1992년
노동생산력 (元/人)	전국평균	2,230	10,342	16,622
	선진7개지역 평균	3,352	17,877	29,287
	낙후 7개지역 평균	1,323	4,653	7,023
산출액점유 비율(%)	선진 7개지역	59.9	61.3	63.3
	낙후 7개지역	1.8	1.7	1.5

자료: 「中國鄉鎮企業年鑑」(1993)에서 계산.

기업에서의 평균수입도 같은 기간중 248元에서 1,080元으로 4배 이상 확대되었다. 특히 후자는 중국의 농촌에서 향진기업으로 인한 소득의 지역간 격차를 대변해 주고 있다.

중국의 향진기업 발전의 한계와 관련하여 지역간의 격차 이외에 농촌내부의 계층간 격차가 크다는 사실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耕種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부문만 존재할 때는 농가간 또는 농촌내부에서의 계층간 분배상의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격차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진입한 향진기업은 대부분 농촌지역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산출물은 공산품이다. 일부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향진기업이 없지는 않으나 시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산품을 생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 기업은 농촌에서 전통적인 경종농가와와는 다른 경제행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통한 그들의 분배분도 일반 농민들보다는 많다.

그리하여 이들 기업이 농촌의 분화를 촉진하면서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대규모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지역간의 격차 못지 않게 농촌내부에서의 공평한 분배의 실현도 중요한 과제

로 대두된 것이 현실이다. 국가경제 또는 지방정부에 대한 향진기업의 긍정적인 기여가 올바르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향진기업의 발전이 농촌내부에서의 균등한 혜택으로 이어져 사회전체의 안정성 제고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하여 1992년 國務院은 「중서부지역 향진기업의 급속한 발전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전국 2/3의 인구가 상주하면서 1/3의 향진기업만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상기시키고 중점전략, 산업정책 등 아홉개 項의 조치를 시달했다.¹³

1.4. 생산요소의 비유동성

중국에 있어서 지역간 폐쇄성의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속성이 때로는 지역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국가 발전에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지나친 폐쇄성으로 상호 보완적 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¹⁴

본절에서는 향진기업과 관련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폐쇄성이 어떠한 영향

¹³ 상세한 내용: 생략하고 주요 지침만을 소개한다. ①인식제고와 영도력 강화를 중서부지역 향진기업 발전을 위한 중점전략으로 선택한다. ②중서부지역 경제발전에 요구되는 적절한 산업정책을 실행한다. ③각기 다른 형식의 향진기업간 공동발전을 적극 도모한다. ④고급 인재들을 향진기업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격려·지지한다. ⑤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업배치와 자원이용을 촉진한다. ⑥중서부지역의 시장기능을 적극 활성화한다. ⑦중서부지역 향진기업에 대한 자금 유입원을 다양하게 증가시킨다. ⑧동부지역과의 횡적 경제연합과 동농간 교류의 기회를 확대한다. ⑨관계부처는 상호 협조하여 중서부지역 향진기업의 새로운 발전에 기여토록 한다.

¹⁴ 지역간의 폐쇄성이 향진기업 발전에 때로는 유리하게 때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盧文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유리성으로는 ①농업부문에 축적된 자금의 이용, 토지와 공장부지의 용이한 해결, ②농업부문에 대한 지원 가능, ③대중의 지지 획득, ④지역내 각종 이익의 실현 등이 있고, 불리성으로는 ①소규모성과 발전가능성 유한, ②지연, 혈연관계에 집착, ③현대적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부족 등이 있다. 그는 결론부분에서 향진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적 폐쇄성에서 오는 불리함을 최소화해야 하고, 따라서 모든 생산요소에 대한 개방정책(放寬政策)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盧文, “鄉鎮企業面臨的新形勢和發展的新要求”, 「中國農村經濟」, 1993년 第1期, 1993. 1. pp. 47~51 참조.

을 미치는데를 살펴보자. “향진기업의 경제적 행위를 보면 매우 폐쇄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선 향진기업 종사자는 해당 지역사회와의 관련성에 의해 고용이 결정된다. 따라서 감원을 통한 생산비의 감소는 불가능하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원은 일단 해당 지역내에 존재해야 하고, 이럴 경우 자원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우대조치가 시행된다. 해당 지역 밖의 자원을 이용하게 될 때는 비교적 높은 가격 또는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자원의 지역간 이동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¹⁵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이 제약 받는 것은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노동력의 이동은 제한의 범주를 넘어 엄격히 통제된다고 봐야한다. 중국 정부는 1951년의 「城市戶口管理暫行條例」와 1958년의 「中華人民共和國戶口登記條例」를 근간으로 하여 최근까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 정부수립 초기단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회주의 체제의 공고화에 따른 식량의 원활한 배급체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1980년대 들어와서 농촌의 공급부문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어 야채와 육류를 비롯한 식량의 배급제도도 서서히 완화된 것이었다. 1993년에는 미곡에 대한 배급제도마저 철폐함으로써 당초의 식량배급과 관련된 거주이전 제한의 정책수단은 상실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당초의 호적제도는 사회적으로 유효하다. 자의적인 거주이전에는 교육과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심각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정부가 아직까지 종래의 호적제도를 고수하려는 것은 인구이동의 제한을 전제로 한 것이 분명해진다. 인적 자원의 유동성 제한은 능력있는 기업가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의미도 된다. 이것은 곧 기업관리상 필요한 인재가 적체적소에 배치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기업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아무튼 호적제도상의 엄격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량의 인구이동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¹⁶ 이는 농촌인구가 도시지역으

¹⁵ 姜長云, “貧困地區鄉村企業的經濟行爲分析”, 「中國農村經濟」, 1992年 第1期, 1992. 1. p. 41.

로 유입하려는 현상이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1984년 호적을 옮기는 문제에 관한 국무원 규정을 공포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행정구역상 ‘鎮’의 상공업부문에 종사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고, ‘鎮’지역에 고정한 거주지를 보유하면서, 그 가족이 향진기업에 장기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鎮’지역으로의 이주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대도시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을 농촌의 ‘鎮’지역에 잔류토록 하자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여진다.¹⁷ 1984년의 거주이전과 관련된 국무원의 규정과 사영 향진기업의 허용이 이루어지면서 1980년대 중반이래 향진기업의 전반적이고도 급속한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거주이전과 관련된 이 정도의 조치만으로는 경제의 개방과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또 다른 한계를 노출할 수 밖에 없다. 종래 자유로운 거주이전을 완전히 불허하던 상황에서 현재는 인적 자원의 이동범위를 ‘鎮’단위까지만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 인적 자원의 유동성을 제한함에 따라 결국 자금과 기술을 포함하는 모든 물적 생산수단의 유동성도 일정부분 제약될 수 밖에 없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인적 생산요소 뿐만 아니라 물적 생산수단의 원활한 유동성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더구나 시장경제적 요소가 정착될수록 생산수단의 인위적인 제한이 경제의 효율성을 왜곡시킬 것이 틀림없다.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향진기업의 지속적인 발전도 자원이동의 폐쇄성이 사라질 때 가능할 것이다. 즉 “지역간의 폐쇄성은 이웃 지역간 유사한 산업구조를 창출하고,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 비슷한 상품생산과 투입요소로 인한 시장분할이 이루어지며, 지역보

¹⁶ 농민들의 불법적 이주는 1984년 이후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농지 이용상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1985년 黑龍江省 孫吳縣의 실제 파종면적은 1980년에 비해 5만畝 가량 감소했다. 1988년 海南省의 이농으로 인한 휴경면적은 30만畝로 전성 식량 파종면적의 5%에 해당한다. 1989년 浙江省의 일부 縣市에서 방치된 농경지는 총면적의 7.9%에 이르렀다. 吳京英, “農民奔耕拋荒問題의綜述”, 「中國農村經濟」, 1993年 第9期, 1993. 9. pp. 25~27 참고.

¹⁷ 단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인 쌀에 대한 배급체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주요 식량은 아직 원래의 호적이 있는 농촌지역에서 공급받아야 했다.

호주의를 형성할 것이다.”¹⁸ 지역간의 폐쇄성이 완화된 상황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때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농촌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생산요소의 비유동성은 향진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향진기업 존속의 당위성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우선 제도적으로 노동력의 이동이 어렵다면 각 지방정부는 주어진 제도상의 제약조건하에서 과잉노동력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기업창설에 의한 노동력의 흡수이며 이것이 향진기업으로 나타난 것이다. “중국의 농촌 노동력 이동과 관련하여, 아직 중국에는 농토와 고향을 버리고 직업을 찾아서 도시로 이주하는(離土離鄉 進城就業) 이상적인 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향진기업이 농촌의 잉여노동력을 계속 책임져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¹⁹

2. 향진기업 발전에 유리한 여건

2.1. 정부의 지원

소유제도의 불안정성, 기술과 자금공급능력의 한계, 기업관리의 미숙 등이 향진기업의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정부의 지원, 기업이윤의 지속적 증가, 충분한 노동력, 해외로부터의 투자증중, 그리고 소비재 중심의 상품에 대한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등은 앞으로도 당분간 향진기업의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우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살펴보자. 자금이나 세제상의 특혜는 차치하고라도 현재의 중국농촌을 살펴볼 때 인구이동을 제한하면서 잉여노

¹⁸ 姜長云, 앞의 논문, p. 42.

¹⁹ 王振, “鄉鎮企業與國民經濟資源配置”, 「中國農村經濟」, 1991年 第8期, 1991. 8. p. 33.

동력 흡수가 가능한 유일한 대안은 향진기업의 발전밖에 없다. 비록 향진기업의 경영에서 오는 과실이 지역 농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국가 전체의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향진기업을 제외하면 농촌거주자들에 대한 소득지지의 방법이 없다. 농업소득의 향상을 통하여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거의 무망의 상태나 다름없다. 1980년대 중반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농업생산성의 정체, 영세 분산된 소농경영 등은 농업을 통한 소득향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농가의 순수입 중 24%이상이 향진기업으로부터 비롯되고 이 비율은 매년 2~5%씩 증가하고 있다. 향진기업의 육성은 잉여노동력을 활용하여 소득증가까지 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중앙정부가 향진기업에 애착을 가지는 이유중의 하나는 특별한 자금지원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데 있다. 매년 수십만 또는 수백만의 향진기업이 증가되는 것은 대부분이 개체소유의 소규모 향진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개인 또는 몇몇 농가의 공동출자 또는 개체농과 교포들과의 합작형태 등에 의거 탄생한다. 정부입장에서는 기업지원을 위한 세출의 부담이 없고 오히려 이들 기업들로부터 조세를 납입받으면서 잉여노동력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향진기업의 육성이야말로 여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이와 관련하여 李鵬총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과거 십수년 동안 만약 향진기업의 발전이 없었다면 농가수입의 증가,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농민들에 대한 조세부담의 경감과 생활수준의 향상은 얼마나 어려웠을 것인가? 향진기업의 발전은 농촌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정진문명의 건설에도 유리하며, 농촌사회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또 농촌의 기층조직을 공고히할 것이며, 都農間·農工間의 관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 . 國務院은 경제발전 목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때 향진기업의 발전을 특별히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즉 향진기업의 多目的的 기능을 강조하고 중앙정부 단위에서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표 7-3 개체소유 기업의 발전요인 구성비

발전요인별	구성비(%)
지방당국의 지원	40.2
현, 향, 촌 간부의 지지	18.2
은행, 신용사의 도움	14.8
집체소유 기업의 협조	7.2
전체 직공들의 노력	23.0
경영기술	18.2
친지들의 지원	11.7
기타	6.9

주: 1988년 國務院 農業發展研究中心 農村調查辦公室에서 1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全聖興, 「中國의 農村工業化와 鄉鎮社會의 變化」 西江大 博士學位 논문, 1993, p. 86에서 재인용.

한편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향진기업의 육성에 매우 적극적이다. 현재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지역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가 어려운데, 자체의 향진기업을 육성할 경우 재정수입을 직접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향진기업으로부터 충당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표 7-3)에서도 보듯이 향진기업은 순이윤의 30%이상을 농촌의 각종 경제건설 부문에 투입하고 있다. 이같은 여러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기업의 소유주체를 불문하고 향진기업의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2. 기업 이윤의 증가

앞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향진기업의 육성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살펴 보았는데 다음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향진기업의 성장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공기업을 제외한다면 이윤의 발생 여부가 기업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다음의 (표 7-4)는 연평균 향진기업 순이윤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1978년 88.1억元に 불과하던 것이 1985년엔 187.3억원으로 증가했고, 1992년엔 1,047.9억원으로 증가했다. 기업당 순이윤은 1980년대 중반 개체기업수가 급격히 증가한 관계로 이 시기에 다소 떨어지다가 최근엔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산출액 100원당 순이윤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수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만약 산출액 대비 순이윤율이 더욱 떨어진다면 향진기업의 발전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이다.

아무튼 최근에 이르기까지는 기업당 이윤액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은 이들 이윤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1978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용도로 쓰이고 있는 부분은 기업자체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분야이다. 앞장에서도 보았지만 소규모성의 한계성에서 오는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체 이윤의 상당부분이 기업의 규모확대를 위해 재투자되고 있는 것이다. (표 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확대를 위한 재투자의 비율은 1978년이래 줄곧 전체 이윤의 40%내외를 유지해 오고있다. 기업자체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투자를 제외하면 농촌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

표 7-4 향진기업의 순이윤 동향(경상가격 기준)

구 분	1978	1980	1985	1990	1992
이윤액(억원)	88.1	118.4	287.3	588.0	1,047.9
기업당 순이윤액(元)	5,780	8,311	2,351	3,178	5,010
산출액 100원당 이윤율(%)	17.8	17.8	10.4	6.1	5.9

자료: 「中國鄉鎮企業年鑑」(1993)에서 계산.

표 7-5 향진기업 순이윤의 용도

단위: %

구분	기업의 확대재생산	농업부문 보조	농촌의 복지사업	농촌의 각종 기초건설부문
1978	35.1	29.9	4.5	30.5
1985	46.3	5.2	11.5	37.0
1991	40.7	21.6	7.3	30.4

주: 1985년이후는 鄉村단위의 집체소유 향진기업만 해당.

자료: 「中國鄉鎮企業年鑑」(1993)에서 계산.

표 7-6 향진기업 종사자 1인당 산출액의 동향(元/人, 年, 경상가격 기준)

연 도	1978	1980	1985	1992
노동생산성	1,751	2,230	10,342	16,622

자료: 「中國鄉鎮企業年鑑」(1993)에서 계산.

자에 가장 많은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농업부문에 대한 보조와 농촌의 복지사업에 연간 전체 이윤의 30%가량이 할애되고 있다.

향진기업의 전망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중요한 지표는 향진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1인당 산출액 수준을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노동생산성이 하강하고 있다면 이는 기업의 지속성에 결정적인 저해작용을 할 것이다. 1978년이래 최근에 이르기까지 1인당 산출액의 동향이 (표 7-6)에 제시되어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향진기업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3. 국영기업과의 비교

본절에서는 향진기업의 각종 지표를 국영기업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주로 향촌단위의 집체소유 향진기업과 전민소유제하의 국영 공업기업을 비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개체기업과 국영기업은 규모와 성격상 차이가 너무 커서 서로 비교하기가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두 부류의 기업은 각각 향진기업과 국영기업을 대표하고 있다. 만약 두 부류의 기업간 비교에서 향진기업의 유리성이 입증된다면, 앞으로 향진기업의 발전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이다.

國務院 農業部 鄉鎮企業司에서 1992년 발표한 향촌집체기업과 전민소유 공업기업과의 주요 경제지표 비교분석에 의하면 모두 다섯 분야 - 산출액, 판매수입, 이윤, 노동생산성, 고정자산 100元당 이윤 및 납세율 - 에 걸쳐 두 부류의 기업을 상호 비교하고 있다(표7-7참조). 다음은 鄉鎮企業司의 분석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우선 총산출액에 대해 비교해 보자. 鄉村 집체기업의 산출액은 10,781.3억元으로 전년대비 50.1% 증가한데 비해, 국영 공업기업은 16,770.3억元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에 그쳤다. 순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향진 집체기업이 국영 공업기업에 비해 높다. 1992년의 기준에서 보면 두 부류 기업의 총산출액의 차이는 2% 가량 축소되었다. 최근의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2년정도 지나면 두 부류 기업간의 총산출액 수준이 같아질 것이다.

두번째는 두 부류 기업의 판매수입 비교이다. 鄉村 집체기업의 판매수입은 8,986.3억元으로 전년대비 50.62% 증가했다. 국영 공업기업은 16,147.9억元을 달성하였지만 전년대비 19.2% 증가에 그쳤다. 전국의 鄉村 집체기업의 판매수입은 국영 공업기업의 판매수입에 비해 414.5억元의 순증가액을 기록했으며, 이 결과 두 부류 기업간의 판매수입 차이는 2.5% 줄어들었다.

셋째는 이윤에 관한 비교이다. 향진 집체기업의 이윤은 533.7억元으로 전년대비 60.2% 증가했다. 국영 공업기업은 506.3억元의 이윤을 실현하여 전년대비 26.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국영 공업기업은 1990~91년 기간 중 負(-)의 이윤을 기록한 후 1992년에 겨우 500억元 정도의 이윤을 보여준 것이다. 과거 2년여 동안 향촌 집체기업은 이윤 방면에서 국영 공업기업에

표 7-7 집체 향진기업과 국영 공업기업과의 비교(1992)

구 분		향촌 집체기업	국영 공업기업
산출액	액수(억元)	10,781.3	16,770.3
	증가율(%)	50.1	19.2
판매수입	액수(억元)	8,986.3	16,147.9
	증가율(%)	50.6	19.2
이윤	액수(억元)	533.7	506.5
	증가율(%)	60.2	26.8
노동생산성	액수(元)	23,278	38,017
	증가율(%)	34.2	17.0
고정자산 100元당 납세액	액수(元)	41.9	19.5
	증가율(%)	22.1	-

자료: 農業部 鄉鎮企業司 企業管理處.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기업의 부채도 1992년 기준으로 보면 국영 공업기업이 향촌 집체기업에 비해 9.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매출액 수준과 이윤을 감안할 때 향촌 집체기업의 유리성은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넷째는 두 부류 기업간의 1인당 산출액에 관한 비교이다. 향촌 집체기업의 전근로자 1인당 산출액은 23,278元이며 전년대비 34.2% 증가했다. 국영 공업기업의 종사자 1인당 산출액은 38,017元으로 전년대비 17.0% 증가했다. 두 부류 기업간 이 격차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두 부류기업의 1인당 산출액 증가에 의한 산출량 증가의 기여도는 전자가 25.5%였던 데 반해 후자는 14.5%에 그치고 있다.

다섯째는 고정자산 100元에 대한 납세율의 비교분석이다. 향촌 집체기업이 41.9元으로서 전년대비 19.5% 감소했다. 반면 국영 공업기업은 22.1元으로 향

촌 집체기업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 고정자산 100元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후자가 전자의 94.6%이다. 향진기업이 국영기업에 비해 투자효율이 높고 고정자산 이용률도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상 총산출액, 판매수입, 이윤, 1인당 산출액, 고정자산에 대한 납세율 등을 비교해 보았는데 거의 전분야에 걸쳐 향진 집체기업이 국영 공업기업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정부가 향진기업은 적극 육성하려고 하면서 적자의 국영기업을 정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제 8 장

요약 및 결론

본연구의 일차적인 연구목적은 중국경제에서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향진기업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농촌공업으로도 불리우는 향진기업의 발전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공업화와는 동기와 전개과정이 다르다. 또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개발전략과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향진기업의 개념정립에서부터 발전과정, 국민경제내 역할과 기여, 향진기업의 구조, 발전상의 저해요인과 유리한 여건에 대해 기초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향진기업과 농공간의 인과관계분석을 시도하여 중국의 농촌 경제발전에 대한 성격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즉 거시적 측면에서 향진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한 만큼 과연 향진기업 성장이 중국의 전통적 농촌경제 구조를 변모시키는 작용을 한 것인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향진기업은 鄉鎮정부 주도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육성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범위는 특정의 행정단위, 소유제도, 산업 등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향진기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 농업에 이용되는 토지, 그리고 농촌의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이와같은 속성을 가진 기업이면 기업의 소재지, 소유주체, 생산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향진기업으로 분류된다. 이같이 농촌, 농민 및 토지와 연계된 상호관계가 향진기업과 일반기업

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즉 농촌, 농민 및 토지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면 일반기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진기업이 내포하고 있는 개념은 농업을 배경으로 농촌 및 토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농촌경제를 구성하는 농민적 소유가 전제되며, 농민의 자주적 경영에 의한 생산, 유통 및 서비스 업무가 이루어지는 독립채산적 경제조직을 의미한다.

향진기업은 1950년대초의 합작사와 1958년부터 시작된 인민공사 당시의 社隊企業을 배경으로 발전하여 왔다. 1978년 경제개혁이 수행되면서도 상당기간 사대기업이란 명칭으로 지속되다가 1984년부터 경제변화에 부합하는 향진기업으로 개칭되기에 이르렀다. 향진기업이 농촌경제를 주도하면서 몇가지 주요한 특징들이 나타났다. 전국에 걸쳐 연간 수백만에서 수십만개의 기업이 창설되는 동태성, 다양한 소유제도와 경영방식을 포함하는 다양성, 각지역의 부존자원과 사회경제적 차이에서 오는 불균형성,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기업간의 상호 보완성과 경쟁성 시험, 지역간 생산요소의 비유동성 등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1992년기준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는 5.1인, 연간 총산출액은 8.4만원, 순이익은 2,297元, 고정자산총액 16,658元 등에 불과하여 평균적 의미에서는 아직 가내수공업적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소규모성이 가장 두드러진 특성으로 파악되었다.

향진기업은 1984년 개체소유의 기업경영이 본격적으로 허용되면서 기업수, 고용인구, 산출액 등 급속한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다. 향진기업의 성장은 봉건제와 사회주의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동안 고착되어 왔던 지역단위의 자급자족적 자연경제상태를 와해시키고, 상품경제에 의한 지역간의 경쟁체제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나아가 농촌내부의 잉여노동력 흡수, 국민총생산의 증가, 국민소득의 제고, 산업구조의 변화, 국가 재정수입의 확대, 수출증대와 무역수지의 개선 등 국민경제내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향진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농촌의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농업과 병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게 아니라 지나치게 공업부문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향진기업 산출액 중 75%(1992년)가 공업부문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자본주의적 상품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이 소

비자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상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게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농업과 농민과 농촌을 배경으로 성립된 향진기업이 당장의 이윤추구와 판로해결을 위하여 지나치게 공산품 생산에만 집착하게 될 때, 오히려 농업부문의 자원이 공업부문으로 이전하여 농민들의 상대적 빈곤감이 심화될 수도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농민혁명을 기초로 성립된 중국정부의 건국이념에도 상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농촌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소유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고용과 산출액의 대부분이 집체소유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개체소유 향진기업은 수적으로는 절대다수를 차지하나 영세규모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소규모 기업이 갖는 각종 한계, 예를 들면 자금공급상의 애로, 관리상의 미숙 등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실제 조사결과도 이같은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윤중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업확대를 위한 재투자에 할애하고 있으며, 기업의 기술 채택에 있어서도 노동집약적 방향보다는 자본사용적인 경향을 보인다.

향진기업은 소유제도와 기업규모 등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많은 한계와 모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독립채산체식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가열되고, 지방정부의 재정보호 수단으로써 각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향진기업을 지원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자본과 노동력변수를 이용하여 Cobb-Douglas함수를 추정해 본 결과 규모에 대한 보수체증(비록 체증의 크기가 감소하고는 있지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향진기업이 중국 농촌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향진기업의 고용효과와 관련하여 향진기업 취업자의 양적인 성장이 두드러지긴 했으나 그것이 향진기업 자체의 흡인요인에 의한 고용효과라기 보다는 농촌과잉인구의 배출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둘째, 농촌의 과잉인구해소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목표라면 과잉인구의

해소를 위한 노동집약적 기업발전이 바람직하나 기존 기업들은 고용확대보다는 소규모성에 기인하는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본집약적 기업경영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향진기업의 외연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촌경제내 농·공간의 이분성은 계속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향진기업이 외면상 국민경제내 적지않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농촌내부의 전통과 근대의 이중경제구조가 동태적 발전을 통해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고 단언하기는 아직 이르다. 향진기업과 농공간의 인과관계분석에서도 향진기업성장과 농업성장간에는 별다른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내 산업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본연구에서 대부분 거시적 자료를 기초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실제 향진기업은 대부분의 경우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면서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향진기업과 지방정부간의 관계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하지만, 본연구에서는 자료상의 한계로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향진기업과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초자료를 근거로 보완적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高在模·李日榮, 「中國 農畜産業의 現況과 展望」, KREI, C93-13, 1993.
- 李日榮, 「1980年代 中國의 農業改革」, 서울대 博士學位 論文, 1994.
- 全聖興, 「中國의 農村工業化와 鄉鎮社會의 變化」, 西江大 博士學位 論文, 1994.
- 「中國農業年鑑」, 農業出版社, 各年度版.
- 「中國人口統計年鑑」, 中國展望出版社, 各年度版.
- 「中國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各年度版.
- 「中國鄉鎮企業年鑑」, 農業出版社, 各年度版.
- 姜長云, “貧困地區鄉村企業的經濟行爲分析”, 「中國農村經濟」, 1992年 第1期, 1992.1.
- 辜勝阻, “中國農村經濟非農化實踐及發展趣向”, 「農業經濟問題」, 中國農業經濟學會, 1992年 第6期, 1992. 6.
- 郭書田, “關於鄉鎮企業走向國際市場的幾個問題”, 「中國農村經濟」, 1993年 第7期, 1993. 7.
- 郭永利·張忠法·嚴效明, “我國農村工業的產業構造 - 空間特征和發展方向(上)”, 「中國農村經濟」, 1991年 第10期, 1991. 10.
- 盧文, “鄉鎮企業面臨的新形勢和發展的新要求”, 「中國農村經濟」, 1993년 第1期, 1993. 1.
- 農業部 計劃司, 「中國農村經濟分析」, 農業出版社, 1990.
- 董克新, “鄉村企業產權制度的缺陷及其完善”, 「中國農村經濟」, 1993年 第8期, 1993. 8.
- 栢長庚·阮學義, “鄉鎮企業集團化的思考”, 「財經科學」(西南財經大學 成都), 1989年 第6期.
- 費孝通, 「小城鎮大問題-江蘇省小城鎮研究論文選第一集-」, 江蘇人民出版社, 1984.
- 費孝通, 「小城鎮新開拓-江蘇省小城鎮研究論文選第二集-」, 江蘇人民出版社, 1986.

- 世界銀行,「經濟過渡時期的產業政策」,中國財政經濟出版社,1992.
- 鄂玉江,“我國農村戶口制度變革的思路”,「中國農村經濟」,1992年 第11期,1992. 11.
- 梁方中,「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上海人民出版社,1980.
- 吳京英,“農民奔耕拋荒問題的綜述”,「中國農村經濟」,1993年 第9期,1993. 9.
- 王鈺青,「鄉級行政管理」,中國經濟出版社,1991.
- 王振,“鄉鎮企業與國民經濟資源配置”,「中國農村經濟」,1991年 第8期,1991. 8.
- 庾德昌,“九十年代鄉鎮企業發展戰略”,「農村經濟與社會」,1993年 第2期,中國社會科學院 農村發展研究所,1993. 2.
- 劉祚蔭,“全國鄉鎮企業培訓概況”,「中國鄉鎮企業年鑑 1993」,農業出版社,1993.
- 劉中一,“鄉鎮企業是中國特色社會主義的體現”,全國鄉鎮企業工作會議上的講話,1992. 1. 5.
- 李清雅 外,「簡明中國近代經濟史」,中國統計出版社,1992.
- 張留征 外,「中國農業發展戰略問題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8.
- 張保民,「改革以來的中國農業與農村發展」,1993년 10월 25일 농경연 세미나 자료.
- 張,“‘貿工農’出口基地建設成就斐然”,「中國鄉鎮企業年鑑 1993」,農業出版社,1993.
- 張忠根·林堅·張校軍,“論鄉鎮企業經營行為的產生機制和特征”,「農村經濟與社會」,1991年 第1期,1991. 1.
- 張泰,陳陽,“中西部地區鄉鎮企業發展中資金問題研究”,「中國鄉鎮企業年鑑」,1993.
- 田紀云,“解放思想 抓住機遇 加快中西部地區鄉鎮企業的發展”,全國關於加快發展中西部地區鄉鎮企業經驗交流會上的講話,1992. 11. 18.
- 趙健武,“貿工農一體化發展的基本態勢”,「中國農村經濟」,1993年 第5期,1993. 5.
- 趙震·林宏建,“鄉鎮企業向集團化發展是一條優化之路”,「最優化報」(北京),1989年 5月22日.
- 朱杰,“市場經濟是鄉鎮企業成功之源”,「中國鄉鎮企業年鑑 1993」,農業出版社,1993.
- 周挺,“特殊的現實與現實的選擇”,「中國農村經濟」第75期,中國農村經濟編輯部,1991.
- 陳吉元 主編,「鄉鎮企業模式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8.
- 陳乃醒·王延中·胥和平,“促使中國經濟社會進入更高層次的新生力量 - 試論鄉鎮企

- 業發展的長遠效應”，「農業經濟問題」，1992年 第2期，1992. 2.
- 陳武，“鄉鎮企業離農現象透析”，「農村經濟與社會」，中國 社會科學院 農村發展研究所，1993年 第1期，1993. 1.
- 陳甬軍，“農產品與工產品市場封鎖的生成機制比較”，「經濟研究」，1993年 第7期，1993. 7.
- 陳俊生，“轉變觀念 放開手脚是加快發展中西部地區鄉鎮企業的關鍵”，全國關於加快發展中西部地區鄉鎮企業經驗交流會上的講話，1992. 11. 16.
- 通華，「鄉鎮工業與小城鎮」，中國展望出版社，1985.
- 胡庄君，“當前我國鄉鎮企業職工的思想狀況”，「中國農村經濟」，1993年 第6期，1993. 6.
- 加藤弘之，“過剩勞動力的解消は可能か”，渡邊利夫 編，「中國の經濟改革と新發展メカニズム」，東洋經濟新報社，1991.
- 加藤弘之，“中國農村的過剩勞動力をめぐる問題”，「經濟學研究年報」，No. 33，神戸大，1986.
- 大島一二，「現代中國における農村工業化の展開」，筑波書店，1993.
- 渡邊利夫，“中國に生成する新しい發展メカニズム-現代中國經濟發展論序說-”，渡邊利夫 編，「中國の經濟改革と新發展メカニズム」，東洋經濟新報社，1991.
- 渡邊利夫，“中國の經濟發展メカニズム”，「中國の産業構造と經濟發展戰略」，日中經濟協會，1990.
- 嚴善平，「中國經濟の成長と構造」，勁草書房，1992.
- 嚴善平，「現代中國農村の社會と經濟」，アジア政經學會，1992.
- 栗林純夫，“二階層二重經濟發展戰略と鄉鎮企業”，「中國の産業構造と經濟發展戰略」，日中經濟協會，1990.
- 栗林純夫，“鄉鎮企業をどう理論化するか”，渡邊利夫 編，「中國の經濟改革と新發展メカニズム」，東洋經濟新報社，1991.
- 中兼和津次，「中國經濟論 - 農工關係の政治經濟學」，東京大學出版會，1992.
- Byrd, William A. & Lin Qingsong, *China's Rural Industry*, World Bank, 1987.
- Eckstein, Alexander, *China's Economic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石川滋 監譯，1980, 「中國の經濟革命」，東京大學出版會.

- Geweke, J., "Causality, Exogeneity, and Inference," in W. Hildenbrand, ed., *Advances in Econometr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Granger, C. W. J., "Investigating Causal Relations by Econometric Models and Cross-spectral Methods," *Econometrica*, 1969.
- Hinton, William, *The Great Reversal: The Privatization of China, 1978~1989*, New York, 1990.
- Lewis, Arthur,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Vol.22, No.2, 1954.
- Perkins, D. H., *China's Modern Economy in Historical Perspective*, Stanford, 1975.
- Tang, Anthony, "Agriculture in the Industrialization of Communist China and the Soviet Union," *Journal of Farm Economics*, Vol.49, No.5, December 1967.
- Tang, Anthony, *An Analy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of Agriculture in Mainland China, 1952~1980*, Taipei, Chung-Hw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 1984.

연구보고 R311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농촌경제

찍은날 1994. 12. 펴낸날 1994. 12.

발행인 정 영 일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 문 원 사 739-3911~5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